

# OCEAN Heritage

---

해양유산

2019.12  
Vol.01



국립해양박물관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 표지 그림

아스트롤라베(좌) 네덜란드, 1643년, 지름 22.9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항해용 아스트롤라베다. 항해용 아스트롤라베는 태양의 고도를 측정함으로써 배의 위치를 파악하여 목적지의 방향을 알게 해주는 도구다. 앞면 하부에는 제작년도인 'AD\*1643'이 음각되어 있다.

녹터널(우) 프랑스, 1588년, 지름 6.8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녹터널이다. 녹터널은 밤에 특정한 별의 위치에 기초해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로 항해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 해양유산(Ocean Heritage)

2019.12 Vol.01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태만(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 (가나다 순)

김문기(부경대학교 교수)

백승욱(국립해양박물관 전문위원)

이은정(영남대학교 교수)

이진한(고려대학교 교수)

장경준(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편집간사 권유리(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장)

편집진행 김현수(국립해양박물관 연구원)

발행인 주강현

발행처 국립해양박물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www.knmm.or.kr

발행일 2019. 12. 27.

ISSN 2713-5144

-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국립해양박물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의미로든 재생산하거나 재촬영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국립해양박물관의 견해와 같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바다의 융복합성을 지향하는 실사구시적 학술지를 창간하며

국립해양박물관은 아직 초창기라 박물관의 이론적 정론 학술지가 발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형식과 틀을 갖춤이 중요합니다. 2018년 박물관의 책임을 맡으면서 학술지 창간을 고려했습니다. 여러 제목을 검토하면서 해양문명, 해양문화, 융복합 해양연구 등을 모두 포괄할 표제인 '해양유산'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술지 명칭이 '해양유산'일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해양유산에 대하여 편협하게 사고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유네스코가 정한 범주에 따르면 해양유산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등 대단히 융복합적입니다. 해양 자체가 융복합적 대상이기에 단순한 해양사에서 선박사, 무역사,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미술사, 과학기술사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해양에서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과학과 문화, 문화와 예술 등의 교직도 요구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융복합을 지향하는 추세지만, 특히나 바다에서는 융복합적 상호 교직 없이는 바다 연구의 깊이와 넓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양유산'에서 유산이란 장기 지속적 결과물을 포함하는 동시에 단기 지속적 결과물도 포함합니다. 해양유산은 좀 더 융복합적이고 멀티적이며 개방적인 내용을 두루 포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의 개방성은 본 학술지에서도 요구될 것입니다.

박물관 저널인 만큼 일반 학술지와 조금은 다른 위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이 소장한 중요 유물의 해제와 번역, 보존 처리 등에 대한 작업 성과, 현지 조사 과정에서 얻은 결과 등이 다수 소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시에 대한 평가와 해양예술적 형상화에 대한 논문, 해양문화 및 해양박물관 정책에 대한 글도 실려야 합니다. 일반 학회의 학술지와 박물관의 학술지가 동일할 수도 없고, 동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외부 필자 못지않게 박물관 큐레이터의 기고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 역시 일반 학술지와 박물관 학술지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국립해양박물관은 아직 초창기입니다. 박물관 학예직의 연구가 심화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창간호는 국내 논문에 그치지만 해외 전문가의 글도 실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번역된 글도 적극 권장할 만합니다.

자매지 성격의 영문 학술지 『The Journal of Ocean & Culture』가 먼저 발간되어 제2호를 냈습니다. 한글본 『해양유산』 학술지는 영문판 학술지와 함께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지의 두 축을 이루면서 호를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창간호를 내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편집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국립해양박물관장 주강현

# CONTENTS

PUBLISHER	003	발간사	바다의 융복합성을 지향하는 실사구시적 학술지를 창간하며	주강현
PAPER	006 022 046 072 102	논문	해양유산의 함의와 해양 전통 지식의 재발견 가야의 해상 활동 『충민공계초』의 서지학적 조명 조선 후기 해유 문서와 해유제 고찰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통합된 바다 집시, 바자우족의 생계 전략	주강현 백승욱 정진술 임영현 전경호
BOOK REVIEW	124 134	서평	최초로 국제사회에 등장한 태극기: 『해양 국가의 깃발』 민중이 기록한 바다 생활사: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김태만 노용석
REVIEW	142 152	리뷰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의 여정과 여운 전통 포구의 식민지 근대: 한국역사연구회 학술대회 리뷰	홍영의 배석만
STUDY NOTES	160	연구 노트	수군 훈련(水操)의 군례 절차 분석	김선
APPENDIX	174	부록	『해양유산(Ocean heritage)』 간행 규정 『해양유산(Ocean heritage)』 원고 투고 규정	

# 해양유산의 함의와 해양 전통 지식의 재발견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지 『해양유산』과  
관련하여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

1. 해양유산의 장기지속과 박물관의 정체성
2. 해양유산과 전통지식, 생태지식의 관계망
3. 해양유산에서 근대과학과 야생의 사고
4. 사례연구. 해양유산으로서의 어민지식과 미래적 가치
5. 해양유산과 해양문화의 융복합적 관계망

## 초록

바다의 교양과 지식은 장기 지속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바다가 전해주는 위대한 유산은 모두 아울러 '해양유산'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 해양유산은 자연유산,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해안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역사는 있으나 기록이 없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따라서 원주민의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생태 지식, 전통 지식, 민속 지식 등이 중요하다. 민속 지식은 전통 지식 혹은 전통 생태 지식으로 해석되며, 그 전통 지식은 전통 과학, 민속 과학 등으로 불린다. 유엔은 생물 종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통로로 전통 지식과 기술 그리고 관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안 지역의 원주민은 이른바 과학기술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민속 지식 혹은 전통적 이해 방식으로 충분히 자연계를 인지해왔다. 바다에 대한 그들의 방대한 지식 체계는 사실 그 어떤 과학자가 이루어놓은 것보다 심대하다. 전통 지식이란 '살아 있는 도서관'이다.

해양유산이 좀 더 장기 지속적인 관계망을 갖는다면, 해양문화라는 범주는 장기 지속적 관계망과 더불어 현실적 관계망도 강하게 갖는다. 해양유산과 해양문화의 관계망은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지 『해양유산』의 외연 폭을 현대적인 것까지 망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Abstract

The great legacy that the seas pass down can be called "ocean heritage," because the refinement and knowledge of the seas are the outcomes of the long period of persistency. Ocean heritage can be divided into natural heritage, tangible heritage, intangible heritage, and recorded heritage. For the people living by the sea, it is common that there is no recorded history, even though there is still a history. Therefore, ecological knowledge,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 knowledge observed in the native people's daily life are important. Folk knowledge is interpreted as traditional knowledge or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and the traditional knowledge is called traditional science or folk science. The United Nations (U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technology, and customs as the key channels to guarantee biodiversity.

Native people living by the sea have sufficiently recognized nature in their folk knowledge and or their traditional understanding even without scientific knowledge. Their vast knowledge system of the seas is more profound than any achievements that scientists have made. Traditional knowledge is like a living library.

If ocean heritage has longer-term and continuous network, the category of ocean culture can have strong realistic network, as well as long-term and continuous network. The ocean heritage network and ocean culture network will help to include modern things in the extraneous range of the Ocean Heritage, the journal of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주제어** 해양유산, 해양문화, 전통 지식, 전통 생태 지식, 민속 지식, 야생의 사고

**Keywords** Ocean heritage, Ocean culture, Folk knowledge,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Traditional knowledge, La Pensée Sauvage

## 1. 해양유산의 장기 지속성과 박물관의 정체성

박물관은 그 어떤 법고창신의 철학으로 논해도 역시 '전통'을 무시하고는 존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해양유산도 장기 지속의 전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해양박물관과 해양유산은 상호 연동되며, 깊은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는 전시, 학술, 유물, 교육 등 해양박물관의 다양한 기능 속에서 해양유산이 언제나 전통과 연동되고 있음을 뜻한다.

새로운 과학과 지식이 연일 등장하지만, 바다는 깊고 넓고 장엄하며 교양과 지식 체계 역시 그 역사성의 무게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 역사성의 무게에 해양유산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속적으로는 '바다가 남겨준 위대한 유산의 총칭'으로 해양유산을 정의할 수 있다.

해양유산은 자연유산,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카테고리에 의거한다. 이 글에서는 해양유산 가운데 유형보다는 무형의 유산인 '전통 지식'에 주목하려 한다. 제3세계의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역사는 있으나 기록이 없는(有史無書)' 경우가 보편적이다. 20세기 초반 동부시베리아의 우수리스크를 탐사하면서 선주민인 우데헤족, 즉 나나이족에 대한 주옥같은 글을 남긴 아르세니에프의 다음 기록으로 원주민의 전통 지식이 지닌 위대함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10일, 사마르키강에서 내려온 우데헤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에게 소스노프곶 북쪽 해안 지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중 한 명이 막대기로 모래 위에 지도를 그렸는데, 세밀한 곳까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에게 내가 가지고 다니던 지도를 보여주자 금세 방향을 알아차리고는 지도에 표시된 강과 산, 곳 등을 가리키며 그 명칭과 거리를 일러주었다. 나는 그의 안목에 탄복했다. 그는 난생처음으로 지도를 봤다. 그런데도 척도의 기준을 알아챘고, 평면도법을 계산하는 공식을 그 나름대로 유추해냈다. 문득 허망한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이런 지도를 읽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던가. 내가 휴대한 지도는 대단히 상세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감히 해독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하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문자를 써본 적이 없는 이 눈앞의 야만인은 자연에서 갈고 닦은 경험과 노련한 눈썰미로 문명이 이룩한 지도를 꿰뚫고 있었다.<sup>1</sup>

해양박물관은 해양유산의 장기 지속적 결과물을 유물로서 수집 보관하고, 이에 대한

1 블라디미르 클라우디에비치 아르세니에프 저, 김옥 역, 『테르수 우잘라(Dersu uzala): 극동 시베리아 탐사 기행』, 갈라파고스, 2005.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전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양박물관의 정체성에서 해양유산은 그 중심을 차지한다. 전통 유산에 대한 법고창신적 변용과 새로운 해석이 가해진다고 해도, 그 법고창신이라는 것도 전통 자체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학술지를 창간하면서 그 이름을 해양유산으로 채택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태도가 밑바탕에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전통의 범주를 역사는 있으나 기록이 없는, 곧 ‘쓰이지 아니한 역사’를 이끌어온 보통의 바닷사람들이 전승해오고 생활에서 축적한 전통 지식에 한정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논의의 폭을 전통 지식 중심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유산과 관련해 압축적 논의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해양 전통 지식, 해양유산 등의 여러 범주는 해양박물관의 정체성을 확인 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2. 해양유산과 전통 지식, 생태 지식의 관계망

전통 지식은 민속 지식(folk knowledge) 혹은 전통 생태 지식(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으로 해석되며, 그 전통 지식 범주에는 전통 과학, 민속 과학 등이 포함된다.<sup>2</sup> 유엔은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생물 종 감소를 방지하고 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했다. 생물 종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통로로 전통 지식과 전통 기술 그리고 관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전통 지식과 기술, 관습에 대한 언어적 다양성을 의미한다.

국내 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해온 토착민과 현지 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습을 존중, 보존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 기술 및 관습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폭넓은 응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 기술 및 관습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장려함. - 협약문 제8조 ‘차’항

이러한 논의는 유네스코에 의해 정식으로 문화다양성협약으로 이어진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0년까지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전통 지식, 혁신 및 관습, 관습적 생물자원 이용을 국내법 및 관련 국제적 의무 사항에 따라 존중하고,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과정에서 토착지역공동체가 이에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

게 한다. 이 목표는 전통 지식과 관습적인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토착지역공동체의 효과적인 참여하에 존중하고, 보호 장려함으로써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에서 생물 다양성은 그 자체로 문화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오늘날 애버리지니(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가 사용하던 250개의 토착어가 이미 대부분 사라졌고, 앞으로 살아남을 언어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사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74년에는 최후의 맵크스어(케일어 계열 언어) 사용자가 죽었다. 전 세계의 많은 다른 언어도 이와 같은 우울한 처지에 있다. 생물학 통계에 따르면 매일 1종의 생물이 사라지며, 언어학자들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5000에서 6700개 정도의 언어 중 90퍼센트가 21세기를 지나는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언어 소멸은 세계적인 생태계 붕괴에 따라 나타나는 부수적 현상이다. 다양한 생물 종이 분포하는 지역과 다양한 언어가 분포하는 지역 간에는 ‘생물언어적 다양성’이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생물 언어적 다양성이란 인간의 문화와 언어를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종을 망라하는 풍부한 생명체의 범위를 가리킨다. 생물언어적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계 인구의 약 4퍼센트를 차지할 뿐이지만 세계 언어의 최소한 60퍼센트를 사용하는 토착민 거주 지역이다.<sup>3</sup>

전통 지식에 대한 최근의 경향은 미래 예측, 전통 지식과 지속 가능한 관습적 이용에 대한 존중 및 인식을 강화하고 장려하기 위한 과정이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역, 국가, 국제적 과정에 토착지역공동체가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자원이나 인정, 역할은 한정적어서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다. 언어 다양성의 손실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전통 지식은 계속 줄어들고 토착지역공동체는 대규모로 터전을 잃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보호 지역의 거버넌스 및 관리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늘어나고 공동체 보호 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고 있다.

「제4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GBO-4, Global Biodiversity Outlook 4) 보고서」의 60퍼센트 이상이 이 목표를 향한 전진을 시사한다. 일본, 미얀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전통적 자원 관리, 네팔의 산림과 보호 지역에 대한 참여적 관리 등이 있다. 이 보고서의 다양한 자료에 기초해볼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 토착지역공동체가 지식에 대해 갖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의 지도

3 대니얼 넬슨·수잔 로메인 저, 김정화 역, 『사라져가는 목소리들: 그 많은 언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EJB, 2003, 10쪽.

2 주강현, 『21세기 우리 문화』, 한겨레신문사, 1999, 35쪽.

에 부합하는 국가 지침 또는 행동 계획을 개발한다.

-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전통적 지역 지식을 지원하는 지역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전통적인 건강관리 이니셔티브 등 관습적인 지속 가능한 이용을 장려한다.
- 토착어를 배우고 말할 기회를 강화하며, 전통적 방법에 기반을 둔 연구 프로젝트나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다. 또한 토착지역공동체가 보호 지역의 지정, 통제, 거버넌스, 관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서 전통 지식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생물다양성협약 내 관련 사안에 대한 토착지식공동체의 역량 강화 활동 및 문화적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조직한다.
-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사안과 토착지역공동체의 관심 사안에 대한 모든 수준에서의 토착지역공동체의 효과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서구에서는 이미 전통 생태 지식(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서구의 생태인류학은 문화가 개입된 생태학에 대한 관심, 즉 문화라는 준거 틀을 통해 환경과 인간의 관계 구도를 분석하려는 이론적 경향을 뜻한다. 생태인류학의 주요 흐름은 문화생태학과 신진화론, 인류생태학과 신기능론, 생태과정론과 역사성 그리고 민속생태학과 신민속지 등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인류학의 동향에서 민속생태학(ethnocoology)과 신민속지(new ethnography)는 우리의 자생적 생태민속학을 구축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유산이라는 큰 틀 안의 하위 분야인 해양 전통 지식은 이 같은 학문적 준거 틀 내에 존재할 것이다.

### 3. 해양유산에서 근대 과학과 야생의 사고

바닷가에 사는 원주민은 이른바 과학기술이 아니어도 자신들의 민속 지식 혹은 전통적 이해 방식으로 충분히 자연계를 인지해왔다. 바다에 대한 그들의 방대한 지식 체계는 사실 어떤 과학자의 업적보다 심대하다. 이런 말이 신화처럼 전해온다. “태평양 산호섬의 원주민 하나가 죽으면, 이른바 문명사회의 도서관 하나가 영구히 사라진 것과 같다.”

민속 지식이란 ‘살아 있는 도서관’이다. 민속 지식은 생각 이상으로 범주가 넓으며 민속 교육, 민속 의료, 주술과 점복, 기상과 자연력, 수리(數理) 지식, 자연물 이용 등에 이른다.<sup>4</sup> 전근

대인이 믿어온 바다와 인간과 신의 관계는 우리가 맹신하는 과학 체계보다 훨씬 정확할 수도 있다. 바닷물 색의 변화, 신천웅(엘베트로스)의 활공 방향, 석양의 빛깔만 가지고도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그들의 안목을 이른바 문명인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다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힘은 아직 대양의 구석구석에 미치지 못한다. 새로운 종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심해저의 생물체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미생물 세계로까지 나아가면 바다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다. 과거에 영원히 소멸한 것으로 알려진 종이 다시 되살아나는 곳도 바다다.

레비스트로스는 『야생의 사고(La Pensée Sauvage)』에서 이른바 우리가 ‘과학적 사고’라고 믿어온 것이 기실은 ‘신화적 사고’ 혹은 ‘야생의 사고’보다 문명사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오늘날 야생의 사고는 생태론적 세계관을 구조적으로 밝혀준다는 의미도 더불어 갖는다. 유엔도 생물 종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통로로 전통 지식과 기술 그리고 관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5</sup> 이는 곧바로 전통 지식과 기술, 관습에 대한 언어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베리아의 여러 부족은 약용으로 쓰는 자연물에 대해 명확히 정의 내리고 특별한 용법으로 사용할 줄 안다. 시베리아의 사하족은 치통이 있을 때 딱따구리 주둥이와 접촉하고, 부랴트족은 기침이 나면 비둘기고기 국물을 먹는다. 부랴트족은 곶을 잡으면 각기 다른 치료 목적으로 고기 일곱 가지, 피 다섯 가지, 지방 아홉 가지, 머리 열두 가지, 쓸개 열일곱 가지, 털 두 가지 용도로 나누어 사용한다. 이 같은 예는 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sup>6</sup>

북극해의 시베리아인은 눈과 얼음을 수십 종류로 구분한다. 현대인의 눈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 눈과 얼음을 일일이 구분해내는 그들의 안목은 현대인이 정의하는 ‘과학’의 잣대와 다르다. 과학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북극의 오염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할 때, 북극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의 오묘한 변화를 깨닫고 오염의 시작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안데스산맥의 농민은 세계에서 가장 험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8000년 동안 살아왔다. 안데스의 어느 농부는 100개가 넘는 감자 종류를 기른다. 1985년 페루 중자은행의 조사는 안데스에서 사용한 감자가 497종에 이른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 종을 지역 전체에 걸쳐, 또는 같은 밭 안에서 기르는 일은 8000년 넘게 이어온 안데스 농민의 삶의 방식이었다.<sup>7</sup> 안데스 농민의 전통 과학이란 이처럼 방대한 것이다. 레비스트로스는 발자크의 「고

5 유엔은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생물종의 감소를 방지하고 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했다. 2001년 9월에 181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가입했다.

6 Claude Lévi-Strauss, *La Pensée Sauvage*. (안정남 역, 『야생의 사고』, 한길사, 1996).

7 마시 스클로브, 「안데스 농민의 과학」, 『녹색평론』 43, 1998, 121~125쪽.

4 根岸謙之助, 『民俗知識の事典』, 櫻楓社, 1986.

대의 방』을 『야생의 사고』 첫머리에 ‘의도적’으로 실었다.

다방면에서 그들의 업무를 살피는 데는  
미개인이거나 농부나 시골 사람 같은 이들은 다시없다.  
특히 사고에서 행동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들이 모든 일을 완벽히 수행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인류에게는 야생의 사고가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라는 언표 속에서 야생의 문화를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미신으로 내몰거나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야만으로 비하했다. 바닷가, 외진 섬 사람에게 전승되는 ‘야생의 사고’를 배워야 할 것이다.

바닷가 원주민의 삶은 서구의 직선적, 단선적, 이분법적 삶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마오리족의 세계관은 자연의 순환 리듬에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 삶과 죽음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폴리네시아인 개념으로 어둠은 유동성이 있으며 모호하다. 어둠의 여인(혹은 무지의 여인)인 호나(Hona)는 원래 빛의 여인이었고 탄생의 장소와 죽음의 현장을 의미하는 협막(莢膜), 즉 여성의 질로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구현한다. 이러한 양면 가치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며, 여신 호나를 포함해 많은 신화 속의 화두가 된다.<sup>8</sup>

#### 4. 사례 연구: 해양유산으로서의 어민의 지식과 미래 가치

오늘날 전통 어법은 거의 사라졌다. 20세기 100여 년 동안 적어도 수천 년간 인류가 해오던 바다에서의 삶의 방식 대부분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증기기관에서 출발해 나중에는 기름을 쓰는 기계화된 배가 등장함으로써 연안에서 ‘기다리는 어법’이 아니라 ‘쫓아가면서 잡는 어법’이 가시화됐고, 곧 토착 연안어업의 풍부한 다양성은 급격히 사라졌다. 예를 들어 서부아프리카 연안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또한 노련한 어민이 이끌어난 카누어업은 값싼 수입 냉동어로 인해 ‘작살’이 났다. 유럽에서도 좀 더 새롭고 이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선진’ 어법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통 고기잡이 기술은 쉽게 잊혔다.

연안의 전통 어업이 전 세계 어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할 필요는 있다. 제3세계의 어촌은 대부

분 농업이 결부된 반농반어 사회다. 계절성 혹은 짝을 이용한 시간제 어업 노동이 농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었다. 그러나 전통 어업이 소멸하면서 이들 보완 체계가 무너졌으며, 그리하여 제3세계 연안에서 어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좀 더 강력한 자본주의 체제에 돌입한 나라들은 더 이상 연안에서 마냥 고기를 기다리 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됐다. 바다가재나 새우처럼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어종을 쫓아서 먼바다로 나가야 했으며, 넓은 어장을 석권하고 수심 깊은 곳에도 적합한 기계화된 어법을 사용하게 됐다. 반면 어업의 이 같은 기계화는 반대로 어족자원의 고갈을 불러왔으며, 연안 해역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에도 남아 있는 어로 기술 유산인 ‘돌살’은 주목을 요한다.

- 육지부의 서남해안이나 제주도에는 돌을 등글게 막아서 고기를 잡는 함정 어법인 돌살, 즉 원담이 특수하게 존재한다.<sup>9</sup> 토속 어법<sup>10</sup>은 수산업의 고기잡이<sup>11</sup>와 달리 전통 생태학의 보고다.
- 토속 어업은 작은 규모의 전통 어업으로서 생물언어적 전략의 거점이다.<sup>12</sup> 오키나와와 평후제도<sup>13</sup> 등 여러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다수 전승된다.
- 제주도에서는 물이 빠지는 정도, 즉 조간대의 위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조건을 이용해 돌살을 설치하는 전통이 일반적이다.<sup>14</sup> 이들 돌살에 대한 마을의 공동체적 대응이 존재한다.

돌살은 민속 어법의 대표 격으로 자연 친화적이며, 그 자체로 문화적 종 다원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세계적 보편성도 가지고 있다. 어업 관리에서 어민의 경험적 생태 정보가 중요하게 활용되는 추세인데, 그런 시각에서도 돌살의 교훈은 의미심장하다. 선진 어업국에서 벌어지는 어업 관리 재구축의 주요 관심사는 부족한 어업 관리 정보에 어민의 경험적 생태 정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고기잡이가 지닌 어업 관리 정보의 중요성과 이를 활용하려는 새로운 어업 관리의 생태 정보적 접근인 셈이다. 남획과 고갈에 따른 자원 지대의 소멸과 같은 자유어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9 주강현, 『돌살: 신이 내린 황금그물』, 들녘, 2006.

10 이상고, 「세계 각국의 토속 고기잡이에 대한 어업사적 이해」, 『수산업사연구』 8, 수산업사연구소, 2001.

11 Andres von Brandt, *Fish Catching Methods of the World*, Fishing News books Ltd., England, 1971.

12 Filket Berkes, *Managing Small-scale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Canada, 2001, p.20.

13 矢野敬生·中村敬·山崎正矩, 「沖縄八重山群島·小浜島の石干見」, 『人間科學研究』 15-1, 早稻田大學人間科學部, 2002, pp.47~83; 田和正孝, 「澎湖列島の石干見漁業—傳統的地域漁業の生態」, 『地域文化を生きる』, 大明堂, 1997, pp.1~27.

14 『제주민속유적』, 제주도, 1994, 299~306쪽.

8 K. R. Howe, Robert C. Kiste, Brij V. Lal, editors, *Tides of History: The Pacific Islands i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1994, p.408.

새로운 방향 선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민의 생태 지식에서 흘러나오는 경험적 자연 정보를 어업 관리의 과학적 정보와 결합해 좀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 어업 관리의 의사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고기잡이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토속적 고기잡이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생태 지식의 일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어업 관리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험적 자연 정보가 듬뿍 들어 있다.<sup>15</sup> 세계화는 어업에서도 더 이상 미래의 대안, 희망의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역으로 세계화된 어로 기술을 혁파하고 대안 기술을 되찾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sup>16</sup>

토속적 고기잡이를 민속적 경영(folk management)으로 명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재평가하는 움직임도 있다. 민속적 경영 시스템의 중요성은 그것들을 구성하는 제도, 관행 그리고 지식에 있다. 민속적 경영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고기잡이와 상업적 어업을 모두 포함하는, 전형적으로 작고 연근해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이다. 상업적 어업과 생존을 위한 어업을 상호 배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어부 스스로 상업적 어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먹을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고기를 잡는 것이다. 아니면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 어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내다팔기도 한다. 어획자원이 고갈되는 현재 환경에서 민속 경영과 비집중화된 경영은 토착 지식과 전통 관행, 지역의 제도 등에 더욱 의존할 것이며, 미래를 위한 어업의 새로운 좌표로 설정되고 있다.<sup>17</sup> 소수지만 뜻있는 이론가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

세계 곳곳에서 떠오르고 있는 민속 경영과 어민의 공동 경영 고기잡이 제도는 오늘날 수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희망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같은 경영 전환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문제도 아니다.<sup>18</sup>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바다에는 온갖 쓰레기 그물이 떠돌고 있다. 수많은 바다생물이 이러한 '유령 그물'에 의해 죽음을 맞고 심한 상처를 입는다. 버려진 낚시줄은 분해되는 데 600년 이상이 소요된다. 유령 그물이 바다 속으로 들어오는 빛을 방해하고 독과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물고기를 집단학살하기도 한다. 바다 바닥의 쓰레

15 이상고, 「세계 각국의 토속 고기잡이에 대한 어업사적 이해」, 『수산업사연구』 8, 수산업사연구소, 2001, 12~13쪽.

16 「『세계화』의 타파를 위해: 데이비드 코튼과의 대화」, 『녹색평론』 39, 1998년 3·4월호.

17 E. Paul Durrenberger & Thomas D. King Edit., *State and Community in Fisheries Management: Power, Policy, and Practice*, Bergin & Garvey, Connecticut, London, 2000, p.8.

18 Pinkerton, Evelyn W., *Cooperative Management of Local Fisheries: New Directions for Improving Management and Community Development*, Vancouver, Univ.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9, p.235.

기로 인해 물고기는 산란 장소와 성장 장소를 빼앗기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돌살의 생태 친화적 교훈과 미래 지향은 해양 이해력(ocean literacy)의 훌륭한 소재로 활용되어야 한다.

인류는 지구 전체의 생물과 환경 체계에 날로 파멸적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 전 지구적 온전성(integrity)에 절실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는 전 지구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럴 때에만 인류는 '제6의 멸종'이 야기하게 될 매우 실제적인 위협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인류는 인류 자신과 자연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sup>19</sup>

신의 예정 조화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신이 인간에게 축복을 내렸다면 가장 자연적 그물인 돌살을 마련해 주었으니 인간의 기술과 물고기가 공존하던 황금 그물의 시대를 꿈꾸지 않을 수 없다. 잃어버린 황금 그물의 시대, 그 황금시대의 의미망을 찾아나서는 길, 그 길을 떠나는 데 해양 이해력이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최근 프란체스코 교황이 말했듯이, 자연과 생태 파괴는 그 자체로 '죄악'이다.

#### 그밖의 사례 1. 어민의 지식과 현대 해양 경영

- 스페인 카탈루냐 해안 지역의 어부를 조사한 민족지 사례를 보면, 어민의 전통 지식이 어떻게 오늘날의 기후 변화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sup>20</sup>
- 과거가 중요한데도 기후와 날씨에 대한 전통 지식은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않는다. 기술 발달에 따른 전통 지식의 소멸 때문만이 아니다. 이러한 전통적 정보가 소멸했기 때문이다.
- 기후 변화와 날씨 변동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전통 어민 사회의 보편적 대응 방식이었다. 전통 어법이 사라지고 어장 환경이 피폐해지면서 전통 지식은 더 이상 전승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현장 조사에서 여전히 전통 지식을 보유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를 전승하려는 어민 그룹을 만날 수 있다.
- 전통 지식에 대한 정보 체계와 전승 체계는 곧바로 오늘날 인류가 겪는 기후위기와 수온 변화 등에 대한 깊은 교훈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 전통 지식은 오늘날의 현실적인 해양 경영의 맥락에서도 그 효용성을 잃지 않고 있다.

19 Niles Eldredge, *Life in the balance: Humanity and the biodiversity cri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닐스 엘드리지 저, 김동광 역, 『오카방고: 흔들리는 생명』, 세종서적, 2002, 243쪽).

20 Eliseu Carbonell, "The Catalan Fishmen's Traditional Knowledge of Climate and the Weather: a Distinctive Way of Relating to N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 7, 2012, p.62.

### 그 밖의 사례 2. 어민의 지식과 생물 종 다양성

- 토종의 언어 중 다양성이 사라지고 획일적 언어로 통일돼갔다. 국어사전은 이른바 ‘표준어’라는 이름으로 채워졌으며, 언어의 종 다양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는 표준어 정책은 국어의 영토를 좁혔다.
- 민속 지식의 소멸은 언어생태 전략의 위기가 닥쳐왔음을 뜻한다. 토착 언어가 소멸하거나 축소되고 획일화되는 과정은 자연 인지 체계와 이에 부응하는 민속 지식의 소멸을 뜻한다.
- 방언이 제일 많은 물고기는 송어다. 송어의 방언은 적어도 100개 이상이다. 송어가 한국인의 생활 주변에 가장 가깝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송어의 방언 100여 개 이상이 대부분 소멸했으며, ‘송어’ 하나만 남았거나 고작 송어 새끼를 뜻하는 ‘모치’ 정도만이 남았다.
- 조선 후기 사람조차 구분해 썼던 근연종의 세계를 이른바 현대 과학 시대의 문명인이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sup>21</sup> 타작적 구분법의 무시는 오늘날에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 그 밖의 사례 3. 어민의 지식과 물때

- 어민의 인지는 ‘물때’라는 상징체계로 나타난다. 물때는 조류의 세기를 숫자로 등급화한 것인데, 조석 현상을 하루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반달로 파악하는 것이다.
- 조석조간대를 이용해 살아가는 어민은 여전히 음력에 기초를 두며, 물때가 없이는 그들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때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며, 물때를 가리키는 언어 체계는 언어생태 전략 그 자체이기도 하다.
- 현대적인 조석표가 발표되고 인용되더라도 물때는 반드시 달력에도 명기되어 있으며, 육지인이 대부분 포기한 음력 체계를 어민은 확고하게 이용하고 있다.
- 민속 지식 체계는 전 세계의 조석조간대가 이루어지는 해안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가장 현대적인 유럽 대도시의 낚시꾼조차 물때의 민속 지식을 응용한다.

## 5. 해양유산과 해양문화의 융복합적 관계망

해양유산이 좀 더 장기 지속적 관계망을 갖는다면, 해양문화는 장기 지속적 관계망과 더 붙어 현실적 관계망도 강하게 갖는다. 한국사는 여전히 ‘육지 중심사’다. 그러한 점에서 해양문화는 육지 중심의 문화관이 아니라 바다 중심의 문화관을 전제로 성립된다. 한국

에서 해양문화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해양수산부의 성립, 더 나아가 해양문화재단의 성립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1970~1980년대만 해도 ‘해양문화’라는 명칭은 쓰인 적이 거의 없었으며, 막연하게 ‘바다문화’ 등으로 간간히 일컬어지는 정도였다.

해양문화라는 명칭의 성립이 오래되지 않은 만큼 그 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혹자는 해양이 지나치게 넓은 범주이므로 바다문화라고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존재하고 다중이 이미 쓰고 있으므로 해양문화라는 말은 가장 적확하다는 생각이다. 해양문화는 해양을 둘러싼 자연과 인간 간의 문화 현상을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개념이다. 해양과학, 해양식물학, 해양동물학, 해양생태학 등의 개념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문화적 용례로 해양문화가 있는 것이며 ‘해양문화학’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서 해양문화는 아직 초보 단계이자 발아 단계에 불과하다.

대학에서도 해양과학은 가르치지만 해양문화에 대해서는 강의 요목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교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각하게 말한다면 무지의 소치이자 과학 편향적 사고의 결과다.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의 저변 확대 없이 해양 부국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볼 일이다. 사람들은 신라의 장보고와 조선의 이순신을 TV 드라마를 통해 되짚어내며, 때로는 역사적 실체와 드라마의 실체를 혼용하기도 한다. 이는 분명히 21세기다운 현상이며, 앞으로도 멀티적인 문화 혼용은 계속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바다는 천출(賤出)로 내몰린 ‘갯갯’의 터전이였다. 문화사적으로 철저히 소외됐으며, 역사는 있되 기록은 없는 존재였다. 한국 문화 전반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바다는 천출이다. 박물관뿐 아니라 도서관이나 영화관 같은 문화 인프라에서도 바다는 늘 열외이며, 자주 논의되는 친수 공간(water front) 역시 출발선에 와 있을 뿐이다. 그러한 면에서 해양문화는 분명히 이제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기회가 열린 21세기형 사고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문화의 하위 범주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해양역사(해양사), 해양민속(해양생활사), 수중고고(해양탐험 및 보존처리 등), 해양문학 및 예술(시·소설·연극·음악·미술 등), 해양레저(요트·해수욕 등), 해양관광(섬 여행 등), 해양환경(갯벌·사구·석호·생물 등) 등이다. 학문 분과별로는 해양사, 해양민속학, 수중고고학, 해양문학, 해양예술사, 해양생태학, 해양관광학 등이다.

영국의 경우 해양사를 중심에 두고 해양민속학과 해양고고학이 결합되어 있어 일반 역사와 생활사, 고고학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한국에서도 독도의 역사, 왜구의 침입, 장보고의 활동, 대마도 정벌 등의 해양사 일반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근세 일본의 바다를 통한 침략사도 포함된다. 그런데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의 교류와 같은 해양문화사적 접근

21 조선 후기의 근연종 구분법에 대해서는 『우해어보(牛海異漁譜)』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를 참조.

이 오히려 해양사 일반보다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역사 일반에서 문화사로 전환되는 세계 학계의 동향과 일치한다. 해양민속에는 전통적 어로 도구와 기술사, 어민의 처지와 생활, 해녀(줍녀)의 삶, 해양의 식생활사, 어촌의 주거 양식 등 전통적 삶을 모두 포괄한다. 수중고고학은 해양사 및 해양문화사와 직결되는데, 예를 들어 신안해저유물선에서 발굴된 도자기는 당대의 도자사와 문물교류사, 선박 기술 등에 대한 살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문학은 글자 그대로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을 망라한다. 멜빌의 소설 『백경』이 그 자체로 해양문학의 보고인 것과 같다. 한국의 『심청전』이나 『별주부전』도 해양문학으로 간주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민요도 전통 시대의 해양 구전 문학으로 간주된다. 해양문학은 작가의 관심 속에 현재도 많이 창작되고 있다. 바다를 소재로 한 그림이나 조각, 바다를 소재로 한 영화 등도 주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박한 개념에서 벗어나 프랑스의 쿠스토 선장처럼 영화나 잡지가 해양문화의 진지전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단순한 바다 장식품에서 벗어나 항만에서의 대대적인 문화예술 거리 조성 같은 사례를 일본의 고베항에서 보게 된다. 이는 그림이나 조각이 단순한 장식품에서 나아가 도시 자체를 재설계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해양스포츠는 누구나 즐기는 대상이다. 여름철의 해수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해양스포츠의 꽃이랄 수 있는 요트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스포츠 영역은 아직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반면 수중 활동, 즉 스쿠버에 대한 관심은 대대적이다.

해양관광은 해수욕을 포함하며, 섬 여행, 해안도로 일주, 바다 먹을거리, 해양문화유산 등을 모두 포괄한다. 사실 한반도 관광의 상당 부분은 산 아니면 바다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관광의 백미는 결국 한라산과 더불어 섬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이다. 안면도 관광의 백미 역시 소나무 숲과 더불어 바닷가를 거니는 것이다. 요즘은 단순한 해양관광에서 체험관광을 강조하며 돌살 체험, 개맥이 체험, 후리 체험 등 체험관광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해양환경(갯벌·사구·석호 등)은 생태의 범주지만, 생태관광을 비롯해 갯벌 기행 등 그 자체로 문화적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적으로 접근할 때만이 일반의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열거한 분야만이 해양문화의 전부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 해양 의식 제고 사업
- 해양 의식·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 연구와 시책 개발
- 계층별 사업(여성 사업, 청소년 사업 등)

- 해양인(어민, 선원 등) 문화복지 사업
- 해양수산 전문 인력 육성(장학, 유학, 연수 지원 등)
- 해양인 재교육(평생교육 등)
- 해상 유공자 및 해난사고 유자녀의 연대·지원 사업
- 해양 홍보와 출판 사업
- 해양 정보화 사업
- 해양 국제교류 사업
- 해양문화 아카이브(자료관) 구축
- 해양문화박물관 건립
- 해양관광정보센터 건립
- 독도 문제, 동해 표기 문제 등
- 기타 해양문화 전반

그래서 모두에서 해양유산은 좀 더 장기 지속적 유산이고, 해양문화는 현실적 문제를 포괄한다고 적기했다. 해양박물관은 해양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다의 위대한 유산을 수집, 정리하고, 각별한 전시를 하며,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 역할도 해낸다. 이 글의 논지가 해양유산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기실 해양문화라는 실체와 분리가 불가함을 알 수 있다. 범고창신의 관점에서 해양유산은 새롭게 해석되고 창조되어 오늘날의 현실적 해양문화로 거듭날 것이다.

결론에 대신해 다루어본 여러 항목은 학술지 『해양유산』의 내용과 현실성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해양유산과 해양문화는 상호 대척의 관계가 아니며, 상호 내적 연관성을 지니면서 융복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현상이 때로는 해양유산으로, 때로는 해양문화로 분류되고 호칭될 수도 있다. 이들의 속성 자체가 융복합적이기 때문이다.

# 가야의 해상 활동

I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전문위원

목차

- I. 머리말
- II. 구야국(狗邪國)과 왜(倭)의 교류
- III. 포상팔국(浦上八國)의 해상활동
- IV. 고자국(古自國)과 가라국(加羅國)의 해상활동
- V. 맺음말

## 초록

가야의 성장과 발전에 해상 활동은 중요한 요소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기(前期) 가야 제국(諸國)의 해상 활동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나라는 김해의 구야국이었다. 구야국은 중국의 선진 문물이 대동강 유역의 한 군현을 거쳐 일본열도의 여러 소국(小國)으로 건너가는 거점에 위치했다. 그리고 낙동강을 거슬러 내륙의 가야 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었다. 이를 활용한 경제적 이득은 구야국의 기반이 됐다.

포상팔국(浦上八國) 또한 중국 군현과의 해상 교역을 통해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포상팔국과 가라국(금관가야)의 전쟁은 해상교역권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었다.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전반으로, 이 전쟁에서 신라가 가라국을 도와줌으로써 포상팔국은 패배했다. 이에 포상팔국은 3년 후 신라의 대외 교역항인 갈화(竭火, 지금의 울산)를 공격한다. 포상팔국은 또 패한다. 패배의 원인은 강력한 주도국이 없었다는 점과 결속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가라국과 안라국, 신라는 약진하게 된다.

5세기 중엽 이후 가야의 해상 교역에서 중심은 고자국을 비롯한 경상남도의 서남부 가야 제국으로 옮겨간다. 청자조개(이모가이), 야광조개 등 일본 류큐제도산 조개가 고성을 포함한 가야 남부 지역으로 수입돼 가야 내륙과 신라 경주에까지 보내진다. 해상 활동을 통한 문물 교류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서로 영향을 미쳤다.

## Abstract

Although marine activities were important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Gaya, not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such activities. The country that led early Gaya Empire's marine activities was Guyaguk in Gimhae. Guyaguk was located in the stronghold where Chinese advanced civilization was passed down through Han (Chinese) counties and townships at the basin of the Daedonggang River to many small countries of Japanese Islands. Guyaguk was a crossroad to go to inland Gaya Empire by going up the Nakdonggang River. The economic benefits utilizing the role of the crossroad became the foundation of Guyaguk.

Posangpalguk (Eight small Posang countries) could accept advanced culture through marine trade with Chinese counties and townships. The war between Posangpalguk and Garaguk (Geumgwan Gaya) was a struggle for marine trade rights. The war broke out between the end of the 3rd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the 4th century. Silla helped Garaguk, and therefore Posangpalguk was defeated in the war. Three years later, Posangpalguk attacked

Silla's external trading port, Galhwa (currently Ulsan); however, it was defeated again. The reason of defeat was that there was no powerful leading country, and solidarity was weak among Posangpalguk. The winners of the wars - Garaguk, Anraguk, and Silla - made great advances.

After the mid-5th century, the center of Gaya's marine trade shifted to southwestern Gaya Empire in Gyeongnam including Gojaguk. The Japanese Ryukyu Islands' shellfish including cone shells and luminous shellfish were imported to the southern part of Gaya and were delivered to inland Gaya and Silla's Gyeongju. The civilization exchange through marine activities mutually affected in many fields, as well as economic benefits.

**주제어** 구야국, 왜, 포상팔국, 고자국, 가라국

**Keywords** Guyaguk, Japanese Raiders, Posangpalguk, Gojaguk, Garaguk

## 1. 머리말

최근 가야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가야사 연구가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속에 포함된 점이 작용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의외로 여전히 사람들은 '가야'를 잘 모른다. 가야는 나라 이름인가? 나라 이름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나라인가? 6가야 연맹체라고 하는데, 연맹체란 무엇인가? 지금의 어디에 존재했던 나라인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도 대답이 쉽지 않다.

교과서에서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변한 지역에서는 2세기 이후 여러 정치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해 3세기경 김해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연맹이 형성되고, 5세기 이후 전기 가야연맹이 해체된 후 5세기 후반 고령 대가야 중심의 후기 가야연맹이 형성돼 발전하다가, 금관가야는 532년, 대가야는 562년 신라에 멸망했다'고 설명한다.<sup>1</sup>

그러나 가야의 시작에 대해서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말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sup>2</sup> 그리고 가야 당시에는 '금관가야', '대가야' 등의 국명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최근 가야사학계의 논의에 따르면 전·후기 가야 단일 연맹체도 존재하지 않았다.<sup>3</sup> 가야의 범위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호남 동부 지역까지 확장해 논의되고 있다.<sup>4</sup> 이 논문에서는 가야 제국의 존재 형태와 시기, 범위, 국명 등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 경향과 성과를 반영해 서술하고자 한다.

가야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자료 부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심과 시야를 넓혀보면 보이지 않던 자료도 새롭게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발굴 등을 통해 고고학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연구 시각의 문제다. 가야사는 처음부터 식민지 침략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제공이라는 연구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이른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임으로 해서 이후 연구에 미친 폐해는 심각하다.

가야의 해상 활동에 대한 연구도 이상의 연구 경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부족한 자료와 무관심 또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가야의 해상 활동에

1 최준채 외 4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리베르스쿨, 2014, 31~37쪽; 한철호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미래엔, 2014, 24쪽.

2 백승욱, 「진·변한의 시말(始末)과 내부 구조」, 『박물관연구논집』 17, 부산박물관, 2011a.

3 백승욱, 「가야 제국(諸國)의 존재 형태와 '가야지역국가론」, 『지역과 역사』 34, 부경역사연구소, 2014; 백승욱, 『가야 각국사 연구』, 혜안, 2003; 이영식, 『가야 제국사 연구』, 생각과중이, 2016.

4 국립나주·가야문화재연구소,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2019년 가야사 기획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2019; 전라북도·전북사학회·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전북 지역 고대 정치 세력과 가야』, 전북 가야의 역사적 뿌리를 복원하기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2019.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2011년 4월 김해시가 주최한 제17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로 보인다.<sup>5</sup> 그 외에 김창석,<sup>6</sup> 선석열<sup>7</sup> 정도가 가야의 해상 활동과 관련한 글을 썼다. 2019년 가야 특별전과 연계한 국제학술회의에서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가야의 해상 활동에 관심은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sup>8</sup> 향후 가야사 연구 경향을 고려해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해양사와 관련한 연구는 1950년대에 최남선 등의 주도로 편찬된 『한국 해양사』가 그 시발로 보인다.<sup>9</sup> 이후 맥을 잇지 못하다가 1990~2000년대 들어 윤명철,<sup>10</sup> 강봉룡<sup>11</sup> 등의 연구가 등장했다.<sup>12</sup>

가야의 해상 활동에 대한 연구는 홀시해야 할 분야가 아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 최초로 국가체가 태동해 성장할 무렵, 그들이 바다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바다에 연한 정치체가 그 조직의 운영이나 강화를 위해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운용했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과 성쇠는 결정될 수 있다. 이것이 고금을 막론하고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 유다.

3세기 말엽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 『삼국지』에서는 중국의 선진 문물이 일본열도로 전해지는 데 가야 제국이 그 결절점(結節點)에 있음을 설명한다. 그 내용을 전기 가야의 중심국이었던 구야국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3세기 대가야의 해상 활동 내용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는 남해안 연안에 위치했던 가야 제국인 포상팔국의 해상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필자도 관련 논고를 발표한 적 있으나 가야의 해상 활동과 관련해서는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어서 재차 소개한다.<sup>13</sup>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 지역 출토 유물 가운데 일본 오키나와(沖繩)산 조개로 만들어진 자료와 관련해 가야의 해상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5 이때 발표된 글을 모은 것이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김해시, 『가야의 포구와 해상 활동』, 주류성, 2011이다.

6 김창석, 「고대 교역장의 중립성과 연맹의 성립: 3~4세기 가야연맹체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16, 2012; 김창석,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7 선석열, 「한국 고대 동남해양사의 연구 동향과 그 과제」, 『석당논총』 66, 2016.

8 국립중앙박물관,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 네트워크』, 특별전 〈가야 본성(本性)〉과 연계한 국제학술회의, 2019.

9 해군본부 전사편찬실 편, 『한국 해양사』, 1954.

10 윤명철, 『동아시아중해와 고대 일본』, 청노루, 1996.

11 강봉룡, 「해양 인식의 확대와 해양사」, 『역사학보』 200, 2008.

12 연구사에 대해서는 강봉룡, 「한국 해양사 연구의 몇 가지 논점」, 『도서문화』 33, 2009; 하세봉, 「한국의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 민족주의적 성과와 탈근대적 전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선석열, 앞의 논문, 2016 등 참조.

13 백승욱, 「포상팔국 전쟁과 지역 연맹체」,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김해시, 『가야의 포구와 해상 활동』, 주류성, 2011b.

## II. 구야국(狗邪國)과 왜(倭)의 교류

한반도 남단과 일본열도는 폭 약 200킬로미터의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이미 선사시대부터 교류했다. 부산 동삼동 패총을 비롯한 남부 해안의 신석기시대 패총에서 일본열도산 흑요석이 출토된 점 등으로 보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후에도 양 지역의 교류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음이 고고학 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문헌 자료에서도 보인다.

가야와 왜 또한 그 정치체가 형성되면서부터 교류해왔다. 가야는 기본적으로 선진 문화를 왜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가야 초기에는 남해안과 연한 김해 가라국 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점차 가야의 내륙 지역에서도 왜와 교류를 확대해 나갔다. 가야와 왜 사이의 교류 양상이 어떠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왜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가 최초로 등장하는 문자 사료는 선진(先秦) 자료인 『산해경(山海經)』이며,<sup>14</sup> 후한(後漢)의 왕충(王充, 27~97)이 찬술한 『논형(論衡)』에도 “주(周)의 시대는 천하대평으로 왜인(倭人)이 창초(鬯草, 香草)를 바쳤다”라는 기록으로 등장한다. 정사(正史)로는 후한의 반고(班固, 32~92)가 찬한 『한서(漢書)』 「지리지」에 나오는데, 이 시기 왜는 10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한의 낙랑군에 조공을 바쳤다고 한다. 그리고 『후한서(後漢書)』 「동이전」에는 57년 왜의 노국왕(奴國王)이 보낸 사신이 낙랑을 방문해 광무제가 인수(印綬)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sup>15</sup> 이 기록은 1784년 일본 후쿠오카의 시카노시마섬(志賀島)에서 ‘한위노국왕(漢委奴國王)’이라고 새겨진 금인(金印)이 실제로 발견돼 더욱 주목된다. 1세기 왜의 존재를 확인해준은 물론이고 당시 왜가 중국과 통교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세기 왜의 모습과 대외 교류 사실을 알 수 있는 고고 자료가 있다. 1970년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하오셴(毫縣)에서 발견된 원보갱(元寶坑) 1호 묘 출토의 벽돌(埴)에서 ‘왜인(倭人)’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후한 대인 2세기 후반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원보갱 1호 묘에서는 문자전(文字埴) 약 160점이 출토됐다. 그중 ‘유왜인이시맹불(有倭人以時盟不)’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벽돌이 발견된 것이다.<sup>16</sup>

3세기에 왜의 모습은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왜조」에 비교적 자세히 보인다. 여기에는 소국 간의 다툼이 격화돼 왜에 전국적 대란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보인다. 일본열도의 소국이 서로 다투는 혼란기가 계속되다가 3세기에 접어들면서 멸망과 통합을 거듭하며 정리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그중 30여 국을 지배했던 야마타이국(邪

14 “蓋國在鉅燕南倭北倭屬燕。” 『山海經』 「海內北經」.

15 “建武中元二年 倭奴國奉貢朝賀使人(……) 光武賜以印綬。” 『後漢書』 「東夷傳」 「倭條」.

16 森浩一編, 『倭人の登場』, 中央公論社, 1985, p.13.

馬台國)이 가장 큰 나라였다. 아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卑彌呼)는 239년 위(魏)에 사신을 파견하고 다수의 구리거울과 '친위왜왕(親魏倭王)'의 칭호를 얻었다. 히미코 사후 아마타이국은 혼란에 빠지지만 여왕 이요(壹與)가 왕위에 오른 후 안정을 찾았다. 이요가 태시(泰始, 서진의 연호) 2년(266) 진(晉)에 사신을 파견한 이후 100여 년 동안 왜는 중국 사서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왜가 중국과 교섭할 때 중개자 역할을 한 것이 변한(弁韓)이었다. 변한은 곧 가야다. 변한의 여러 소국이 성장해 가야 제국이 되기 때문이다.<sup>17</sup> 변한의 처지에서 보면 왜와 중국 양쪽을 아우르는 대외관계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방군에서 왜로 가기 위해서는 뱃길을 이용해야 했다. 『삼국지』 '왜조'에서는 "서해안을 따라 7000여 리의 뱃길을 거쳐 구야한국(狗邪韓國, 구야국)의 북쪽 해안에 이르고, 다시 1000여 리의 바다를 건너면 쓰시마국(對海國)에 이른다"라고 나온다. 구야한국은 남가라의 전신 구야국이다. 쓰시마에서는 이키섬을 거쳐 후쿠오카로 향했을 것이다. 『삼국지』 '한조'에서는 한은 왜와 접한다고 기록했으며, '변진조'에서는 "독로국(濶盧國)은 왜에 경계를 접한다"라고 기록했다. 독로국은 지금의 부산 동래 지역이다. 바다를 사이에 두었지만 경계가 접한다고 본 것처럼, 한과 왜는 교류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교류의 내용물은 철 등의 선진 문물이었다. "나라에는 철이 나는데 마한과 예(濊), 왜에서 모두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삼국지』의 유명한 기록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한다. 또한 쓰시마와 이키의 경우 가야로부터 쌀도 수입했다.<sup>18</sup> 가야가 왜로부터 받는 상대 급부는 해산물, 소금 등의 특산물과 노동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대륙에서 꽃피운 선진 문물은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로 전달됐다. 그 루트는 연안항로를 통한 바닷길이었다. 가야는 그 전달의 결절점에 있었다. 중국의 군현에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구야국에 이르러 바다를 건널 준비를 했다. 강을 통한 내륙과의 교역도 이루어졌다.

### III. 포상팔국(浦上八國)의 해상활동

포상팔국(浦上八國)이란 한반도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가야 8국을 말한다.

17 가야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특히 변한 시기를 가야사의 영역에 포함하지 않고 가야 전사(前史)라 하여 분리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삼한 소국과 백제, 신라, 가야 제국(諸國)의 관계는 성장에 따른 국명의 전환으로 파악해야 한다. 사로국(斯盧國)은 신라로, 백제국(伯濟國)은 백제에 다름 아니다. 구야국(狗邪國) 또한 (남)가야국((南)加羅國, 駕洛國, 金官伽耶)이 된다. 이는 동일 정치체의 성장에 따른 국명 변경이기 때문에 동일국사(同一國史)로 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백승욱, 앞의 논문, 2011a 참조.

18 "對海國~無良田 食海物自活 乘船南北市糶 又南渡一海千餘里 名曰瀚海 至一大國~有三千許家 差有田地 耕田猶不足食 亦南北市糶 又渡一海千餘里." 『三國志』 「魏書」 倭.

이들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한다. 관련된 사료는 다음과 같다.

#### 사료 A

포상팔국이 모의해 가라(加羅)를 침입했다. 가라 왕자가 와서 구원을 청했다. 왕이 태자 우로(于老)와 이벌찬(伊伐瀆) 이음(利音)에게 명해 6부의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구하게 했다. 8국의 장군들을 쳐서 죽이고, 사로잡혔던 6000인을 빼앗아 (가라에) 돌려주었다.<sup>19</sup>

#### 사료 B

물계자(勿稽子)는 내해(奈解) 이사금(尼師今) 때의 사람이다. (……) 이때 포상팔국이 동모해 아라국(阿羅國)을 쳤다. 아라의 사신이 와서 구원을 요청했다. 이사금이 왕손(王孫) 내음(捺音)에게 시켜 근처의 군(郡)과 6부병을 이끌고 가서 구원하게 했다. 드디어 8국의 병사들이 패했다. (……) 3년 후에 골포(骨浦), 칠포(柒浦), 고사포(古史浦)의 3국 사람들이 와서 갈화성(渴火城)을 공격했다. 왕이 병사를 이끌고 가서 구했다. 3국의 군사가 크게 패했다.<sup>20</sup>

#### 사료 C

제10대 왕인 내해왕(奈解王)이 즉위한 지 17년 임진에 보라국(保羅國), 고자국(古自國, 지금(고려 때, 이하 같음)의 고성), 사물국(史勿國, 지금의 사수) 등의 여덟 나라가 힘을 합해 와서 변경을 침입했다. 왕이 태자 내음과 장군 일벌(一伐) 등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막게 했다. 8국이 모두 항복했다. (……) 10년 을미(乙未)에 골포국(지금의 함포) 등 3국의 왕이 각각 군사를 이끌고 와서 갈화를 공격했다. [갈화는 아마도 굴불(屈弗)일 것이다. 지금의 울주다.]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막았다. 3국이 모두 패했다.<sup>21</sup>

이들 기사는 포상팔국이 주변의 가라 또는 아라, 신라의 갈화성 등을 공격해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상의 팔국이니 해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관련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들 기사는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전쟁은 언제 일어난 것인가? 전쟁의 대상국은 어

19 "浦上八國 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 與伊伐瀆利音 將六部兵 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 2 '奈解尼師今 14年 秋7月條'.

20 "勿稽子 奈解尼師今時人也 (……) 時八浦上國同謀伐阿羅國 阿羅使來請救 尼師今使王孫捺音率近郡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 (……) 後三年骨浦 柒浦 古史浦三國人來攻渴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 『三國史記』 卷48 「列傳」 8 '勿稽子傳'.

21 "第十奈解王即位十七年壬辰 保羅國 古自國(今固城) 史勿國(今泗州) 等八國 併力來侵邊境 王命太子捺音 將軍一伐 等率兵拒之 八國皆降 (……) 十年乙未 骨浦國[今合浦也]等三國王 各率兵來攻渴火(疑屈弗也 今蔚州) 王親率禦之 三國皆敗." 『三國遺事』 卷5 '勿稽子傳'.

디인가? 8국으로 비정되는 곳은 어디인가? 전쟁의 성격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것이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것이 많고 복잡하기에 별도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22</sup>

먼저 이들 기사에 보이는 포상팔국 간 전쟁이 일어난 시점의 문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삼국사기』의 편년을 그대로 따라 3세기 초로 보는 설이 있고,<sup>23</sup> 기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수정해 4세기 전반으로 보는 설이 있으며,<sup>24</sup> 고구려의 남정 전후로 보는 견해,<sup>25</sup> 고고학적 관점에서 현 고성 지역 토기(이른바 소가야 토기)의 지역 권역 형성 시기가 5세기 후반이 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5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sup>26</sup> 또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보는 견해,<sup>27</sup> 김해 가야 세력의 멸망 이후 대가야 멸망 이전의 6세기 중엽으로 보는 설,<sup>28</sup> 대가야 멸망 이후 7세기 초엽으로 보는 설<sup>29</sup> 등이 있다.

여러 논자 가운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4세기 전반으로 보는 김태식은 포상팔국 전쟁을 해상교역권과 관련해 가야 세력권에서 내분이 일어난 사건으로 파악한 기존의 연구를<sup>30</sup> 받아들여 낙랑군과 대방군이 소멸되는 시기에 주목한 것이다. 즉 두 군(郡)의 소멸이 한반도 남부에서 급격한 교역 체계의 변동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아 포상팔국 전쟁이 그 영향으로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500년경 지증왕의 즉위 시기부터 그 이전 대의 왕과 친족의 출생 관계를 역산해 내해왕의 즉위를 대략 310년대 후반으로 추정한 강중훈의 연구 성과를 참고했음을 밝힌다.<sup>31</sup>

22 이하 포상팔국 간 전쟁 관련 내용은 필자의 전고, 백승욱, 앞의 논문, 2011b, II 장 1절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 요약한 것이다.

23 천관우, 『가야사 연구』, 일조각, 1991년, 16쪽; 이현혜, 「4세기 가야 사회의 교역 체계의 변천」, 『한국고대사연구』 1, 1988, 166쪽; 백승충, 「1~3세기 가야 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 수로 집단의 성격과 포상팔국의 난을 중심으로」, 『부대사학(釜大史學)』 13, 1989, 30쪽; 권주현, 「아라가야의 성립과 발전」, 『계명사학』 4, 1993, 23쪽; 노중국, 「가야의 대외교섭: 3~5세기를 중심으로」, 『가야의 해상 세력』, 김해시,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2005, 39쪽; 이형기, 『대가야의 형성과 발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9, 70쪽.

24 김태식, 「합안 안라국(安羅國)의 성장과 변천」, 『한국사연구』 86, 1994, 51쪽.

25 허재혁, 「5세기 대 남부가야의 세력 재편: 포상팔국 전쟁과 고구려군 남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문학석사학위 논문, 1998, 27쪽; 「포상팔국 전쟁의 원인과 성격: 김해 지역 정치 세력의 성쇠와 교역」, 『가야의 해상 세력』, 김해시,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2005, 99쪽에서는 4세기 중·후반으로 본다.

26 신경철, 「가야 스케치」, 『고고광장』 창간호, 2007, 224쪽.

27 김주용, 「5~6세기 중부 경남 지역 소가야 토기의 확산과 그 의미」,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 20주년 기념 논문집』,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2010, 724~730쪽.

28 金廷鶴, 『任那と日本』, 小學館, 1977, pp.57~58. 선석열, 「삼국사기 신라본기 가야 관계 기사의 검토: 초기 기록의 기년(紀年) 추정을 중심으로」, 『부산사학』 24, 1993, 36~38쪽; 「포상팔국의 아라국(阿羅國) 침입에 대한 고찰: 6세기 중엽 남부 가야 제국의 동향과 관련해」, 『가라문화』 14,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97, 66쪽.

29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 吉川弘文館, 1962, p.174.

30 이현혜, 앞의 논문, 1988, 166쪽.

31 김태식, 앞의 논문, 1994, 52쪽.

비록 상황 논리에 근거한 것이지만, 김태식의 논리가 비교적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가 설정한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급격한 교역 체계의 변동 상황은 낙랑군과 대방군이 소멸한 이후인 4세기 전반보다 좀 더 소급해서 적용해도 가능하다. 이 두 군의 소멸이 교역 체계의 변화를 증폭시킨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지만, 두 군의 소멸 이전에 이미 한반도 남부에서는 교역 체계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2</sup> 이러한 사정과 함께 사료 속 인물인 우로(『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기」에는 ‘우류조부리지간(宇流助富利智干)’으로 표기됨)의 생존 연대 등을 감안해보면 포상팔국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33</sup>

다음은 전쟁 대상국의 문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포상팔국이 모의해 가라국(伽羅國)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열전」에서는 아라국(阿羅國)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온다. 포상팔국이 공격한 대상국은 과연 어느 곳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약용이 『강역고(疆域考)』에서 ‘아라(阿羅)’를 ‘가라(柯羅)’로 고쳐<sup>34</sup> 「열전」의 기사가 잘못됐다고 한 이후 다수가 가라설을 지지하고 있다.<sup>35</sup> 즉 열전의 아라를 가라의 오기로 보고, 포상팔국이 가라를 공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아라 오기설이라 할 수 있다.

아라 오기설을 주장하는 권주현의 경우 포상팔국 전쟁을 변한 제소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두 세력권의 다툼으로 간주하고, 낙동강 서부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한 안야국이 포상팔국 지역연맹체를 주도해 금관가야 중심의 지역연맹체와 실력대결을 벌인 것으로 이해했다.<sup>36</sup> 그런데 만약 함안의 안라국이 포상팔국에 속했다고 한다면, 『삼국지』 ‘한조’에 이미 ‘안야국(安那國)’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등 안라국의 당시 위상으로 보아 포상팔국의 이름을 나열하는 중에 등재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료상에는 안야국 또는 안라의 이칭으로 볼 만한 어떠한 국도 보이지 않는다.<sup>37</sup>

또한 『삼국사기』 편찬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수정됐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sup>38</sup> 그리고 동일하게 아라 오기설을 지지하는 김태식에 의해서도 이미 비판됐듯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32 최근 한반도 남부 지역의 김해 양동, 대성동, 울주 하대 유적 등에서 출토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왜계(倭系) 혹은 중국 한계(漢系) 유물은 그 방증 자료가 된다.

33 우로의 생존 연대 추정에 대해서는 백승욱, 앞의 논문, 2011b, 123~126쪽 참조.

34 “勿稽子傳云 浦上八國同謀伐柯羅國 柯羅遣使請救” 丁若鏞, 『疆域考』 卷2, 弁辰別考.

35 천관우, 앞의 책, 1991, 16쪽; 이현혜, 앞의 논문, 1988, 165쪽; 이영식, 「가야 제국의 국가 형성 문제: ‘가야연맹설’의 재검토와 전쟁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32, 1985, 75쪽; 백승충, 앞의 논문, 1989, 30쪽; 권주현, 앞의 논문, 1993, 21쪽; 김태식, 앞의 논문, 1994, 56~58쪽.

36 권주현, 앞의 논문, 1993, 23쪽.

37 허재혁과 이영식은 보라(保羅)를 안라(安羅)로 본다. 이에 대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38 김태식, 앞의 논문, 1994, 56쪽.

에 나오는 '가야(伽耶)'는 본래 가야국을 가리킬 수도 있고 가야 계통의 다른 소국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시각은<sup>39</sup> 따를 수 없다. 만약 이 시각이 옳다면 원 사료에는 아라국(阿羅國)으로 나오는 것을 『삼국사기』 편찬자가 국명을 수정하면서 일부는 가라 또는 가야로 고치고 일부는 미처 고치지 못해서 이런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삼국사기』 「열전」에 보이는 아라국이 더 정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앞의 기사에 나오는 아라국 외에도 소문국(召文國)·감문국(甘文國)·압독국(押督國)·다벌국(多伐國) 등 소국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중에는 금관국(金官國)·거칠산국(居柒山國)·초팔국(草八國)·대가야국(大加耶國)·아시랑국(阿尸良國) 등 가야 계통 소국의 이름도 분명히 나온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자의 도적으로 수정했을 가능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sup>40</sup> 반대로 『삼국사기』의 가야 혹은 가라는 모든 가야 제국에 통칭됐다고 보아 본기의 가라는 곧 아라국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가라 오기론)도 인정할 수 없다. 『삼국사기』에 가라 혹은 가야로 표기된 국은 김해의 가야 세력 아니면 고령의 가야 세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up>41</sup>

김태식은 『삼국사기』 「열전」의 아라국이 가라의 오기라고 하면서, 포상팔국 중 위치 고증이 가능한 골포(현 창원·마산), 칠포(현 칠원), 고사포=고자국(현 고성), 사물국(현 사천)의 토기 문화권과 함안 도항리·황사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통형고배의 형식으로 보아 동일 토기 문화권인 점에서 포상팔국이 동일 문화권인 함안의 안라국을 쳤다기보다는, 다른 문화권에 속하면서 세력이 큰 김해의 가야국을 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즉 고고학적 증거로 봐도 포상팔국의 공격 대상은 아라국이 아니라 가라였다는 추정이 좀 더 타당하다고 했다.<sup>42</sup> 그리고 이 기사에 '아라국(阿羅國)'의 국명이 나오는 것은 포상팔국의 난을 지휘한 세력이 함안의 안라국이었기 때문에 오기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sup>43</sup> 김태식의 견해대로라면 공격의 주도국이 공격을 받는 국으로 오기됐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추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가라 오기론을 지지하는 연구자(공격받는 나라를 함안의 아라국으로 보는 논자)<sup>44</sup> 경우 대부분 전쟁 시기를 6세기 이후 남가라 멸망 이후의 사실로 봐서 논지를 전개한다. 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英)는 포상팔국 전쟁을 신라 진흥왕 대 이후 이미 망한 가야 제국 중 최서남 지구 가야 세력의 반격이라고 했다.<sup>45</sup> 선석열은 포상팔국이 공격한 대상은 아라라고 규정하고, 이를

39 이영식, 앞의 논문, 1985, 69~74쪽; 백승충, 앞의 논문, 1989, 9쪽.

40 김태식, 앞의 논문, 1994, 56쪽.

41 백승욱, 『가야 각국사 연구』, 해안, 2003, 76쪽의 표 2 참조.

42 김태식, 앞의 논문, 1994, 57쪽.

43 김태식, 위의 논문, 58쪽.

44 三品彰英, 앞의 책, 1962, 174쪽; 田中俊明,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p.30.

45 三品彰英, 위의 책, 174쪽.

신라가 공격할 수 있는 시기의 상한은 김해의 금관가야가 이 상황에 개재될 수 없는 시기, 즉 멸망 이후로 보았다.<sup>46</sup> 김정학은 가라 오기론을 지지하는 관점은 아니지만 팔국이 결국 신라에 의해 평정된 점과 함께 팔국이 대부분 김해가야보다 서쪽 해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금관가야를 평정한 이후에 포상팔국의 연합군이 신라군에 반격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sup>47</sup>

전쟁의 시기를 3세기 말로 보는 남재우는 포상팔국 전쟁 기사를 포상팔국이 김해 가라국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농경지 확보를 위해 안라국을 공격한 것으로 해석한다.<sup>48</sup> 전쟁의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그러나 「신라본기」 기사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 그는 정약용이 '가라(柯羅)'로 쓴 이유를 추구해, 아라의 오기라고 설명한다.<sup>49</sup> 그러나 정약용이 『강역고』에서 가라에 대한 표기로서 주로 쓴 가라(迦羅) 대신에, 포상팔국 전쟁 기사에서는 가라(柯羅)를 쓴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에 대한 정약용의 의문 표시일 가능성이 있다.

오기론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라와 아라는 다른 나라이기에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야사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쟁 대상국을 가라로 보는 설은 사료 A와 B가 기본적으로 동일 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 정사인 『삼국사기』에 중점을 둔 관점이다. 그리고 정약용의 '아라(阿羅)는 가라(柯羅)의 잘못'이라는 설도 영향을 준 듯하다. 전쟁 대상국을 아라로 보는 설은 가라보다는 아라가 특수한 용례이기 때문에 편찬자가 아라를 잘못 기록했을 까닭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들 사료는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과연 편찬자가 오기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사료 C의 입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는 편찬 시 『삼국사기』를 참고했음이 곳곳에 보인다.<sup>50</sup> '남부여조'에서는 '삼국사기'의 형태로, 마한·말갈·남부여·무왕·후백제·원광서학조 등에서는 '삼국사'의 형태로, 아도기라·대산오산진신조에서는 '삼국본기'의 형태로 인용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사료 C는 사료 A와 B를 참고해 만들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사료 C는 내용에서 A와 B보다 구체적이다. 이는 C를 편찬할 당시 A, B 외에 또 다른 자료를 활용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도 C의 찬자는 A의 내해왕 14년 전쟁 기사 외에 17년 전쟁 기사를 실었다. 그것도 임신년이라는 간지와 함께 A와 B에 보이지 않는 국명까지 열거한다. 이는 C의 입장에서 보아 A도 인정하면서 17년 전쟁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C는 A와 B의 차이점 가운데 '가

46 선석열, 앞의 논문, 1997, 66쪽.

47 김정학, 앞의 책, 1977, 57~58쪽.

48 남재우, 『안라국의 성장과 대외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학위 논문, 1998, 71~72쪽; 남재우, 『안라국사(安羅國史)』, 해안, 2003.

49 남재우, 위의 학위 논문, 73쪽.

50 『삼국유사』의 인용서에 대해서는 최남선, 「삼국유사 해제」, 『중보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3, 14~22쪽 참조.

라'와 '아라'에 대해서는 '변경 지역'으로 처리했다. C가 보기에 A와 B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C 기술자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는 곧 C 편찬 당시에도 '가라'와 '아라'가 각각 기록돼 있었다는 증거다. 이로 보아 만약 오기라면 『삼국사기』 편찬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오기했다고 볼 수 있다. 연대의 오기와 전쟁 상대국의 오기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해볼 때 오기론은 따르기 어렵다. 다만 이들 기록이 모두 신라 위주로 신라 사관의 입장에서 서술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사료를 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앞의 사료 A, B, C를 서로 모순 없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의 관건은 비교적 간단하다. 사료를 자세히 보면, 사료 B와 C는 같은 시기의 동일 사건에 대한 기술이지만, A는 다른 시기의 다른 사건에 대한 기술이다. 즉 사료 A는 포상팔국이 가라국을 친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사료 B는 포상팔국이 아라국을 친 사건이다. 사료 C는 전쟁 대상국이 각각 다른 것이다. 다음의 표 1은 차이점을 표로 만들어 대조해본 것이다.

다음은 포상팔국의 위치 문제다. 포상팔국 가운데 골포국, 칠포국, 고자국, 사물국은 지금의 창원시 마산합포·회원구, 함안군 칠원면, 고성군 고성읍, 사천시 사천읍 등으로 비정된다. 골포는 『삼국사기』 권34, 「잡지」 3 '양주(良州) 의안군(義安郡) 영현조(領縣條)'에 "합포현은 본래 골포현인데 경덕왕 대에 이름을 고쳤다(合浦縣 本骨浦縣 景德王改名)"라고 돼 있어 지금의 창원시 마산합포·회원구임을 알 수 있다. 칠포는 같은 책에 보이는 "칠제현은 본래 칠토현인데 경덕왕 대에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칠원현이다(漆隄縣 本漆吐縣 景德王改名 今漆園縣)"로 미루어보아 현 함안군 칠원면 일대로 비정된다. 고사포는 고성이며, 사물국은 사천이다.

문제는 보라국의 위치다. 『삼국유사』 편찬자는 "아마도 발라(發羅)로서 지금(고려)의 나주(羅州)가 아닌가?"라고 하여 전라남도 나주설을 제기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구자도 없지는 않다.<sup>51</sup> 그러나 보라국을 나주에 비정할 경우 사천, 고성, 칠원, 합포 등과는 너무 멀다. 멀면 반드시 불가하다는 점은 없지만 『삼국유사』 '물계자조(勿稽子條)'에 즈음해서 볼 때 포상팔국 전쟁의 선두에 섰던 나라는 보라국이였다. 먼 나주의 보라국이 가라와 안라를 공격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보라국 또한 가야 지역인 남해안 일대와 낙동강 주변 지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영식은 보라(保羅)에서 '보(保)'는 임(任), 수(守), 안(安)의 뜻을 가진 글자라고 하면서, 임나(任羅, 那)나 안라(安羅)가 보라와 같이 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보라국은 안라국의 다른 표기일 가능성을 제기했다.<sup>52</sup> 허재혁도 지명 비정된 4국과 함안 지역의 지리적 관련성과

51 노중국, 「가야의 대외교섭: 3~5세기를 중심으로」, 『가야의 해상 세력』, 김해시,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2005, 41쪽.

52 이영식, 「노중국, '가야의 대외교섭: 3~5세기를 중심으로'를 읽고」, 『가야의 해상 세력』, 김해시, 제11회 가야사학술

표 1. 포상팔국 전쟁 관계 기사 비교 대조표

	사료 A	사료 B	사료 C
전쟁 도발국	포상팔국	포상팔국	보라국, 고자국, 사물국 등 팔국
대상국	가라(加羅)	아라국(阿羅國)	변경(邊境)
전쟁 시기	내해이사금(奈解尼師今) 14년	내해이사금 대	내해왕 17년
구원 사자	가라 왕자	아라국 사신	
구원군	태자(太子) 우로(于老)와 이별찬 이음(利音)이 거느린 6부병(部兵)	왕손(王孫) 내음(捺音)이 이끄는 근군(近郡) 및 6부군(部軍)	태자 내음(捺音)과 장군(將軍) 일벌(一伐) 등이 병(兵)을 이끌
전쟁의 경과 및 결과	포로로 잡힌 6000인을 빼앗아 돌려줌	팔국병(八國兵)을 무찌름	팔국(八國)이 모두 항복함
비고		3년 후 골포, 칠포, 고사포 삼국이 갈화성을 공격하자 왕이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대패시킴	내해왕 20년에 골포국 등 삼국 왕이 갈화를 공격하자 왕이 직접 출격해 막음

4세기 후반에 함안식 토기가 김해·부산 지역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라를 안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sup>53</sup> 그러나 이 정도의 근거로 보라를 안라의 다른 표기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일찍이 정약용은 포상팔국의 위치에 대해 대체로 창원 이서 곤양 이동으로 비정했다.<sup>54</sup> 대체로 수용할 수 있는 비정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해왕 14년(실제로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사이의 어느 시기) 포상팔국이 김해의 남가라(금관가야)를 공격하지만, 구원군으로 온 신라에 의해 패배하고 사로잡았던 가라인 6000명마저 빼앗긴다. 그로부터 3년 후인 내해왕 17년 포상팔국은 함안의 아라국(안라국, 아라가야)을 공격한다. 이때도 포상팔국은 신라 구원군에 의해 패한다. 내해왕 20년<sup>55</sup>에는 포상팔국 중 골포·칠포·고사포의 삼국이 갈화성(지금의 울산 지역)을 공격하지만 신라의 왕이 몸소 이끄는 군대에 의해 대패하고 만다.

이상의 사실에서 포상팔국은 동남해안을 누비며 9년 동안 전쟁을 일으킨 것을 알 수 있다. 즉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한반도의 남부 지방은 전쟁의 혼란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됐을까? 한반도 남부는 자체 생산력의 향상과 함께 북

회의 발표 자료집, 2005, 63쪽.

53 허재혁, 앞의 논문, 2005, 100쪽.

54 “鏞案 既云浦上不云海中 則今巨濟 南海不在計也 今浦上之地 東自昌原 西至昆陽 恰爲八邑 而咸安 固城本有加耶之名 骨浦 漆浦已著新羅之史.” 丁若鏞, 『疆域考』 卷2, 弁辰別考. 다만 여기서 함안도 본래 가야였기 때문에 포상팔국 속의 한 나라로 추정된 것은 따르기 어렵다.

55 『삼국유사』 권5, 「피은(避隱)」 8 '물계자조'의 원문에는 "10년 을미(十年 乙未)"라고 돼 있으나, 이는 '십(十)' 자 앞에 '이(二)' 자가 탈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레야만 간지(干支) '을미(乙未)'도 맞는다.

쪽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 발전해 나간다. 끊임없는 전쟁과 교섭은 남부의 여러 소국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남부에서 우월한 소국의 등장은 양호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선진 지역과의 활발한 교섭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한반도 남부 지역의 김해 양동,<sup>56</sup> 대성동,<sup>57</sup> 울산 하대유적<sup>58</sup> 등에서 출토된 왜계 혹은 중국계 유물은 그 방증 자료가 된다. 그리고 평화적 교섭이 아닌 대규모의 전쟁 또한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포상팔국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구나 해양을 그 존립 근거로 하는 나라들이었다. 이러한 나라들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 경쟁국과의 전쟁 또는 새로운 활로의 모색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포상팔국이 합심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전쟁의 발발 시기 및 전쟁의 원인 등과 아울러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좀 더 다각적인 차원에서 천착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를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한 결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지만, 포상팔국의 성장과 이를 발판으로 한 새로운 육구 충족을 위한 전쟁이라는 시각도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포상팔국 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성격에 대해서는 가야와 신라 간의 교역 체계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59</sup> 이러한 시각은 사료 A에 국한하는 한 타당하다고 보인다. 포상팔국과 남가라(금관가야)는 모두 해상 세력으로서 그 성장 기반을 교역에 두고 있었다. 두 세력 간의 충돌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사료 A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사료인 것이다.

『삼국지』에 따르면 3세기 중·후엽 변진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은 구야국과 안야국이였다. 양국에게 유리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들은 중국 군현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며, 주변 소국과의 연맹을 통해 지역연맹체 단계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sup>60</sup>

이러한 상황에서 구야국을 중심으로 하는 남가라연맹체에도 들지 못하고 안야국 중심의 안라연맹체에도 들지 못한 남해안 일대 일군의 소국이 포상팔국이었다. 이들이 가라, 즉 남가라연맹체를 공격한 것은 곧 생존의 문제였다. 생존의 기반이 교역이었기 때문에 역시 교역을 기반으로 하는 남가라연맹체와는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6 동의대학교박물관, 『김해 양동리 고분문화』, 2000.

57 경성대학교박물관, 『김해 대성동 고분군』 I~III, 2000~2003.

58 부산대학교박물관, 『울산 하대 유적: 고분 I』, 1997.

59 이현혜, 앞의 논문, 1988; 백승충, 앞의 논문, 1989.

60 가야의 지역연맹체에 대해서는 백승욱, 「가야 제국의 존재 형태와 '가야 지역 국가론」, 『지역과 역사』 34, 부정역사연구소, 2014 참조.

한반도 남부에서 3세기 후반 4세기 초의 시기는 이른바 삼한 사회에서 삼국시대로 이행하는 시기다. 이러한 시대의 획기(劃期)는 생산력 발달을 기초로 한 사회 제반의 변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문화적 양상의 차이도 뚜렷이 보인다. 한반도 남부에서 대형 목곽묘가 출현한 것은 그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4세기를 전후해 토기의 기종과 기형의 분화가 진행되고 각 지역 간의 지역성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점과도<sup>61</sup>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기에 고대국가로의 성장에서 중요한 원동력은 해상 교역이었다. 그런 교역권의 상실 및 약화는 포상팔국의 통합과 좀 더 강력한 사회로의 발전이 좌절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상팔국연맹의 좌절이란 해상교역권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한 소국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주위 세력에 대한 결속력의 강화와 팽창을 시도했으나 그 꿈이 무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유추하자면 삼한의 여러 나라 중 대국(大國)의 반열에 들지 않은 소국들이 연맹해 대국화하고자 했으나 좌절되는 한 예로 보이는 것이다. 이는 곧 고대국가 단계로의 진입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며, 이들의 국가적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 IV. 고자국(古自國)과 가라국(加羅國)의 해상활동

5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전기 가야 시기 (남)가라가 담당했던 해상에서의 역할을 경남 서남부 가야 제국이 하게 된다. 해양 교역의 중심지로 경남 고성 of 고자국(古自國, 소가야)이 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고자국의 경우 포상팔국의 한 나라이기도 한 고사포국(古史浦國)이 성장, 발달한 나라다. 고자국은 이른바 포상팔국동맹의 좌절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6세기에 들어와서도 단편적이거나 『일본서기』에 그 모습이 꾸준히 보이는 점으로 보아 알 수 있다.

##### 사료 D

일본의 길비신, 안라 하한기대불손 구취유리, 가라의 상수위고전해, 솔마의 군(君), 사이기의 군, 산반해 군의 아들, 다라 이수위홀건지, 자타의 한기, 구차(久嗟)의 한기들이 백제에 갔다.<sup>62</sup>

61 안재호·송계현, 「고식 도질 토기(古式陶質土器)에 관한 약간의 고찰: 의창 대평리 출토품을 통해」, 『영남고고학』 11, 1986.

62 “日本吉備臣 安羅下早岐大不孫 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率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早岐 久嗟早岐 仍赴百濟.” 『日本書紀』 卷19 ‘欽明紀5年11月條’.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은 신라 지역에서 출토된 장식 운주가 일본에서 출토된 것보다 시기적으로 늦지 않으며, 왜에서는 신라와 달리 그 이전에 조개 장식 마구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 이 부분 전문 연구자들은 원산지에서 채집된 이모가이를 한반도로 들여와 조개 장식 운주를 만들었다고 본다.<sup>73</sup> 이 과정에서 그 유통 경로에 가야 세력인 고자국이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류큐제도산 문물이 가야의 내륙 지역에까지 전래된 예는 이외에도 있다. 1977년 경북 대학교 박물관이 발굴한 경북 고령군 소재 지산동 44호분 주석실에서 야광조개로 만든 국자가 출토됐다(사진 1-1 참조). 야광조개는 이모가이처럼 한반도 주변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오키나와 주변에서 서식한다. 이를 소재로 만들어진 국자는 주걱 부분이 오목한 타원형이며 납작한 손잡이가 있다. 큰 소라 모양의 야광조개 껍데기를 둥글게 따라가며 오려서 만들었다. 출토 당시 손잡이와 주걱 부분 등이 여러 조각으로 파손돼 있었다. 대가야의 해상 활동과 관련해 주목해볼 만한 유물이다. 다음과 같은 기록 또한 대가야의 해상 활동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sup>74</sup>

**사료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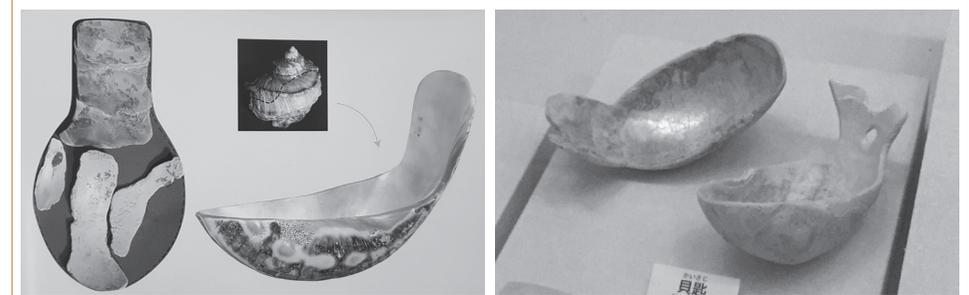
가라국(加羅國)은 삼한의 중족이다. 건원(建元) 원년(479)에 국왕(國王) 하지(荷知)의 사신이 와서 공물을 바쳤다. 조서를 내려 “도량이 넓은 자가 비로소 등극하니 먼 오랑캐가 교화에 져도다. 가라왕 하지가 바다 밖에서 방문해 동쪽 멀리서 폐백을 바쳤다. 가히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을 제수한다”라고 말했다.<sup>75</sup>

여기서 가라국은 고령 대가야를 가리킨다. 대가야는 479년 중국 남조의 제(齊)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아마도 섬진강이나 남강으로 내려와 바다로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을 내려와 남해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서해 횡단 항로를 이용할 정도의 항해술이 발달하지는 못했다. 남해와 서해 연안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 랴오둥반도 끝에서 여러 열도를 따라 산둥반도에 도착했을 것이다. 변산반도의 끝, 전라북도 부안 죽막동(竹幕洞) 유적에서는 대가야계 토기가 출토됐다. 가야인이 죽막동에서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행했던 것이다.

73 이사하야 나오토, 「마구로 본 소가야와 왜의 교류」,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년 가야 고분 조사·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8, 132~134쪽.

74 대가야의 해상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형기, 「대가야의 해상 활동: 대중국 교류를 중심으로」, 『가야의 포구와 해상 활동』, 주류성, 2011의 연구 성과가 있다.

75 “加羅國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治化 加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贊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南齊書』 卷58 「列傳」 39 「東南夷傳 東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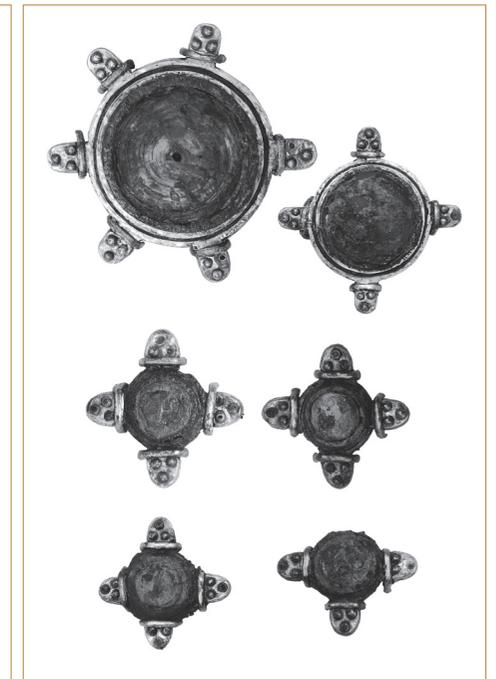


① 고령 지산동 44호분 출토 야광패국자 및 복원품, 대가야박물관 제공

② 일본 오키나와 시미즈베츠포(清水貝塚) 출토 야광패국자, 오키나와 현립박물관(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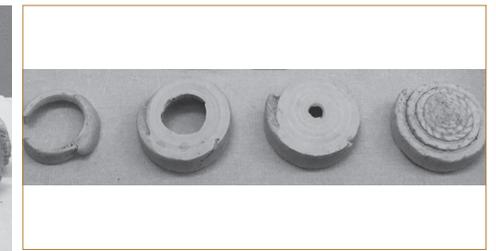
③ 고성 송학동 1B-1호분 출토 이모가이 장식 운주,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제공



④ 창녕 송현동 7호분 출토 운주 및 십자형 마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제공



⑤ 가공 전 이모가이, 오키나와 현립박물관(필자 촬영)



⑥ 이모가이 가공과정, 오키나와 현립박물관(필자 촬영)

류큐제도에서 채집된 이모가이와 야광조개 등은 북부 규슈에 집산된 후 한반도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영식은 그 루트에 대해 ① 류큐제도 - 규슈 남단 - 야마토(大和) - 규슈 북안 - 한반도 남부, ② 류큐제도 - 규슈 남단 - 규슈 내륙 - 규슈 북안 - 한반도 남부, ③ 류큐제도 - 규슈 서해안·동해안 - 규슈 북안 - 한반도 남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sup>76</sup> 모두 가능한 루트지만 특히 세 번째 루트가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대가야인이 류큐제도까지 직접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간접적이라 하더라도 류큐에 대한 정보는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 류큐산 조개로 만든 유물은 경남 김해와 창녕 등지에서도 출토됐다. 4세기 중엽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김해 대성동 91호분에서는 고힌우라 20점과 이모가이 9점이, 5세기 후반의 창녕 송현동 7호분에서는 이모가이 8점, 교동 12호분에서는 이모가이 3점이 각각 출토됐다. 이로써 당시 가야 제국이 해상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이상 가야의 해상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두드러진 사료나 유물을 중심의 소개 정도로 그친 아쉬움이 있다.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 가야 제국, 즉 변한 제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김해의 구야국이였다. 구야국은 중국의 선진 문물이 대동강 유역의 한 군현을 거쳐 일본열도의 여러 소국으로 건너가는 거점 지역에 있었다. 그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은 구야국의 기반이 됐다. 해상 활동에서 오는 경제적 부(富)였다.

포상팔국 또한 1~2세기 중국 군현과의 해상 교역을 통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 한층 발전된 사회조직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됐을 것이다. 포상팔국과 구야국이 성장, 발전한 나라인 (남)가라(금관가야, 가락국)와의 전쟁은 해상교역권 쟁탈전이였다. 포상팔국은 이 전쟁에서 신라가 가라를 도와줌으로써 패배했다. 이에 내해왕 20년에는 신라의 해외 교역항이자 남해안으로의 진출 기지인 갈화(지금의 울산)를 공격한다. 그러나 결과는 포상팔국의 패배였다. 패배의 원인은 강력한 주도국이 없었다는 점과 결속력 미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포상팔국의 패배는 역으로 전승국인 가락국과 안라국, 신라의 약진을 가져오게 했다. 특히 김해의 가락국은 남해안 일대 해상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이는 5세기 초 고구

려군 남정에 의해 가락국이 쇠퇴할 때까지 계속됐다.

5세기 중엽 이후 가야 해상 교역의 중심은 고자국을 비롯한 경남 서남부 지역에 소재한 가야 제국으로 옮겨간다. 이모가이, 야광조개 등 일본 류큐제도산 조개가 고성을 포함한 가야 남부 지역으로 수입돼 가야 내륙은 물론 신라 경주로까지 보내진다. 해상 활동을 통한 문물 교류는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그 밖의 많은 분야에서도 상호 영향을 미쳤음이 자명하다.

76 이영식, 「대가야의 해상 활동과 야광패(夜光貝)의 길」, 『류큐와 한반도의 고대 뱃길을 통한 문화 교류와 그 현대적 의미』, 2019 대가야 해양교류사 제조명 사업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9, 58~60쪽.

## 참고문헌

- 강인구, 『무기산(舞妓山)과 장고산(長鼓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김창석,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 남재우, 『안락국사(安羅國史)』, 혜안, 2003.
- 백승욱, 『포상팔국 전쟁과 지역연맹체』,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김해시, 『가야의 포구와 해상 활동』, 주류성, 2011.
- 백승욱, 『가야 각국사 연구』, 혜안, 2003.
- 윤명철, 『동아시아중해와 고대 일본』, 청노루, 1996.
- 이영식, 『가야 제국사 연구』, 생각과중이, 2016.
- 이형기, 「대가야의 해상 활동: 대중국 교류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김해시, 『가야의 포구와 해상 활동』, 주류성, 2011.
- 이형기, 『대가야의 형성과 발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9.
- 천관우, 『가야사 연구』, 일조각, 1991.
- 최남선, 「삼국유사 해제」, 『증보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3.
- 최준채 외 4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리베르스쿨, 2014.
- 하승철, 「의례계 문물을 통해 본 고성 소가야의 대외 교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김해시, 『가야의 포구와 해상 활동』, 주류성, 2011.
- 한철호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주) 미래엔, 2014.
- 해군본부 전사편찬실 편, 『한국해양사』, 1954.

- 강봉룡, 「한국 해양사 연구의 몇 가지 논점」, 『도서문화』 33, 2009.
- 강봉룡, 「해양 인식의 확대와 해양사」, 『역사학보』 200, 2008.
- 국립나주·가야문화재연구소,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2019년 가야사 기획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9.
- 국립중앙박물관,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 네트워크』, 특별전 ‘가야 본성’ 연계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9.
- 권주현, 「아라기야의 성립과 발전」, 『제명사학』 4, 1993.
- 김주용, 「5~6세기 중부 경남 지역 소가야 토기의 확산과 그 의미」,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 20주년 기념 논문집』,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2010.
- 김창석, 「고대 교역장의 중립성과 연맹의 성립: 3~4세기 가야연맹체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16, 2012.
- 김태식, 「함안 안라국(安羅國)의 성장과 변천」, 『한국사연구』 86, 1994.
- 노중국, 「가야의 대외교섭: 3~5세기를 중심으로」, 『가야의 해상 세력』, 김해시,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2005.
- 박승규, 「경남 서남부 지역 도질 토기에 대한 연구」, 『경상사학』 9, 1993.
- 백승욱, 「가야 제국의 존재 형태와 ‘가야 지역 국가론」, 『지역과 역사』 34, 부경역사연구소, 2014.
- 백승욱, 「진·변한의 시말(始末)과 내부 구조」, 『박물관연구논집』 17, 부산박물관, 2011a.
- 백승충, 「1~3세기 가야 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 수로 집단의 성격과 포상팔국의 난을 중심으로」, 『부대사학(釜大史學)』 13, 1989.
- 선석열, 「삼국사기 신라본기 가야 관계 기사의 검토: 초기 기록의 기년(紀年) 추정을 중심으로」, 『부대사학』 24, 1993.
- 선석열, 「포상팔국의 아라국(阿羅國) 침입에 대한 고찰: 6세기 중엽 남부 가야 제국의 동향과 관련해」, 『가라문화』 14,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97.
- 선석열, 「한국 고대 동남해양사의 연구 동향과 그 과제」, 『석당논총(石堂論叢)』 66, 2016.
- 신경철, 「가야 스케치」, 『고고광장(考古廣場)』 창간호, 2007.
- 안재호, 「철검(鐵劍)의 변화와 획기(劃期)」, 『가야고고학논총』 2, (제)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7.
- 안재호·송계현, 「고식(古式) 도질 토기에 관한 약간의 고찰: 의창 대평리 출토품을 통해」, 『영남고고학』 11, 1986.
- 이사하야 나오토, 「마구로 본 소가야와 왜의 교류」,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년 가야고분 조사·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8.
- 이영식, 「가야 제국의 국가 형성 문제: ‘가야연맹설’의 재검토와 전쟁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32, 1985.
- 이영식, 「노중국, ‘가야의 대외교섭: 3~5세기를 중심으로’를 읽고」, 『가야의 해상 세력』, 김해시,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2005.

- 이영식, 「대가야의 해상 활동과 야광패(夜光貝)의 길」, 『류큐와 한반도의 고대 뱃길을 통한 문화 교류와 그 현대적 의미』, 2019 대가야 해양교류사 재조명 사업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9.
- 이현혜, 「4세기 가야 사회의 교역 체계의 변천」, 『한국고대사연구』 1, 1988.
- 전라북도·전북사학회·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전북 지역 고대 정치 세력과 가야』, 전북 가야의 역사적 뿌리를 복원하기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2019.
- 조성원, 「소가야 토기의 생산과 유통」,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2018년 가야 고분 조사·연구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8.
- 하세봉, 「한국의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 민족주의적 성과와 탈근대적 전망」, 『동북아시아문화연구』 2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 허재혁, 「5세기 대 남부 가야의 세력 재편: 포상팔국 전쟁과 고구려군 남정(南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문학석사학위 논문, 1998.
- 허재혁, 「포상팔국 전쟁의 원인과 성격: 김해 지역 정치 세력의 성쇠와 교역」, 『가야의 해상 세력』, 김해시,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2005.

- 경성대학교 박물관, 『김해 대성동 고분군』 I~III, 2000~2003.
- 동아대학교 박물관, 『고성 송학동 고분군』, 2005.
- 동아대학교 박물관, 『합천 봉계리 고분군』, 1986.
- 동의대학교 박물관, 『김해 양동리 고분문화』, 2000.
- 부산대학교 박물관, 『울산 하대 유적: 고분 I』, 1997.

- 金廷鶴, 『任那と日本』, 小學館, 1977.
- 木下尚子, 「韓半島の琉球列島産貝製品: 1~7世紀を對象に」, 『韓半島考古學論叢』, すすさわ書店, 2002.
-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 吉川弘文館, 1962.
- 森浩一編, 『倭人の登場』, 中央公論社, 1985.
- 田中俊明,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 坂本太郎 等校注,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日本古典文學大系 68, 1965.
- 定森秀夫, 「韓國慶尙南道泗川·固城地域出土陶質土器について」, 『角田文衛博士古稀記念古代學叢論』, 1983.
- 酒井改藏, 「日本書紀の朝鮮地名」, 『親和』 195, 1970.

# 『충민공계초』의 서지학적 조명

—

정진술

전 문화재전문위원 겸 해사박물관  
기획실장

목차

- I. 머리말
- II. 이순신 장계(狀啓)의 등초(謄抄)와 문서 양식
- III.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의 서지적 고찰
  1. 『충민공계초』의 서지
  2. 『충민공계초』의 편찬 유래
  3. 『충민공계초』의 구성과 내용 검토
  - IV. 기타 이순신 장계 초본(抄本)

## 초록

이순신의 장계(狀啓)<sup>1</sup>로서 현재까지 전해오는 것은 모두 78편이며, 국왕에게 올린 장계 22편과 계본(啓本) 50편, 세자에게 올린 장달(狀達) 3편과 달본(達本) 3편이다. 이순신은 이들 장계를 따로 등초(謄抄, 여기서는 편의상 '등초장계'로 칭함)하여 보관했다. 등초장계는 이순신 본가에 오랫동안 소장돼오다가 대략 19세기 무렵 유실됐다. 다행히 여러 차례 필사 작업이 이루어져 그 초본(抄本)이 전해오는데,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 『임진장초(壬辰狀草)』,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요람(要覽)』,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충무공계초(忠武公啓草)』, 『충무이공순신임진왜변장계(忠武李公舜臣壬辰倭變狀啓)』 등이 현존한다.

『충민공계초』는 1책 73장의 필사본으로서 68편의 장계가 수록되어 있다. 이순신의 후손에 의해서 1662년(현종 3)에 작성되었으며,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에 없는 장계를 12편이나 실고 있고, 이 12편은 이두문과 앞뒤 문장이 빠진 『이충무공전서』에서는 그 원형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지적·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충민공계초』는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초본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앞서는 문헌으로서, 이순신과 임진왜란사 연구의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임진장초』는 61편의 장계가 수록되어 있고, 작성시기는 『충민공계초』보다 늦고 『이충무공전서』보다는 빨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무공유사』는 정조가 1792년(정조 16)에 읽었던 책자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요람』은 1724년(영조 4) 이후에 작성된 초본으로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충무공전서』는 1795년에 규장각에서 편찬한 책으로, 장계 71편이 수록되어 있다. 『충무공계초』는 『임진장초』를 보고 20세기 이후에 필사한 책으로,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초본류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Abstract

Altogether 78 petitions (Janggyes) have been handed down as Admiral Yi Sun-Shin's petitions: 22 Gyechos and 50 Gyebons delivered to the king, 3 Jangdals and 3 Dalbons to the crown prince. Admiral Yi transcribed and stored those petitions (The petitions are called Deungcho Janggye here for convenience). The Deungcho Janggye had been possessed by Admiral Yi's head family for a long time and then they were lost

1 흔히 '장계(狀啓)'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간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한 문서 전반을 지칭하는 일반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신하가 국왕에게 보고한 여러 가지 문서 양식 중 하나를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장계'는 전자의 경우다.

in the 19th century. Fortunately several times of transcriptions were carried out and the abstracts have been handed down: Chungmingong Gyecho, Imjin Jangcho, Chungmugong Yusa, Yoram, Yi Chungmugong Jeonseo, Chungmugong Gyecho, Chungmugong Yi Sun Shin Imjinwaebyeon Janggye are in existence.

Chungmingong Gyecho is a manuscript consisting of 73 chapters of one book, and 68 petitions (Janggyes) are included. They were drawn up by Yi Sun Shin's descendant in 1662 (King Hyunjong's third year reign), and they are owned by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Chungmingong Gyecho has 12 petitions (Janggyes) that Imjin Jangcho does not contain. Because their original forms cannot be checked in Yi Chungmugong Jeonseo where Idu letters and the pre- and post-sentences are omitted, they have very important bibliographic and historical values. Above all, Chungmingong Gyecho is the earliest literature among Yi Sun Shin's Janggye abstracts, and it has a very important academic value for the study of Admiral Yi Sun Shin and the history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Imjin Jangcho, 61 petitions (Janggyes) are contained, and the period of drawing up Imjin Jangcho is estimated to be later than Chungmingong Gyecho and earlier than Yi Chungmugong Jeonseo. Chungmugong Yusa is the book that King Jeongjo read in 1792 (King Jeongjo's 16th year reign), and it is possessed by the Gyujangga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Yoram is an abstract drawn up after 1724 (King Yeongjo's 4th year reign), and it is possessed by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Yi Chungmugong Jeonseo is a book published by the Gyujanggak in 1795, and 71 petitions (Janggyes) are contained in it. Chungmugong Gyecho is a prescribed book of the Imjin Jangcho after the 20th century, and the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has it. In addition, it is estimated that there could be more abstracts, although they have yet to be discovered.

**주제어** 이순신, 장계, 『충민공계초』, 『임진장초』, 『충무공유사』, 『이충무공전서』, 『충무공계초』

**Keywords** Yi Sun Shin, Janggye, Chungmingong Gyecho, Imjin Jangcho, Chungmugong Yusa, Yi Chungmugong Jeonseo, Chungmugong Gyecho

## I. 머리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은 임진왜란(1592~1598) 7년 동안 전라좌수사 또는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조선 수군을 지휘, 통솔하고 해전을 수행하면서 많은 장계를 조정에 올렸다. 그는 조정에 올린 장계를 뒷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등초(謄抄, 원본에서 베껴 옮김)해두었다. 이순신이 등초해둔 장계는 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 여러 차례 필사됐고,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는 이렇게 필사된 초본(抄本,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책이나 문서) 가운데 하나로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순신의 장계 중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은 1592년에서 1594년 사이에 올린 장계 78편이다. 『충민공계초』에는 이 가운데 68편이 수록돼 있다. 특히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壬辰狀草)』에 없는 12편의 장계가 비교적 원문에 가까운 모습으로 수록돼 있어 많은 주목을 받는다. 필자는 근래(2017년 5월 10일) 국립해양박물관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충민공계초』를 서지학적으로 조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글은 그때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서지학은 사전적 정의로는 ‘도서(圖書)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도서 및 도서 관계 사항의 일반 연구와 각개의 도서에 관한 고증적 연구가 행해지며, 도서의 분류·해제(解題)·감정(鑑定) 따위가 이루어지는’ 학문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러한 서지학 분야를 전문으로 다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필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충민공계초』를 고찰할 수밖에 없다.

먼저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이순신의 장계가 등초된 과정과 장계의 문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충민공계초』의 서지(書誌), 유래, 구성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어서 『충민공계초』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이순신의 장계 초본, 예컨대 『임진장초』,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요람(要覽)』,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충무공계초(忠武公啓草)』의 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순신 장계(狀啓)의 등초(謄抄)와 문서 양식

이순신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전쟁 수행 및 직무와 관련한 많은 보고서를 국왕과 세자에게 올렸다. 흔히 장계라 불리는 이 보고서는 법전에 따라<sup>2</sup> ‘전라좌수영장계등록(全羅左水營狀啓謄錄)’으로 작성해 보존됐어야 하지만,<sup>3</sup> 당시 장계등록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이순신 장계의 원

본 문서는 볼 수가 없다.

이순신은 조정에 올린 장계를 다행히도 따로 등초해 지니고 있었는데, 그의 장계는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공문서로서 사안의 진행 사항을 계속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뒷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등초됐다. 등초 작업은 이순신 자신이 직접 했을 수도 있으나, 아랫사람을 시켜서 했을 가능성이 크며,<sup>4</sup> 해서체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sup>5</sup> 여기서의 논리 전개는 편의상 이순신이 따로 등초해 보관했던 장계를 ‘이순신 등초장계(李舜臣 謄抄狀啓)’로 칭하기로 한다. ‘이순신 등초장계’는 후술하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이순신의 본가에 보관돼왔다.

‘이순신 등초장계’는 후대에 여러 사람이 이를 선별적으로 필사해 다양한 명칭의 초본(抄本)으로 작성됐다. 예컨대 『충민공계초』, 『임진장초』, 『충무공유사』, 『요람』, 『이충무공전서』, 『충무공계초』, 『충무이공순신임진왜변장계(忠武李公舜臣壬辰倭變狀啓)』 등이다. 이들 초본에 대한 각각의 서지는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이들 초본에 따르면 이순신 장계는 모두 78편이다. 『충민공계초』에 68편, 『임진장초』에 61편, 『이충무공전서』에 71편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세 책을 포함한 여러 초본에 있는 것을 대조해 중복된 것을 빼고 종합하면 표 1에서 보는 대로 78편이 된다. 이들 장계를 『임진장초』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목록을 정리한 것이 부록의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총목록’이다.

이순신 장계는 부록에서 분류한 것과 같이 네 가지 문서 양식으로 돼 있다. 곧 장계, 장달(狀達), 계본(啓本), 달본(達本)이다. 장계는 관찰사, 병사, 수사 등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장계는 승정원에서 열어보고 담당 승지가 이를 왕에게 올려서 재가를 받은 다음, 계하인[啓下印, 계자(啓字)를 새긴 도장]을 찍고 그 장계의 내용과 관계있는 관서에 하달하게 된다.<sup>6</sup> 특별히 대리청정하는 세자에게 올리는 문서는 장달이라 하는데, 승정원 또는 시강원<sup>7</sup>에서 열어보고 세자에게 올리며, 세자의 재가를 받아 그 내용과 관련 있는 관부에 하달해 시행했다.<sup>8</sup>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장계의 서식은 나와 있지 않으나 장계도 일정한 서식이 있었던

2 “官府文字竝置立案以憑後考.”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

3 이형중, 『조선시대 등록(謄錄) 체계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서울대학교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2, 40~42쪽.

4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명나라 선유도사 담종인(譚宗仁)의 금토파문(禁討牌文)에 대한 답장을 지었는데, 군관 정사립(鄭思立)을 시켜 공문으로 써 보내게 한 적이 있다(『난중일기(亂中日記)』, 갑오년, 3월 7일).

5 이형중, 앞의 책, 19쪽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원칙적으로 해서체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었다.

6 최승희, 『개정 증보판 한국 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11, 164쪽.

7 『임진장초』에 따르면 세자시강원에서 열어보도록 돼 있다.

8 최승희, 『장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표 1. 초본별 이순신 장계 편수와 공통 수록 편수

공통 수록 초본	『충민공계초』	『임진장초』	『충무공유사』	『요람』	『이충무공전서』	『충무공계초』	편수
충, 임, 유, 요, 전, 계	○	○	○	○	○	○	9
충, 임, 유, 전, 계	○	○	○		○	○	4
충, 임, 요, 전, 계	○	○		○	○	○	5
충, 임, 전, 계	○	○			○	○	31
충, 임, 계	○	○				○	7
임, 전, 계		○			○	○	5
충, 전, 계	○				○	○	2
충, 유, 전	○		○		○		3
충, 전	○				○		7
전					○		5
편수	68	61	16	14	71	63	78

공통 수록 초본 약자: 충(『충민공계초』), 임(『임진장초』), 유(『충무공유사』), 요(『요람』), 전(『이충무공전서』), 계(『충무공계초』)

것으로 보이는데,<sup>9</sup>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서식일 것이다.<sup>10</sup> 세자에게 올리는 장달의 서식은 다음 장계의 서식에서 ‘선계(善啓)’를 ‘선달(善達)’로 대치한 형식이다.

具銜臣姓署名

某事云云 爲白臥乎事是良尔(혹은 爲白只爲) 詮次

善啓向教是事

年號幾年某月某日

장계는 원본 문서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문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謄書) 새롭게 책자 형태로 편찬했다. 이것은 후대의 업무에 참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sup>11</sup>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물을 장계등록(狀啓謄錄)이라고 했는데, 장계등록은 장계를 보내는 기관의 명칭을 제목으로 삼는다. 예컨대 경기감영에서 보낸 장계를 등록한 것은 『경기감영계록(京畿監營啓錄)』, 전라도의 병영에서 보낸 장계를 등록한 것은 『전라병영장계등록(全羅兵營狀啓謄錄)』 등으로 표시한다.<sup>12</sup>

계본(啓本)은 2품 이상의 관아 또는 중외제장(中外諸將) 등이 중대한 일을 국왕에게 올리

9 이형중, 앞의 책, 42쪽.

10 최승희, 『개정 증보판 한국 고문서 연구』, 165쪽.

11 박선이(朴宣姪), 『임진왜란 시기 장계에 나타난 조선식 한문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4, 8쪽.

12 이형중, 앞의 책, 41쪽.

던 문서 양식이다. 『경국대전』에 ‘계본식(啓本式)<sup>13</sup>’이라 하여 그 서식이 나온다. 장계가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해 국왕에게 보고되는 문서인 반면, 계본은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바로 보고되는 문서였다.<sup>14</sup> 계본에 해당하는 문서로, 세자에게 바로 올리는 문서 양식은 달본(達本)이라 했다.

외방(外方)의 계본은 이두를 섞어 썼는데, 『전율통보』 별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알려져 있다.<sup>15</sup> 여기에는 『경국대전』의 계본식에서 보이지 않던 이두문이 나오고, 이는 『임진장초』나 『충민공계초』 등에서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서식이다. 한편 승정원 또는 시강원을 거치지 않고 세자에게 바로 보고되는 달본의 서식은 다음 계본의 서식에서 ‘계(啓)’를 ‘달(達)’로 대치한 형식이다.

單銜臣姓名 謹

啓爲某事 云云 爲白只爲(또는 爲白達) 謹具啓

聞

年號幾年某月某日 單銜臣 姓 署名

이순신은 1591년 전라좌수사로 부임해 1592년 임진왜란을 맞았다.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그의 장계 초본으로 유추해보건대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부터 자신이 조정에 올렸던 장계를 등초해 지니고 있었고, 1597년 2월 통제사에서 파직돼 의금부로 잡혀갔을 때는 그때까지 등초해두었던 장계, 곧 등초장계를 모두 자신의 집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해오는 장계 초본은 1594년 4월분까지밖에 보이지 않는다. 1594년 4월부터 1597년 2월까지의 장계 초본이 없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추측건대 등초장계가 전라좌수영 본영(여수)과 한산도에 분산 보관돼 있었는데, 한산도에서 파직돼 붙잡혀가면서 한산도에 있던 등초장계는 의금부에 압수됐고, 반면 본영에 있었던 것은 아무 탈

13 『경국대전』 계본식:

某銜門 某職 臣某 謹

啓爲 某事 云云 謹具啓

聞 伏 候

教 旨 謹 啓

年 印 月 日 某 職 臣 某 某 職 臣 某

14 박선이, 앞의 책, 8쪽; “二品銜門直啓(中外諸將 承政院 掌隸院 司諫院 宗簿寺 亦得直啓 各司有緊事 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 直行移(相考事 外皆啓) 其餘銜門 並報屬曹.” 『경국대전』,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

15 최승희, 『개정 증보판 한국 고문서 연구』, 155쪽.

없이 아들들이 수습해 본가로 옮기지 않았는가 싶다. 현존하는 장계 초본이 임진왜란 발발 때부터 시작해 주로 한산도에 주둔하기 이전 시기의 장계인 것으로 보아 그렇게 유추된다.<sup>16</sup>

한편 이순신이 1597년 8월 통제사에 재임명된 이후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까지 그가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초장계도 수습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순신의 유해는 노량해전에서 자신의 곁을 지키던 맏아들 이회(李禧, 1567~1625)에 의해 고금도로부터 아산의 본가로 옮겨졌는데, 이때 이순신의 중요한 유품, 예컨대 삼도수군통제사 재임명장인 기복수직교지(起復授職教旨), 재임명 시 함께 발부된 사부유서(賜符諭書), 고금도에서 명나라 수군 장수들에게 선물로 받은 도배(桃盃), 요대(腰帶) 등도 함께 옮겨졌다. 그렇지만 오늘날 아산 본가(현충사)에는 이들 유물 외에도 있어야 할 1597년 8월 이후의 등초장계가 보이지 않는다. 추정건대 맏아들 이회 일행은 부친의 유해 수습에 경황이 없었기에<sup>17</sup> 고금도 통제영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초장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이순신과 관련된 기록물은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이순신의 현손(玄孫)이자 봉사손(奉祀孫)인 이홍의가 1715년 『충무공가승(忠武公家乘)』<sup>18</sup>을 편찬했을 때다. 이때 유고(遺藁) 여럿을 정리해 수록했는데, 친필 일기와 장계는 수록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조의 지시에 따른 1795년의 『이충무공전서』 편찬이다. 이때는 장계를 포함한 이순신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규장각에서 종합하여 편찬됐다.

이순신 본가에 오랫동안 소장돼왔던 등초장계는 1795년 『이충무공전서』가 편찬될 때까지도 보존돼왔으나, 그 이후 유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인 것은 유실되기 이전에 등초장계에 대한 필사 작업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 『충민공계초』도 그중 하나다.

### III.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의 서지적 고찰

#### 1. 『충민공계초』의 서지

『충민공계초』는 1592년 4월 15일 자 계본(啓本)을 시작으로, 1594년 4월 20일 자 계본까

16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초본이 1594년에서 멈추는 이유에 대해 본 논문의 한 심사자는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 해당 기간의 장계가 당대 혹은 후대에 사라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17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순신의 유해는 1598년 11월 22일경부터 10여 일 동안 고금도에 모셔져 있다가 12월 초 가족에 의해 아산으로 운구됐다. 정진술, 「고금도 통제영과 이순신의 전사 후 행적」, 『이순신연구논총』 20,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3, 257쪽.

18 『충무공가승』의 구성과 내용은 윤정, 「숙종 대 『충무공가승』 편찬의 경위와 정치적 함의: 『이충무공전서』의 원전에 대한 검토」, 『역사와 실학』 55, 역사실학회, 2014, 123~134쪽 참조.

지 3년 치 68편의 이순신 장계를 다른 사람이 옮겨 적은 것이다. 이순신의 친필은 아니지만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충민공계초』의 서지에 대해서는 이미 고찰된 적이 있다. 예컨대 박선이가 그의 석사학위 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충민공계초』에 대한 간략한 검토 결과를 실었는데, 거기에 표 2와 같은 서지 사항이 포함돼 있다.<sup>19</sup> 노승석도 『충민공계초』를 서지적으로 고찰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란이 됐던 ‘장계별책’이 곧 『충민공계초』라는 주장이 그 요지였다.<sup>20</sup>

『충민공계초』는 1책(冊) 73(張)장의 필사본으로, 표지는 심하게 마모됐으나 ‘충민공계초’라는 표제가 확인되며, 표제의 오른쪽에 표제보다 조금 작은 글자로 ‘(임)진년병란사[壬辰年兵亂事]’라는 부제가 희미하게 보이고, 또 다른 식별할 수 없는 글자도 있다. 편자는 알 수 없으나, 책 말미에 “강희 원년 임인 3월 엽일 서중(康熙元年壬寅三月念日書終)”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편자가 1662년(현종 3) 3월 20일에 필사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은 판식(板式)이 없고, 무계(無界)에 행서(行書)로 필사됐으며, 반엽(半葉) 13행(行) 자수부정(字數不定)이다.<sup>21</sup>

『충민공계초』(1662)가 편찬되기 이전인 1643년(인조 21) 이순신에게 이미 충무공(忠武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음에도 이 책은 이순신을 충무공이 아닌 충민공<sup>22</sup>으로 일컫는다. 이순신을 충민공이라 하게 된 것은 그가 전사한 후 1601년(선조 34) 전라좌수영(여수)에 사당을 건립하고<sup>23</sup> 선조가 충민이라 사액한 데서 유래한다.<sup>24</sup> 그 후 1633년 남해현령 이정건이 노랑 충렬사 안에 이순신을 추모하기 위해 충민공비(忠愍公碑)를 세우고, 1666년에는 최시용이 『난중잡록(亂中雜錄)』 서문에 “이충민(李忠愍)이 통제사로 큰 공을 세우고는 충탄을 맞고 전사하자, 공은 시를 지어 애도했다”라고 썼다.<sup>25</sup> 『충민공계초』가 편찬됐을 당시 이순신은 충무공 호칭과 더불어 충민공으로도 불렸던 것이다.

선조-인조 당시 충민사는 전라좌수영과 함께 이순신 사적의 중심지로서<sup>26</sup> 이순신 추모시(追慕詩)의 상징이 됐다. 예컨대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은 「애이통제(哀李統制)」에서 “슬프

19 박선이, 앞의 책, 83쪽.

20 노승석, 「이순신의 『충민공계초』에 대한 서지적 고찰」, 『문화재』 49-2(통권 제72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21 박선이, 앞의 책, 83쪽.

22 조선시대에 충민공(忠愍公)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은 임경업(林慶業) 등 22명에 이른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240, 「직관고(職官考)」, ‘시호’.

23 왕명이 아닌 전라좌수영의 군졸과 지역민의 힘으로 세워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김대현, 「여수 충민사의 건립 경위 및 연대에 관한 재고찰」, 『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24 이항복, 「충민사기(忠愍祠記)」, 『이충무공전서』 21, 부록 3.

25 노승석, 앞의 책, 8쪽.

26 윤정, 앞의 책, 131쪽.

표 2. 『충민공계초』의 서지 사항

서명	『충민공계초』
편저자	편자: 미상, 저자: 이순신
판본	필사본
간행	간행 장소: 미상, 간행 연도: 1662년(현종 3)
형태	크기: 23.9×41.2cm, 선장(線裝), 1책 73장, 저지(楮紙), 한문(漢文) 판식: 무계, 13행 자수부정
인기(印記)	없음
소장처	국립해양박물관

다 충민사 두어 칸 사당”<sup>27</sup>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은 「충민사(忠愍祠)」에서 “지금의 이 바다 위에 누가 임을 이을꼬”<sup>28</sup> 정운희(鄭運熙, 1566~1635)는 「충민사(忠愍祠)」에서 “진 쳤던 언덕에 새 사당 짓고”<sup>29</sup> 홍우원(洪우원, 1605~1687)은 「제충민사(題忠愍祠)」에서 “바닷가 영문 북쪽 산기슭 위에 찬란한 사당집을 우뚝 세우니 사당 이름 석 자는 빛나는 어필(御筆)”<sup>30</sup>이라고 읊었다. 이러한 현상은 ‘충민사가 곧 이순신’이라는 인식을 당시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당시 이순신의 후손, 특히 중손에게도 충민사는 곧 그들의 선조 이순신과 동격인 숭배의 대상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당이자 호칭이었을 것이다.

추정컨대 『충민공계초』의 편찬자는 이순신에게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순신이 곧 충민사라는 인식과 함께 일찍부터 충민으로도 불렸기에 자연스럽게 ‘충민공’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 2. 『충민공계초』의 편찬 유래

『충민공계초』는 장계 68편에 이어 책의 뒷부분에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이통제비명(李統制碑銘)」(1615)<sup>31</sup>, 박승중(朴承宗)이 지은 「충민사기(忠愍祠記)」(1609),<sup>32</sup> 이항복이 지은 「고통제사이공유사(故統制使李公遺事)」(1601)<sup>33</sup>가 차례로 기술돼 있다. 이 세 건의 기사는 특이하게도 『충민공계초』가 편찬되기 이전에 모두 당시 전라좌수영(여수)에만 있었던 비석 혹

27 “淒涼數間愍忠祠。” 『이충무공전서』 12, 부록 4, 「애이통제(哀李統制)」.

28 “至今滄海上 誰復嗣戎功。” 위의 책 12, 부록 4, 「충민사(忠愍祠)」.

29 “陣嶺開新廟。” 위의 책 12, 부록 4, 「충민사(忠愍祠)」.

30 “驃騎營北海山上 突兀金碧開神祠 輝輝三字自御賜。” 위의 책 12, 부록 4, 「제충민사(題忠愍祠)」.

31 비문의 원래 이름은 「통제이공수군대첩비(統制李公水軍大捷碑)」이며, 『이충무공전서』에는 「전라좌수영대첩비(全羅左水營大捷碑)」로 돼 있다. 1615년 비문이 지어졌고, 1620년 전라좌수영(여수)에 비석이 세워졌다.

32 1609년 전라관찰사 박승중이 충민사를 순시하면서 지은 글이다.

33 「고통제사이공유사(故統制使李公遺事)」는 전라좌수영에 충민사를 건립하면서 1601년 이항복이 지은 글로, 『충무공가승』과 『이충무공전서』에는 「충민사기(忠愍祠記)」로 돼 있다.

은 사당과 관련된 글이다.

『충민공계초』가 편찬될 당시 아산 이순신 본가에는 조카 이분(李芬, 1566~1619)이 1600년 무렵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행록(行錄)」, 최유해(崔有海, 1588~1641)가 지은 「행장(行狀)」, 이식(李植, 1584~1647)이 지은 「시장(諡狀)」 등 이순신의 행적과 관련된 뛰어난 문건이 이미 보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김육이 1660년 지은 신도비문(神道碑文)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충민공계초』에는 이러한 뛰어난 문건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유추해볼 때 『충민공계초』의 편찬 목적은 여수 충민사를 대상으로 삼아 이순신의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민공계초』가 편찬된 이후 오랫동안 덕수이씨 충무공파 증가에 소장돼 있었던 것으로 보아 편찬자는 이순신의 종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4</sup>

『충민공계초』가 편찬되던 1662년을 전후한 수년 동안 조정에서는 이순신과 그 후손에 대한 대우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1657년(효종 8) 대사헌 민응형이 절의(節義)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순신의 자손을 등용할 것을 건의했고,<sup>35</sup> 1658년(효종 9)에는 영돈령부사 김육의 건의에 따라 이순신의 묘소에 표석(表石)을 세우고 또 그 자손을 등용하도록 했다.<sup>36</sup> 1659년(효종 10)에는 남해 노량에 충무공 이순신의 비를 세웠으며, 효종은 비문을 받아 직접 읽어보기도 했다.<sup>37</sup> 또 예조가 통제사 정익(鄭翼)이 노량에 세웠던 이순신 사당에 묘액(廟額)을 내려주기를 청하자 현종은 1662년(현종 3) 충렬(忠烈)의 호를 사액했고,<sup>38</sup> 1663년(현종 4)에는 통영의 사당에도 충렬(忠烈)의 호를 사액했다.<sup>39</sup> 1665년(현종 6)에는 아산의 이순신 사당에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냈다.<sup>40</sup> 이러한 분위기에서 1667년(현종 8) 이순신의 4대 종손 이홍의(李弘毅, 1648~1735)가 음사로 제릉참봉(齊陵參奉)에 임명됐고, 이홍의는 뒤에 신령현감을 역임했다.<sup>41</sup>

추정컨대 북벌을 도모하던 효종이 이순신과 같은 뛰어난 무장(武將)을 갈망하는 가운데<sup>42</sup> 이순신 추모 분위기가 크게 증대됐고, 현종 대에 이르러 1662년 이순신의 업적을 흠모하는 그의 후손에 의해 『충민공계초』가 작성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34 참고로 1662년 전후로 전라좌수사는 최정현(崔廷顯, 1659년 부임), 박형(朴炯, 1661년 부임), 유정(兪挺, 1662년 부임)으로, 덕수이씨는 보이지 않는다. 『호좌수영지(湖左水營誌)』, 1815.

35 『효종실록』 18, 효종 8년 6월 7일(무인).

36 『효종실록』 20, 효종 9년 6월 11일(정축).

37 『효종실록』 21, 효종 10년 윤3월 28일(무자), 30일(경인).

38 『현종실록』 5, 현종 3년 2월 2일(병오).

39 『현종실록』 7, 현종 4년 10월 5일(기해).

40 『현종실록』 10, 현종 6년 5월 1일(병술).

41 『삼세가장(三世家狀)』(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 가의대부(嘉義大夫) 덕원군 이홍의(德原君 李弘毅) 묘갈(墓碣).

42 『효종실록』 11, 효종 4년 8월 23일(을유).

### 3. 『충민공계초』의 구성과 내용

『충민공계초』에는 이순신이 국왕 또는 세자(광해군)에게 올린 장계 68편이 수록돼 있다. 국왕에게 올린 장계 14편과 계본 49편, 세자에게 전투상보올린 장달 3편과 달본 2편이다. 장계에 이어 책의 뒷부분에는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의 「이통제비명」, 관찰사 박승종의 「충민사기」, 이항복의 「고통제사이공유사」가 나온다.

『충민공계초』에 수록된 장계를 연도별로 보면 만력(萬曆) 20년(1592) 장계 14편, 만력 21년(1593) 장계 29편, 만력 22년(1594) 장계 22편, 날짜 미상 3편이 포함돼 있다.

임진왜란 첫해인 1592년의 장계 내용을 보면 일본군의 대거 내침에 따라 관찰사·병사·수사(水使) 간에 긴박하게 오간 적정(賊情)과 대비 현황, 경상도 해역으로 네 차례 출전해 벌인 전투상보(戰鬪詳報), 군량의 배분 조치, 한산도에 포위된 왜병의 도망, 전사한 녹도만호 정운의 이대원 사당 배향, 일족에게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의 취소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

1593년(계사)의 장계 내용은 의·승병의 요충지 분송(分送) 배치, 피란민의 돌산도 입도 경각, 웅포해전의 전투상보, 수군 소속 고을의 해전 전속, 광양현감 어영담의 유임 및 조방장 임명, 충청도 수군의 후원, 왜군의 정세, 정철총통 개발, 유향의 지원, 통제사 직무 수행을 위한 문신 종사관 임명, 연해안의 군병기를 수군에 전속, 연해안에 둔전 설치, 한산도에서 무과 시행 등에 대한 요청이 포함돼 있다.

1594년(갑오)의 장계 내용은 승장의 위조문서, 수륙군을 바꾸어 방비시키는 일의 불합리성, 방비군의 결원을 낸 수령의 처벌, 홍양목관 교체, 수륙군의 교차 징발 폐단, 왜군의 정세, 일족에게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의 취소, 충청수군 후원 독촉, 집결 지시에 지체하는 장수 처벌, 의병장에게 포상 건의, 제2차 당항포해전 전투상보, 무과 특별시험 결과, 소속 장수의 교대 휴가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이순신의 장계는 『이충무공전서』에 71편으로 가장 많이 수록돼 있었으나, 수록된 장계에는 이두문이 모두 빠져 있고, 첫머리와 끝부분도 삭제됐으며, 전사자(轉寫者)가 임의로 수정한 내용도 많아서 ‘이순신 등초장계’의 원 모습을 잃고 있었다. 다행히 『이충무공전서』의 이러한 결함은 『임진장초』가 보완해준다. 그렇더라도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임진장초』에도 없던 17편의 장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원 모습과 작성 일자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충민공계초』를 통해 그 17편 가운데 표 3과 같은 12편의 장계에 대해 『이충무공전서』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와 『이충무공전서』에 각각 상이하게 필사된 자구(字句)를 대조해 판별해줄 수 있게 됐다. 『임진장초』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마모돼 식별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이충무공전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자구가 있었

표 3. 『이충무공전서』를 보완하는 『충민공계초』의 장계 12편

순번(부록)	문서 양식	작성 일자	장계 제목
62	계본(啓本)	만력(萬曆) 22년 2월 25일	청충청수군절도사최축도진장(請忠淸水軍節度使催促到陣狀)
63	〃	만력 22년 2월 25일	청죄지유제장장(請罪遲留諸將狀)
64	〃	만력 22년 3월 10일	청상의병제장장(請賞義兵諸將狀)
65	〃	만력 22년 3월 10일	청조획군량장(請措劃軍糧狀)
66	〃	만력 22년 3월 10일	진왜정장(陳倭情狀)
67	〃	만력 22년 3월 10일	당항포과왜병장(唐項浦破倭兵狀)
68	〃	만력 22년 4월 20일	진왜정장(陳倭情狀)
69	〃	만력 22년 4월 2일	청죄과기제장장(請罪過期諸將狀)
70	〃	만력 22년 4월 19일	초탐왜병장(哨探倭兵狀)
71	〃	만력 22년 4월 11일	설무과별시장(設武科別試狀)
72	달본(達本)	만력 22년 4월 20일	주사소속제장휴번장(舟師所屬諸將休番狀)
73	계본(啓本)	만력 22년 4월 20일	청죄궐방제장장(請罪闕防諸將狀)

으나 이제 『충민공계초』로 식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충민공계초』는 몇 가지 단점도 있다. 장계 첫 편부터 오탈자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 그 빈도가 상당히 심하다. 특히 내용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 많고, 이두문에도 오탈자가 나타나는데,<sup>43</sup> 이는 관청의 보고문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필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필사자는 군사(軍事) 지식이 약한 사람으로 보인다. 예컨대 첫 번째 장계인 ‘인왜경대변장(因倭警待變狀(1))’에서 여타의 모든 장계 초본(狀啓抄本)이 “응봉봉수감고(鷹峯烽燧監考)”로 기술한 것을 “응봉봉수망군(鷹峯烽燧望軍)”으로 표현했다. 필사자는 봉수 관리를 위해 봉화대를 순회 감독하던 관리를 ‘감고(監考)’라고 칭하는 것을 몰랐기에 이를 ‘망군(望軍)’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처럼 치밀하지 못한 필사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충민공계초』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이순신의 후손 가운데 글 잘 쓰는 사람이 필사했을 것으로 보인다.<sup>44</sup>

『충민공계초』는 첫 장계의 첫머리 부분에서만 범식대로 근거위(謹啓爲)의 계(啓) 자를

43 『충민공계초』의 대표적 이두문 오류는 다음과 같다.

부록 순번 1, 因倭警待變狀(1), “必是歲遣船是在果唯只” → “是白在果”(임, 유, 계)

부록 순번 7, 玉浦破倭兵狀, “登山之賊是白乎矣” → “爲白乎矣”(임, 유, 요, 계)

부록 순번 7, 玉浦破倭兵狀, “罷陣爲白在而亦” → “爲白乎在亦”(임, 유, 요, 계)

부록 순번 8, 唐浦破倭兵狀, “反爲示弱分叱不喻” → “叱分不喻”(임, 유, 요, 계)

부록 순번 8, 唐浦破倭兵狀, “招辭是白齊同人等具是” → “是白有亦”(임, 유, 계)

부록 순번 8, 唐浦破倭兵狀, “爲白有如可” → “爲白如可”(임, 유, 계)

부록 순번 9, 見乃梁破倭兵狀, “招辭爲白有亦” → “是白有亦”(임, 유, 요, 계)

부록 순번 9, 見乃梁破倭兵狀, “開諭爲白有乎於” → “爲白有齊”(임, 유, 요, 계)

부록 순번 66, 陳倭情狀, “追到爲有齊” → “爲白有齊”(유)

44 박선이는 앞의 책, 84~88쪽에서 『충민공계초』는 관청에서 필사한 것으로, 이순신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편찬된 국가 차원의 편찬물이라고 주장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표 4. 『충민공계초』의 장계 중 시작과 끝 부분이 생략된 주요 사례

순번(부록)	작성 일자	제목	시작과 끝 부분 생략 사례
20	만력 21년 1월 22일	명술주사절적귀로유서(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1)	去壬辰十二月 十八日 成貼 宣傳官 蔡津賣來(……) 書狀乙 臣今正月 十一日 巳時在鎮祗受 爲白乎 萬曆十一年 正月 十二日
21	만력 21년 1월 25일	명술주사절적귀로유서(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2)	宣傳官安世傑賣來(……) 書狀乙 臣今正月 廿五日 辰時 在鎮祗受 爲白臥乎事 萬曆十一年 正月 廿五日
22	만력 21년 2월 17일	영수륙제장직도옹천장(令水陸諸將直擣熊川狀)	宣傳官李賣來(……) 巡察使處移文催促爲白臥乎事 萬曆二十一年 二月 十七日

별행(別行)으로 하여 한 자 올려 썼을 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계 자를 문장 속에서 한 칸만 띄우고 썼다. 반면 『임진장초』는 ‘이순신 등초장계’ 그대로 충실히 필사했다. 후술하겠지만, 이런 연유로 후대에 초본을 필사할 때 참고본으로 『충민공계초』보다 『임진장초』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충민공계초』는 머리말과 끝부분이 생략돼 장계의 문서 양식을 판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표 4와 같다. 이것들은 『임진장초』와 비교해보면 대개 ‘장계’ 문서 양식으로 식별된다.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 『충무공유사』, 『이충무공전서』와 비교해볼 때 누락된 부분이 상당하다. 필사자가 일부러 누락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주의로 누락된 부분도 있다. 『임진장초』, 『충무공유사』, 『이충무공전서』와 비교해 드러나는 수많은 오탈자 가운데 내용이 크게 누락된 대표적인 예를 예시하면 표 5와 같다.

이러한 몇 가지 결함은 있지만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에 없는 장계가 12편이나 있고, 이 12편은 이두문과 앞뒤 문장이 빠진 『이충무공전서』에서는 그 원형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지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충민공계초』는 이순신 장계의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는 『임진장초』와 『이충무공전서』의 상이한 부분을 명확히 판별해준다.<sup>45</sup> 그뿐 아니라 『충민공계초』는 지금까지 『이충무공전서』에만 있어서 작성 일자를 알 수 없었던 12편의 장계에 대한 날짜를 밝혀준다. 또한 『충민공계초』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마모가 심해진 『임진장초』를 사실상 복원할 수 있게 해주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충민공계초』는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초본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앞서는 문헌으로, 이순신과 임진왜란사 연구의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45 예컨대 부록 순번 31 장계 「명정선조적유서(命整船勦賊諭書)」의 내용 중 지금까지 『임진장초』에는 “정삭선병(整粟船兵)”으로, 『이충무공전서』에는 “정삭병선(整粟兵船)”으로 돼 있어 어느 것이 올바른지 알 수 없었으나, 『충민공계초』에서 “정삭선병(整粟船兵)”으로 판별됐다.

표 5. 『임진장초』와 비교해 『충민공계초』의 대표적인 내용 누락 사례

순번(부록)	작성 일자	제목	내용(괄호속 부분이 누락됨)
7	만력 20년 5월 10일	옥포파왜병장 (玉浦破倭兵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蛇渡僉使金浣 倭大船一隻 (防踏僉使 李純信 倭大船一隻 光陽縣監 魚泳潭 倭大船一隻) 同部統屬</li> <li>• 臣矣帶率軍官 (前奉事 李濼) 宋希立等 同力 (倭大船) 二隻 軍官 (定 虜衛) 李鳳壽等 (倭大船) 一隻 (軍官別侍衛) 宋漢連 (倭中船) 一隻 爲 等如</li> </ul>
8	만력 20년 6월 14일	당포파왜병장 (唐浦破倭兵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斬首不多爲白如乎 (慶尙右水使 元均 接戰翌日 分遣挾船 庶幾收斬叱 分不喻 同) 慶尙沿海鮑作等</li> <li>• 樂安統船射夫趙千君 (水軍 宣進斤 無上 私奴 世孫 鉢浦射夫 水軍 朴 長春) 土兵 張業同</li> <li>• 綾城助防 崔亂世 (寶城一船 軍官金益水 射夫吳彥龍 無上鮑作欣孫 蛇渡一船 軍官陳武晟 林弘楠 射夫水軍金億水 陳彥良 新選許福男 助防 田光禮 防炮匠許元宗 土兵鄭於叱金 呂島船 射夫石千介 柳水 宜有石) 等股 逢箭不至重傷</li> </ul>
9	만력 20년 7월 10일	견내랑파왜병장 (見乃梁破倭兵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他倭并斬首十二級 (我國人一名生擒 蛇渡僉使金浣 倭大船一隻 洋中 全捕 倭將并斬首十六級) 興陽縣監 襄興立</li> <li>• 呂島船格軍 (興陽水軍姜必仁 林必斤 張千奉 蛇渡一船 甲士衷中之 鹿 島一船) 興陽新選 朴應龜</li> <li>• 沙工朴斤世 崔白 水軍 (金弘屯 水軍俞必丁 李應弘 朴彥海 申哲 姜牙 金 軍官田光禮 同鎮二船 格軍鄭可當 鄭于當 吳凡同 鹿島二船 軍官成吉 伯 新選金德壽 水軍姜永男 朱必上 崔永安 土兵私奴毛老孫 射夫長興軍 士 閔時澍 格軍興陽水軍李彥丁 樂安一船 格軍鮑作業 同 世千 李淡 孫亡 龍 同郡二船 射夫金鳳壽 鮑作禾里同 壯軍朴如山 私奴難孫 寶城船 無上 吳欣孫 格軍奴夫皮 興陽一船 鮑作古邑同 南文同 進同 官奴之南 同縣二 船防炮匠正兵李亂春 射軍私奴吳茂世 格軍私奴風破同 奴大福 奴金孫 保人朴千每 私奴八連 奴欣每 奴每孫 奴克只 保人朴鶴昆 光陽船 都副 尊 金溫 無上 金淡代 格軍先同 營龜船 格軍土兵金延浩 奴億只 洪允世 丁乞 張水 崔夢汗 水軍鄭希宗 趙彥夫 朴開春 全巨之 營三船 鎮撫李自春 趙 得 朴先厚 張每年 格軍鮑作李文世 土兵金年玉 奴鶴每 奴永耳 朴外同 鉢浦一船 土兵李老郎 李仇連 水軍趙道本 同浦二船 水軍崔己 金信末 崔 永文 興陽三船 私奴風世 鮑作亡仇之 亡己) 欣福等 重傷爲白在果</li> </ul>
11	만력 20년 9월 10일	부산파왜병장 (釜山破倭兵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後四次赴敵 十度接戰 (皆致勝捷爲白良置 將士功勞以論之 則莫逾 於今次釜山之戰) 是白置</li> <li>• 營岸後船水軍 (李宗 格軍土兵金江斗 朴成世 營龜船土兵鄭仁伊 朴彥 必 呂島船土兵鄭世仁 射夫金希) 全 蛇渡一船 軍官金鵬萬 (沙工土兵 水軍安元世) 格軍 (土兵水軍) 崔汗終 光陽水軍 裴植 (宗 興陽一船 格 軍鮑作北介) 營虞侯船射夫 (鎮撫) 仇銀千 防踏一船 格 (括) 軍奴春好 (奴甫吞 同鎮龜船 括軍奴春世 格軍奴延石 寶城水軍 李加叱福 寶城船 無上 欣孫等股 中丸不至重傷 臣所騎船土兵水軍金永見 鮑作今同 防踏 龜船) 順天射夫 (新選) 朴世奉等股 逢箭</li> <li>• (倭物秩 倭甲五部內 一金甲 倭도 兜盔三 倭長槍二柄 倭銃筒四 倭大 鏡四 倭騎鞍一部 於赤一部 倭超床一 倭各色衣七 倭婆羅二隻 倭鉛鐵 二百三十斤 倭竹鐵箭十二部五介 倭長箭五部二十三介 倭無鐵箭二部 十一介 倭伐爐一 倭鼎一 倭櫃一 我國長箭九介 鎌子一柄 地字銃筒二柄 玄字銃筒二柄 大碗口一 彫皮一令)</li> </ul>
18	만력 21년 1월 26일	분송의승파수요해장 (分送義僧把守要害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房處仁乙良 (陶灘 姜姬悅及僧性輝等乙良豆恥 信海乙良石柱 智元乙 良雲峰) 八良峙爲等如把守要害</li> </ul>
34	만력 21년 8월 10일	진왜정장 (陳倭情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帶連接 長門浦 (松珍浦等處設置 削平峰頭 並築土城 城內造家 船隻 股 大中并或百餘隻 或七十餘隻 列泊岸下叱分不喻 熊浦) 西峯 齊浦北 山</li> </ul>
37	만력 21년 8월	등문피로인소고왜정장 (登聞被擄人所告倭情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烽隧軍朴檢孫 (牧子朴檢失 寺奴金國 金軒山 奴芝伊 寺奴允春 梁山居姜銀億 朴銀玉 金海居甲匠金達亡 私奴仁上) 等十二名</li> </ul>
67	만력 22년 3월 10일	당향포파왜병장 (唐項浦破倭兵狀) - 『이충무공전서』와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羅右道諸將 折衝將軍舟師助防將魚泳潭 倭大船二隻 焚滅... 忠략31 行... 鎭海縣監 鄭浣 中船一隻 焚滅)</li> </ul>

68	만력 22년 4월 20일	진왜정장 (陳倭情狀) - 『충무공유사』와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同縣正兵許能連等 (金加應孫 別侍衛趙允信 水軍劉應上) 當爲被擄 處 還節次及賊中所爲 推問招內 (金應之股 巨濟縣東面居生爲於 校 生許應奎 辛世英等 以同力討賊 許應奎股爲賊被戮矣 身叱分得生爲有 如乎) 前年七月十九日 賊倭七名</li> <li>• 倭奴二名出他之際 (許能連 金加應孫 趙允信) 金應上等</li> <li>• 他餘事股 知不得爲齊 (許能連股 巨濟邑內居正兵 以前年七月二十四 日 妻并四名 一時爲賊被擄 場門浦鳥乘監陣良中足付 十二歲女子股 他 倭處移賣 不知去處) 矣 身夫妻及七歲女子股</li> <li>• 金應之招辭一樣 (是齊劉應上股 慶尙道右水營吹螺赤 巨濟居生爲 如乎 日不記前... 忠략18 行... 金加應孫 趙允信 劉應上) 等 亦被擄女人 十一名 招集</li> </ul>
----	---------------	---------------------------	--

#### IV. 기타 이순신 장계 초본(抄本)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초본은 『충민공계초』 외에도 『임진장초』, 『충무공유사』, 『요람』, 『이충무공전서』, 『충무공계초』, 『충무이공순신임진왜변장계』<sup>46</sup> 등이 있으며, 각각의 서지 사항은 표 6과 같다.

##### 1. 『임진장초(壬辰狀草)』

『임진장초』<sup>47</sup>는 1592년 4월부터 1594년 1월까지 3년 치 61편의 ‘이순신 등초장계’를 장 계등록의 예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해서체로 옮겨 적은 것이다.<sup>48</sup> 이순신의 친필은 아니지만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난중일기(亂中日記)』 초고본 과 함께 국보 제76호로 지정돼 현충사에 보존돼 있다. 필사본 1책으로, 지면에는 ‘전라좌 도수군절도사인(全羅左道水軍節度使印)’이라는 네모난 주인(朱印)이 찍혀 있다.<sup>49</sup> 이 주인으 로 미루어볼 때 『임진장초』는 일단 전라좌수영에서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임 진장초』는 이순신의 후손으로 전라좌수사를 역임한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순신의 후손으로 전라좌수사를 역임한 이는 1709년 부임한 이봉상(李鳳祥), 1732년 부임 한 이명상(李命祥), 1747년 부임한 이태상(李泰祥), 1766년 부임한 이한창(李漢昌)을 들 수

46 『충무이공순신임진왜변장계(忠武李公舜臣壬辰倭變狀啓)』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옥영정 교수가 새롭게 발굴한 자 료이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소장돼 있다. 필자는 그 복사본을 구하기가 어려워 이 논문에서는 자세히 언급할 수 없었다.

47 ‘임진장초(壬辰狀草)’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임진계본(壬辰啓本)’이러야 옳다는 주장이 있다. 최승희, 『개정 증보판 한국 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11, 155쪽.

48 朝鮮史編修會, 『亂中日記草·壬辰狀草』, 朝鮮史料叢刊 6, 1935, (東京 第一書房, 1978 復刊), 解説 p.4.

49 조선사편수회, 위의 책, 4쪽;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 진장초 보존 처리』, 2015, 106~127쪽.

표 6. 『충민공계초』 이외의 이순신 장계 초본 서지 사항

서명	『임진장초』	『충무공유사』	『요람』	『이충무공전서』	『충무공계초』
편자	미상	미상	미상	윤행임	미상
판본	필사본	필사본	필사본	활자본	필사본
간행 연도	미상	1716~1792년	1724년 이후	1795년	19세기 이후
형태	1책(85장), 47×34.6cm	1책(94장), 3 4×23.6cm	1책(50장), 20× 26cm	14권 8책, 35×22.4cm	1책(103장), 3 5.3×27cm
인기(印記)	전라좌도수군절도 사인(全羅左道水軍 節度使印)	제실도서지장(帝室 圖書之章)	있음	• 이왕가도서지장(李 王家圖書之章) • 규장지보 (奎章之寶)	해군사관학교
소장처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사무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해양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있다.<sup>50</sup>

여기서 주목되는 인물은 이순신의 현손이자 봉사손으로 앞서 언급한 이홍의와 그의 조카 이봉상(1676~1728)이다. 이홍의는 『이충무공전서』의 저본이 된 『충무공가승』의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봉상은 1709년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자 백부 이홍의를 도와 『충무공가승』 간행에 착수했으나 병으로 체직돼 완성하지 못하고, 1715년 함경남도병마사로 임용되면서 비로소 완간했다. 특히 이봉상은 전라좌수사로 재임하면서 충민사 제실(齋室)을 창건하는 등 이순신 사적을 정비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sup>51</sup> 그런데 『충무공가승』에는 이순신 장계가 빠져 있다. ‘등초장계’의 정리와 이를 장계등록의 예에 따라 필사하는 과업은 결코 쉽지 않은 일로, 관청의 힘을 빌려야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임진장초』가 이홍의의 부탁으로 조카인 전라좌수사 이봉상이 작성했을 수도 있었음을 가설로서 제시해 둔다.

『임진장초』는 부록에서 보듯이 장계 순서가 대략적으로 맞추어졌을 뿐 완전한 날짜순이 아니다. 반면 『이충무공전서』의 장계는 완전하게 날짜순으로 배열돼 있다. 이는 당시까지 산만하게 보존되던 ‘등초장계’를 『이충무공전서』 편찬자가 날짜순으로 정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임진장초』는 『이충무공전서』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진장초』는 장계 순서가 『충민공계초』와 동일하다. 다만 『충민공계초』에 비해 중간에 다섯 편이 추가됐다. 이것은 『충민공계초』가 모본으로 삼은 ‘등초장계’ 꾸러미를 『임진장초』도 그대로 이어받아 필사하면서, 다만 새롭게 수습한 다섯 편의 ‘등초장계’를 해당 날짜

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sup>52</sup> 그러므로 『임진장초』는 『충민공계초』 이후 작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임진장초』의 작성 시기는 『충민공계초』(1662)보다 늦고 『이충무공전서』(1795)보다는 빨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순신의 후손 이태상이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순신의 계본이 없어질까 염려해 1760년에 삼도수군통제사에 부임하자마자 추려내 베꼈다고 한다.<sup>53</sup> 이렇게만 보면 『임진장초』는 통제사 이태상이 등서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임진장초』에는 ‘삼도수군통제사인’이 아닌 ‘전라좌도수군절도사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태상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임진장초』는 충무공파 종손 집안에 대대로 소장돼왔는데, 이태상은 종손이 아니라는 점도<sup>54</sup>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전말로 미루어보건대 『임진장초』는 이태상이 1760년 작성한 장계 초본과는 다른 것으로 추정되며,<sup>55</sup> 이태상이 작성한 장계 초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충무공유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책자로, 이순신의 생애를 기술한 「충무공유사」에 이어 「충무공계본」 16편이 수록돼 있다. 「충무공유사」는 1716년(숙종 42) 전라좌수사 이여옥이 발간한 『충무공가승』에 수록된 이분(李芬)의 「행록(行錄)」을 머리 부분만 빼고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충무공유사」는 『이충무공전서』에 실린 「행록」과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sup>56</sup> 따라서 『충무공유사』는 1716년 이후 작성된 초본(抄本)으로 볼 수 있다. 정조는 1792년(정조 16) 8월 「이충무유사」를 읽으며 이순신의 위훈에 크게 감명을 받고, 내각에 지시해 전서의 편찬을 지시했다.<sup>57</sup> 이때 정조가 읽었던 책자 「이충무유사」가 곧 『충무공유사』로 추정된다.

부록에서 보듯 『충무공유사』의 「충무공계본」 16편은 매우 엄선된 중요한 내용이다. 임진왜란 초기의 전황, 임진년의 네 차례 해전, 계사년의 웅포해전, 강화회담 중이던 계사년 8월

52 다만 『임진장초』의 필사자가 『충민공계초』 뒤쪽에 수록된 12편을 왜 누락했는지는 알 수 없다.

53 “殆百有七十餘年矣 今乃以余不肖猥叨 (……) 啓本拋棄于流來陳簿者久矣 慮其永爲泯沒 拾出改謄藏之.” 『이충무공전서』 11, 부록 3, 「장계 초본발(跋)」.

54 이태상은 충무공의 둘째 아들 예(□) - 양자인 지석(之哲) - 지석의 둘째 아들 광보(光輔) - 광보의 첫째 아들 홍규(弘規) - 홍규의 첫째 아들 태상(泰祥)으로 계보가 이어지며, 종손 만상(萬祥, 『충무공가승』의 편자(編者) 이홍의의 장남)과는 족보로는 10촌, 혈연으로는 6촌간이었다.

55 조선사편수회, 앞의 책, 4쪽과 노승석, 앞의 책, 5쪽에는 『임진장초』를 이태상이 등서한 초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56 『충무공유사』와 동일한 『충무공가승』 권3, 「행록(行錄)」의 정유년 9월 기사는 “今若專廢”, “一百三十三隻”, “解圍而走”로 돼 있으나, 『이충무공전서』 권9에 수록된 「행록」에는 “今若全廢”, “三百三十三隻”, “解圍走”로 돼 있다.

57 『이충무공전서』, 윤행(綸音), 임자년(정조 16) 8월 19일.

50 『湖左水營誌』, 先生案, 1815(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

51 윤행, 앞의 책, 110~136쪽.

과 윤11월의 왜군 정세 및 갑오년 3월과 4월의 왜군 정세, 제2차 당항포해전 등 이순신이 수행한 주요 해전과 중요한 적정계본(賊情啓本)이 빠짐없이 수록돼 있다. 또한 『충무공유사』는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매우 단정한 해서체로 필사됐는데, 국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특별히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3. 『요람(要覽)』

『요람』은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된 책자로, 서명은 표지가 심하게 마모돼 불명확하지만, 일단 식별 가능한 글자만 가지고 필사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sup>58</sup> 이순신의 장계 14편과 끝부분에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이 저술한 진주서사(晉州敍事)가 수록돼 있다. 진주서사는 1593년 일본군에 의해 진주가 함락된 전말을 기술한 것이다. 『요람』에 수록된 장계는 모두 『임진장초』, 『충민공계초』, 『충무공계초』, 『이충무공전서』에도 수록된 것이다. 필사자가 원문을 임의로 요약 및 수정하거나 누락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 판본에 있는 내용상의 차이점을 서로 대조해 밝힐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외에도 이 책자는 부산진첩사가 발행한 「지급왜운미군배일성책(至給倭運米軍排日成冊)」, 「왜인거래수개록성책(倭人去來數開錄成冊)」의 이면지를 활용해 편찬했는데, 이면지는 임인년에서 갑진년까지의 문서로서, 당시 부산 왜관에 거주한 왜인 수와 왜선 수가 파악된다.<sup>59</sup> 이면지에 기록된 “갑진 윤4월(甲辰閏四月)”이 1724년(영조 4)에 해당하므로 이 책의 편찬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이다.

### 4.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이충무공전서』는 정조의 지시로 1795년 규장각에서 편찬한 책으로, 권2부터 권4까지에 이순신의 장계 71편이 수록돼 있다. 이들 장계는 『임진장초』에 없는 장계 17편을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떠한 장계 초본에도 없는 다섯 편의 장계도 포함하고 있어 1795년 편찬될 당시까지도 『임진장초』가 아닌 장계 초본의 원형 자료, 곧 ‘등초장계’가 덕수이씨 충무공과 종가에 소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충무공전서』의 장계는 작성 일자 순서대로 수록된 점이 『임진장초』와 다르며, 또 『이충무공전서』 권4의 「당항포파외병장(唐項浦破倭兵狀)」에는 어떠한 장계 초본에도 없는 참전 장수들의 이름과 전술 편제, 전과가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충무공전서』의 장계 내용은 이두문과 머리 부분 및 끝부분

58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충무공임진장계(忠武公壬辰狀啓)』로 정했다고 한다. 전경호, 『『충민공계초』·『충무공임진장계』에 대한 검토: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도서문화(島嶼文化)』 48, 목포대학교 도서관 연구소, 2016.

59 왜인 602명과 왜선 17척 혹은 왜인 625명과 왜선 18척이다.

이 생략되고, 내용도 필사자가 임의로 개작한 것이 있어 ‘등초장계’의 원형을 상실했다는 점이 아쉽다.

### 5. 『충무공계초(忠武公啓草)』

『충무공계초』는 이순신의 후손 이재훈이 1974년 해군사관학교에 기증해 현재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책자로, 이순신의 장계 63편<sup>60</sup>이 정성 들여 쓴 해서체로 등초돼 있다. 내용의 맨 뒤쪽에는 장계와는 전혀 다른 필체의 국한문 혼용으로 된 4쪽 분량의 글이 실려 있는데, 신채호가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적 있는 ‘수둑제일위인이순신전(水軍第一偉人李舜臣傳)’ 제1장과 제2장 일부다. 이것으로만 보면 『충무공계초』는 매우 늦은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충무공계초』는 수록된 장계의 순번이 『임진장초』와 동일하며, 내용도 거의 일치해 『임진장초』를 보고 필사한 느낌이 든다. 다만 장계의 분량이 『임진장초』의 61편보다 두 편이 더 많은데, 그 두 편은 『충민공계초』와 『이충무공전서』에도 실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편은 『충민공계초』와는 이두문과 몇몇 글자의 차이가 있고, 문서 양식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적으로 『충민공계초』만 보고 필사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종가에 보존하고 있던 ‘등초장계’를 보고 필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등초장계’는 대략 19세기 무렵까지도 보존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민공계초』를 포함해 이상 필사가 확인할 수 있는 여섯 종류의 이순신 장계 초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초본류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이태상이 1760년 필사한 초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은상도 1968년 3월 『난중일기』 해설문에서 마지막 10일 동안의 일기 한 장이 붙어 있는 ‘장계 등본 별책’<sup>61</sup>을 언급했기 때문이다.<sup>62</sup> 실제로 앞에 언급한 여섯 종류의 초본 가운데 마지막 10일 동안의 일기가 붙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장계 78편 중 73편은 최소한 두 종류 이상의 초본에 수록돼 있는 데 반해, 다섯 편만은 오직 『이충무공전서』에만 수록돼 있기 때문에 이들 다섯 편이 함께 수록된 초본도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0 원래 대학 박물관 유물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필사가 작성해 ‘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현재는 네이버 지식백과 e뮤지엄과 연계됨)에 올렸던 ‘충무공계초’ 해설 자료에는 62편으로 돼 있으나 63편이 올바르다.

61 노승석은 앞의 책, 13쪽에서 이은상이 말한 이 ‘장계등본 별책’은 『충무공유사(제조번방지초)』를 잘못 파악한 견해라고 주장했다.

62 “장계등본 별책 끝에 최후 10일 동안의 일기 한 장이 붙어 있음을 본다.” 노산 이은상 역주해, 『충무공 친필 초고본 난중일기』, 현암사, 1968년 5월 5일, 10쪽.

## 맺음말

이순신은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임진왜란 기간 동안 전쟁 수행 및 직무와 관련한 많은 장계를 국왕과 세자에게 올렸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이순신 장계는 모두 78편이며, 이는 네 가지 문서 양식으로 돼 있는데, 국왕에게 올린 장계 22편과 계본 50편, 세자에게 올린 장달 3편과 달본 3편이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 조정에 올렸던 많은 장계를 따로 등초해두었다. 여기서는 편의상 이를 ‘등초장계’라 칭했다. ‘등초장계’는 이순신의 본가에서 오랫동안 소장해오다가 대략 19세기 무렵 유실됐다. 다행히 여러 차례 필사 작업이 이루어져 그 초본이 전해오는데, 『충민공계초』, 『임진장초』, 『충무공유사』, 『요람』, 『이충무공전서』, 『충무공계초』, 『충무이공순신임진왜변장계』 등이 현존한다.

이순신의 유고(遺稿)는 두 차례에 걸쳐 정리됐다. 첫 번째는 이순신의 현손이자 봉사손인 이홍의가 1715년 『충무공기승』을 편찬하면서 정리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때 친필 일기와 장계는 수록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조의 지시에 따른 1795년의 『이충무공전서』 편찬이다. 이때는 이순신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규장각에서 종합 편찬됐다.

『충민공계초』는 1592년 4월에서 1594년 4월까지 올린 이순신의 장계 68편을 다른 사람이 필사해둔 책으로, 국왕에게 올린 장계 14편과 계본 49편, 세자에게 올린 장달 3편과 달본 2편이 포함돼 있다. 1책 73장의 필사본으로, 1662년(현종 3) 3월 20일에 작성됐다. 장계에 이어 책 뒷부분에는 이항복이 지은 「이통제비명」, 박승중이 지은 「충민사기」, 이항복이 지은 「고통제사이공유사」가 차례로 기술돼 있다.

이순신을 충민공으로 칭한 것은 충민사에서 연유한다. 충민사는 이순신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1601년(선조 34) 당시 전라좌수영(여수)에 건립된 사액(賜額) 사당이다. 그 후 1643년(인조 21) 이순신에게 충무공(忠武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는데도 『충민공계초』에는 이순신이 충민공으로 칭해지고 있다. 이는 『충민공계초』가 편찬됐을 당시에 이순신은 충무공 호칭과 더불어 충민공으로도 계속 불렸기 때문이다. 북벌을 도모하던 효종은 이순신과 같은 뛰어난 무장을 갈망했다. 그리하여 이순신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크게 고양됐고, 이런 분위기에서 현종 대에 이르러 이순신의 업적을 흠모하는 그의 후손에 의해 『충민공계초』가 작성됐다.

이순신 장계는 『이충무공전서』(71편)에 가장 많이 수록돼 있으나, 수록된 장계는 이두문이 모두 빠져 있고, 첫 머리와 끝 부분도 삭제됐으며, 전사자(轉寫者)가 임의로 수정한 내용도 많아서 ‘등초장계’의 원 모습을 잃은 상태였다. 다행히 『이충무공전서』의 이러한 결함은 그동안 『임진장초』가 보완해주었다. 그렇더라도 『임진장초』에도 없는 17편의 장계에 대해서는 지

금까지 그 원형과 작성 일자를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충민공계초』를 통해 그 17편 가운데 12편의 장계에 대해 『이충무공전서』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와 『이충무공전서』에 각각 상이하게 필사된 자구(字句)를 대조해 판별해줄 수 있게 됐다. 『임진장초』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마모돼 식별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이충무공전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자구가 있었으나 이제 『충민공계초』로 식별이 가능하게 됐다.

『충민공계초』는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몇 가지 단점도 있다. 『임진장초』 및 『이충무공전서』와 비교해볼 때 장계 첫 편부터 오자와 탈자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도 그 빈도가 상당히 심하다. 특히 내용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 많다. 필사자가 일부러 누락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주의로 누락된 부분도 있다. 또 이두문에도 오탈자가 나타나는데, 이는 관청의 보고문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필사했기 때문일 것이며, 필사자는 군사(軍事) 지식이 약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충민공계초』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이순신의 후손 가운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충민공계초』는 첫 장계의 첫머리에서만 장계 문서 양식에 따라 ‘근계위(謹啓爲)’의 계(啓) 자를 별행(別行)으로 하여 한 자 올려 썼을 뿐, 나머지 장계는 거의 대부분 계 자를 문장 속에서 한 칸만 띄우고 썼다. 반면 『임진장초』는 ‘등초장계’의 원형대로 충실히 따랐다. 이런 연유로 후대에 초본을 필사할 때 참고본으로 『충민공계초』보다는 『임진장초』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민공계초』는 머리말과 끝부분이 생략돼 장계의 문서 양식을 판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임진장초』와 비교해보면 대개 ‘장계’ 양식으로 식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결함이 있지만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에 없는 장계를 12편이나 신고 있고, 이 12편은 이두문과 앞뒤 문장이 빠진 『이충무공전서』에서는 그 원형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지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충민공계초』는 ‘이순신 등초장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진장초』와 『이충무공전서』의 내용상의 상이한 점을 명확히 판별해준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충무공전서』에만 나와 있어서 작성 일자를 알 수 없었던 12편의 장계에 대한 날짜를 밝혀준다. 또한 『충민공계초』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마모가 심해진 『임진장초』를 사실상 복원할 수 있게 해주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충민공계초』는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초본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앞서는 문헌으로, 이순신과 임진왜란사 연구의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부록. 현존하는 이순신 장계 총목록

순번	문서 양식	작성 일자: 『임진장초』 기준	제목: 조성도 역주, 『임진장초』 기준	출처
1	계본(啓本)	만력 20년 4월 15일, 술시(戌時)	사면에 대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因倭警待變狀) (1)	임, 충, 유, 요, 계, 전
2	〃	만력 20년 4월 16일, 진시(辰時)	사면에 대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因倭警待變狀) (2)	임, 충, 유, 요, 계, 전
3	〃	만력 20년 4월 16일, 해시(亥時)	사면에 대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因倭警待變狀) (3)	임, 충, 유, 요, 계, 전
4	〃	만력 20년 4월 27일	구원하러 출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赴援慶尙道狀) (1)	임, 충, 유, 요, 계, 전
5	〃	만력 20년 4월 30일, 미시(未時)	구원하러 출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赴援慶尙道狀) (2)	임, 충, 요, 계, 전
6	〃	만력 20년 5월 4일	구원하러 출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赴援慶尙道狀) (3)	임, 충, 요, 계, 전
7	〃	만력 20년 5월 10일 (유, 20년 5월 15일)	제1차 옥포 승첩을 아뢰는 계본(玉浦破倭兵狀)	임, 충, 유, 요, 계, 전
8	〃	만력 20년 6월 14일	제2차 당포·당항포 등 네 곳의 승첩을 아뢰는 계본(唐浦破倭兵狀)	임, 충, 유, 요, 계, 전
9	〃	만력 20년 7월 15일 (충·유, 20년 7월 10일)	제3차 한산도 승첩을 아뢰는 계본(見乃梁破倭兵狀)	임, 충, 유, 요, 계, 전
10	〃	만력 20년 7월 16일 (충, 20년 7월 10일)	군량을 옮겨 조처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移制軍糧狀)	임, 충, 계, 전
11	〃	만력 20년 9월 17일 (충·유, 20년 9월 10일)	제4차 부산포 승첩을 아뢰는 계본(釜山破倭兵狀)	임, 충, 유, 요, 계, 전
12	〃	만력 20년 9월 10일 (충, 20년 9월 1일)	포위됐던 왜병이 도망친 일을 아뢰는 계본(被圍倭兵逃還狀)	임, 충, 요, 계, 전
13	장계(狀啓)	만력 20년 9월 11일 (충, 20년 9월 10일)	정운을 이대원 사당에 배향해주시기를 청하는 장계(請鄭運追配李大源祠狀)	임, 충, 요, 계, 전
14	〃	만력 20년 9월 18일	종이를 올려 보내는 일을 아뢰는 장계(封進紙地狀)	임, 계, 전
15	〃	만력 20년 12월 25일	전쟁 곡식과 진상물을 실어 보내는 일을 아뢰는 장계(裝送戰穀及方物狀)	임, 계, 전
16	〃	만력 20년 9월 25일	전쟁 곡식을 실어 보내는 일을 아뢰는 장계(裝送戰穀狀)	임, 계, 전
17	계본	만력 21년 1월 26일	유황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계본(請賜硫黃狀)	임, 계, 전
18	〃	만력 21년 1월 26일	의승병을 분송해 요충지를 지키는 일을 아뢰는 계본(分送義僧把守要害狀)	임, 충, 계, 전
19	〃	만력 21년 1월 26일	피란민에게 돌산도에서 농사짓도록 명령해주시기를 청하는 계본(請令流民入接突山島耕種狀)	임, 충, 계, 전
20	장계	만력 21년 1월 22일	적의 귀로를 차단하라는 유서를 받았음을 아뢰는 장계 (1)	임, 충, 계

21	〃	만력 21년 1월 25일	적의 귀로를 차단하라는 유서를 받았음을 아뢰는 장계 (2)	임, 충, 계
22	〃	만력 21년 2월 17일	웅천의 적을 수륙 합공할 일을 아뢰는 장계(令水陸諸將直搗熊川狀)	임, 충, 계, 전
23	계본	만력 20년 12월 10일	일족에게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취소해주시기를 청하는 계본(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	임, 충, 유, 계, 전
24	〃	만력 21년 4월 10일 (충, 21년 4월)	일족에게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취소해주시기를 거듭 청하는 계본(申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	임, 충, 계, 전
25	〃	만력 21년 4월 6일 (충, 일자 없음)	적을 무찌른 일을 아뢰는 계본(討賊狀)	임, 충, 유, 요, 계, 전
26	장계	만력 21년 4월 6일	통선 한 척이 전복된 뒤에 죄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뢰는 장계(統船一艘傾覆後待罪狀)	임, 충, 요, 계, 전
27	계본	만력 21년 4월 6일	수군에 소속된 고을의 수령들은 해전에만 전속시켜주시도록 청하는 계본(請舟師屬邑守令專屬水戰狀)	임, 충, 계, 전
28	〃	만력 21년 4월 8일 [충, 21년 4월 초일(初日)]	광양현감 어영담의 유임을 청하는 계본(請光陽縣監魚泳潭仍任狀)	임, 충, 계, 전
29	장계	만력 21년 5월 2일 (충, 일자 없음)	적의 귀로를 차단하라는 유서를 받았음을 아뢰는 장계 (3)	임, 충, 계
30	〃	만력 21년 5월 10일 (충, 5월 10일)	충청도 수군이 계속 후원 오도록 청하는 장계(請湖西舟師繼援狀) (1)	임, 충, 계, 전
31	〃	만력 21년 5월 14일	배를 정비해 적을 무찌르라고 명령하는 유서를 받았음을 아뢰는 장계	임, 충, 계
32	〃	만력 21년 5월 14일 (충, 5월 14일)	충청도 수군이 계속 후원 오도록 청하는 장계(請湖西舟師繼援狀) (2)	임, 충, 계, 전
33	〃	만력 21년 7월 1일	왜선을 구축한 일을 아뢰는 장계(逐倭船狀)	임, 충, 계, 전
34	계본	만력 21년 8월 10일 (유, 21년 5월 14일)	왜군의 정세를 아뢰는 계본(陳倭情狀)	임, 충, 유, 계, 전
35	〃	만력 21년 8월 (충, 8월)	화포를 올려 보내는 일을 아뢰는 계본(封進火炮狀)	임, 충, 계, 전
36	〃	만력 21년 9월 초일	해전과 육전에 관한 일을 자세히 아뢰는 계본(條陳水陸戰事狀)	임, 충, 계, 전
37	〃	만력 21년 8월 (유, 21년 9월 7일)	포로가 됐던 군사가 보고하는 왜군의 정세를 들려드리는 계본(登聞被擄人所告倭情狀)	임, 충, 유, 계, 전
38	〃	만력 21년 윤11월 21일	수군에 소속된 고을에는 육군을 배정하지 말도록 청하는 계본(請舟師所屬邑勿定陸軍狀)	임, 충, 계, 전
39	〃	만력 21년 윤11월 17일 (충, 윤11월 17일)	본영으로 돌아가는 일을 아뢰는 계본(還營狀)	임, 충, 계, 전
40	〃	만력 21년 윤11월 17일	포로가 된 왜인이 말하는 왜군의 정세를 들려드리는 계본(登聞擄倭所告倭情狀)	임, 충, 유, 계, 전
41	장계	만력 21년 윤11월 17일 (충, 윤11월 17일)	어영담을 조방장으로 임명해주시기를 청하는 장계(請以魚泳潭爲助防將狀)	임, 충, 계, 전
42	〃	만력 21년 윤11월 14일	조총을 올려 보내는 일을 아뢰는 장계(封進倭銃狀)	임, 계, 전
43	〃	만력 21년 윤11월 17일 (충, 윤11월 17일)	유황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장계(請下納鐵公文兼賜硫黃狀)	임, 충, 계, 전
44	〃	만력 21년 윤11월 17일 (충, 윤11월 17일)	문신으로서 종사관을 임명해주시도록 청하는 장계(請以文臣差定從事官狀)	임, 충, 계, 전

45	계본	만력 21년 윤11월 17일 (충, 윤11월 17일)	연해안의 군병기를 모두 수군에 전속해주시기를 청하는 계본(請沿海軍兵糧器全屬舟師狀)	임, 충, 계, 전
46	”	만력 21년 윤11월 17일 (충, 윤11월 17일)	둔전을 설치하도록 청하는 계본(請設屯田狀)	임, 충, 계, 전
47	”	만력 21년 12월 29일 (충, 12월 29일)	진중에서 과거 보이는 일을 청하는 계본(請於陣中試才狀)	임, 충, 계, 전
48	”	만력 22년 1월 초일 (충, 22년 1월 1일)	승장의 위조문서를 봉해 올려 보내는 일을 아뢰는 계본(封進僧將僞帖狀)	임, 충, 계, 전
49	장계	만력 22년 1월 초일	배경남을 수군에 소속시켜주시기를 청하는 장계(請以裒慶男屬舟師狀)	임, 충, 계, 전
50	계본	만력 22년 1월 초일 (충, 22년 1월 1일)	수륙군을 바꾸어 방비시키는 일을 살펴 조치하시기를 청하는 계본(請量處水陸換防事狀)	임, 충, 계, 전
51	”	만력 22년 1월 초일	방비군의 결원을 낸 수령을 군법에 의해 처벌하시도록 청하는 계본(關防守令依軍法決罪狀)	임, 충, 계, 전
52	”	만력 22년 1월 17일	진으로 돌아가는 일을 아뢰는 계본(還陣狀)	임, 충, 계, 전
53	”	만력 22년 1월 10일 (충, 22년 1월 19일)	홍양목관을 교체해주시기를 청하는 계본(請改差興陽牧官狀)	임, 충, 계, 전
54	”	만력 22년 1월 16일	수륙군이 서로 징발하는 폐단을 금지해주시기를 청하는 계본(請禁沿邑水陸交侵之弊事狀)	임, 충, 계, 전
55	장달(狀達)	만력 21년 12월 25일	일족에게 대충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아뢰는 장달	임, 충, 계
56	”	만력 21년 12월 29일	진중에서 과거 보이는 일을 청하는 장달(請於陣中試才狀)	임, 충, 계
57	계본 <sup>63</sup>	만력 21년 12월 29일	군량과 무기 등을 옮겨가지 말도록 명령해주시기를 청하는 계본(請沿海軍兵糧器勿令遞移狀)	임, 충, 계, 전
58	달본(達本)	만력 22년 1월 5일	왜적의 정세를 아뢰는 달본(陳倭情狀)	임, 충, 계, 전
59	계본 <sup>64</sup>	만력 22년 1월 5일 (충, 일자 없음)	일족에게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취소해주시기를 거듭 청하는 계본(更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	임, 충, 계, 전
60	달본	만력 22년 1월 10일	진으로 돌아가는 일을 아뢰는 달본(還陣狀)	임, 충, 계, 전
61	장달	만력 22년 1월 15일	적을 무찌르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아뢰는 장달	임, 충, 계
62	계본	(충, 22년 2월 25일)	충청수사에게 빨리 도착하도록 재촉해주시기를 청하는 계본(請忠淸水軍節度使催促到陣狀)	충, 계, 전
63	”	(충, 22년 2월 25일)	지체하는 여러 장수를 처벌해주시기를 청하는 계본(請罪屢留諸將狀)	충, 계, 전
64	”	(충, 22년 3월 10일)	여러 의병장에게 상을 내리시기를 청하는 계본(請賞義兵諸將狀)	충, 전
65	”	(충, 22년 3월 10일)	군량을 조치해주시기를 청하는 계본(請措劃軍糧狀)	충, 전
66	”	(충, 22년 3월 10일)	왜군의 정세를 아뢰는 계본(陳倭情狀)	충, 유, 전
67	”	(충, 22년 3월 10일)	당항포 승첩을 아뢰는 계본(唐項浦破倭兵狀)	충, 유, 전
68	”	(충, 22년 4월 20일) (유, 22년 3월 10일)	왜군의 정세를 아뢰는 계본(陳倭情狀)	충, 유, 전
69	”	(충, 22년 4월 2일)	기한을 어긴 여러 장수를 처벌해주시기를 청하는 계본(請罪過期諸將狀)	충, 전
70	”	(충, 22년 4월 19일)	왜병을 정탐한 내용을 아뢰는 계본(哨探倭兵狀)	충, 전

71	”	(충, 22년 4월 11일)	무과 특별시험을 보인 일을 아뢰는 계본(設武科別試狀)	충, 전
72	달본	(충, 22년 4월 20일)	수군 소속의 여러 장수에게 교대 휴가를 실시한 일을 아뢰는 달본(舟師所屬諸將休番狀)	충, 전
73	계본	(충, 22년 4월 20일)	방비군을 결석시킨 여러 장수를 처벌해주시기를 청하는 계본(請罪關防諸將狀)	충, 전
74	계본 <sup>65</sup>		여도만호 김인영에게 상을 내리시기를 청하는 계본(請賞呂島萬戶金仁英狀)	전
75	장계		조총을 올려 보내는 일을 아뢰는 장계(封進鳥銃狀)	전
76	”		방담 첨사를 선정해 임명해주시기를 청하는 장계(請防踏僉使擇差狀)	전
77	”		충청도 전선을 기한 내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기를 청하는 장계(請忠淸戰船刻期回泊狀)	전
78	”		의원을 보내어 유행병 환자를 구호해주시기를 청하는 장계(請送醫救癘狀)	전

63 『임진장초』(순번 57)에는 달본으로 돼 있으나, 『충민공계초』의 서식에는 계본으로 돼 있다.

64 『임진장초』(순번 59)에는 달본으로 돼 있으나, 『충민공계초』의 서식에는 계본으로 돼 있다.

65 조성도 역주, 『임진장초』(순번 74)에는 장계로 돼 있으나 계본이 올바르다.

# 조선 후기 해유문서와 해유제 고찰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해유문서를 중심으로

임영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로

목차

- I. 서론
- II.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해유문서
- III. 조선시대 해유문서와 해유제
  1. 해유문서와 행이
  2. 해유제
- IV. 결론

## 초록

이 논문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된 해유문서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해유문서와 조선시대의 해유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립해양박물관에는 1785년 윤빈 해유문서 두 건을 포함해 총 여섯 건의 해유문서가 소장돼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1785년 윤빈 해유문서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785년 윤빈 해유문서는 동시에 작성된 것이지만, 실제로 병조로 행이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추정된다. 1796년 김경혁 해유문서를 비롯한 네 건의 해유문서에는 계개 내역이 온전히 남아 있으므로 지방 관아의 재정 실태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 해유문서식과 해유제에 대한 규정은 『경국대전』에 수록돼 있다. 해유문서는 후임관에 의해 작성되는 해유첩정과 관찰사 또는 병마절도사에 의해 작성되는 해유이관 그리고 이조의 조흔을 받기 위해 호조에서 작성하는 해유이관, 마지막으로 해유를 마쳤다는 뜻으로 작성되는 이조의 조흔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해유문서의 작성 방식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경국대전』의 문서식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준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해유문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인사고과제도로는 포폄제가 있는데, 포폄제는 상관으로 하여금 관원의 업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점에 따라 승진과 좌천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해유제는 관원의 재정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재정에 흠축이 있을 경우 흠축난 재정을 보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녹봉을 지급하지 않는 징벌을 가해 국가 재정을 보전하려 한 것이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Haeyu (business succession) documents and Haeyu (business succession) system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centered on the business succession documents that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KNMM) has. A total of six business succession documents including two Yunbin business succession documents in 1785 are owned by the KNMM. Although the Yunbin business succession document in 1785 owned by the KNMM and that own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ere simultaneously drawn up, the one own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estimated to b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Defense (Byeongjo). In the four business succession documents including Kim Gyung-Hyuk's business succession document in 1796, the details of the headings of the documents are completely stated, which will be helpful to the study of local government office's financial

situation.

The regulations on the business succession document forms and the business succession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are found in Gyeongguk Daejeon. The business succession documents can be divided into the business succession report drawn up by the successor, the business succession document drawn up by the governor or Byeongma Jeoldosa, and the business succession document made by the Ministry of Finance (Hojo) to be check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Ijo). The method to draw up the business succession documents tends to more strictly observe the document form of the Gyeongguk Daejeon than the previous period. This is presum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ants to consolidate its administrative power by easily identify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ituation. There is Popyeom system, which is the official's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in addition to the business succession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Popyeom system is a system by which the promotion and demotion of an official is affected through appraising the official's performance. The Haeyu system is evaluating officials'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The Haeyu system is to preserve national finance with a punishment of not paying stipen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the official concerned until the official makes up for the shortage in finance, if the shortage in finance occurs.

**주제어** 국문 해유, 해유문서, 해유장, 조선후기

**Keywords** Haeyu, Haeyu documents, Letter of Haeyu (Transfer), The Late Joseon Period

## 1. 서론

조선시대에 관서(官署)의 보고·명령 체계는 문서를 통해 구현됐으며, 이는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에 규정한 문서식을 따른 것이다. 전임 관원과 후임 관원의 인수인계 문서라 할 수 있는 해유문서(解由文書)는 관원이 체직(遞職)될 때 후임 관원이 작성한다. 그러나 단순한 인수인계 문서와 달리 몇 차례의 행이(行移) 과정을 거치며, 문서의 행이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체직된 관원에게 전달된다.

해유문서는 해유제도에 근거해 작성되며, 해유제도와 해유문서 연구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임민혁은 조선 초기 해유제의 성립과 국가 재정, 인사고과의 기능적 측면<sup>1</sup>을 규명했고, 조선 후기 해유 행정에서 해유문서의 기재 양식과 실제<sup>2</sup>를 검토했다. 조미은은 주로 조선 후기 지방 수령의 해유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해유문서의 행이 과정과 문서식을 고찰<sup>3</sup>했다. 이외에 정구복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해유제도에 대해 당시까지 수행된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정의<sup>4</sup>를 내렸으며, 몇몇 연구자에 의해 해유문서에 대한 고찰<sup>5</sup>이 이루어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조선시대 해유문서』<sup>6</sup>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 소장된 해유문서의 실물 이미지와 해제를 제공해 해유문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논문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된 해유문서를 소개하고, 이들 문서의 내용과 행이 과정을 고찰해볼 것이다. 국립해양박물관에는 1785년(정조 9) 서북병마첨절제사(西北兵馬僉節制使) 윤빈(尹鑣) 해유문서를 비롯해 총 다섯 건이 소장돼 있는데, 김경혁(金慶赫) 해유문서 외에는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해유문서는 모두 조선 후기에 작성된 것이며, 이 가운데 윤빈 해유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계개(計開)<sup>7</sup> 내용이 점련돼 있고, 이승보 해유문서와 민영수 해유문서에서는 이조의 조흘(照訖)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해유문서의 작성과 행이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타 기관에 소장된 동일 인물의 해유문서와 비교, 검토해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해유문서와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1 임민혁, 「조선 초기 해유제의 성립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3, 조선시대사학회, 2005.

2 임민혁, 「조선 후기 해유 행정의 문서식과 그 실제」, 『고문서연구』 28, 한국고문서학회, 2006.

3 조미은, 「19세기 해유문서와 중기(重記)에 대한 사례 연구: 영월부사 해유문서와 『윤등내중기(尹等內重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0, 한국고문서학회, 2012; 조미은, 「조선 후기 수령의 해유문서 형식과 해유 절차 연구」, 『고문서연구』 52, 한국고문서학회, 2018.

4 정구복, 「고문서 용어 풀이 '해유문서」, 『고문서연구』 40, 한국고문서학회, 2012.

5 김윤아, 「김경혁의 위도진수군동첨절제사 해유문서」, 『해양문화재』 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김효경·이혜은, 「해유문서를 통해 본 18세기 서북진의 군비 실태」, 『군사(軍史)』 9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조선시대 해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7 조선시대 공문서 등에서 물목 등을 나열할 때 첫머리에 표시하는 말.

해유문서의 문서식과 해유제의 일면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 II.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해유문서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해유문서는 총 다섯 건이며, 이 가운데 1785년 윤빈 해유문서는 병조와 호조로 이관된 것이 모두 남아 있으므로 엄밀히 따지면 여섯 건이다. 여기서는 이들 해유문서를 해유 당사자별로 나누어 문서의 작성과 문서 행이 과정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해유문서 가운데 윤빈과 김경혁 해유문서는 각각 국립중앙도서관과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도 소장돼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해유문서는 모두 조선 후기에 작성된 것이다. 해유문서는 후임 관에 의해 두 부가 작성돼 해당 관할지의 관찰사(觀察使)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게 상송(上送)되고 이들은 문서를 검토한 후 각각 호조와 병조로 이문(移文)한다. 다음은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된 해유문서의 목록이다.

표 1.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해유문서

연번	문서명 (자료 번호)	작성 연도 (년)	해유문서 작성자		수취	크기 (세로×가로 cm)
			해유첨정(解由稟呈)	해유이관(解由移關)		
1-1	윤빈(尹鑣) 해유문서 (신해양301-1)	1785	서북병마첨절제사 김세휘(西北兵馬僉節制使 金世徽)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민의혁(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 閔義赫)	병조(兵曹)	80.5×82.0
1-2	윤빈(尹鑣) 해유문서 (신해양301-2)	1785	서북병마첨절제사 김세휘(西北兵馬僉節制使 金世徽)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민의혁(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 閔義赫)	호조(戶曹)	80.5×82.4
2	김경혁(金慶赫) 해유문서 (해양101)	1796	전라도행위도진수군 동첨절제사 용득주(全羅道行嶠島鎮水軍同僉節制使 龍得珠)	행 전라우도수군절도사 이명규(行全羅右道水軍節度使 李明奎)	호조	105.0×315.0
3	이승보(李承輔) 해유문서 (해양2243)	1860	영흥대도호부사 유태동(永興大都護府使 柳泰東)	함경도관찰사 겸 도순찰사 조득림(咸鏡道觀察使兼都巡察使 趙得林)	호조	52.3×521.7
4	이용화(李龍和) 해유문서 (신해양446)	1889	성주목사 김갑수(星州牧使 金甲秀)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박규희(慶尙右道兵馬節度使 朴桂熙)	내무부(內務府)	104.6×890.3
5	민영수(閔泳壽) 해유문서 (해양1311)	1893	창성도호부사 이상협(昌城都護府使 李象協)	행 평안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도순찰사관향사평양부윤 친군서영외사 민병석(行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親軍西營外使 閔丙奭)	호조	62.5×506.7

### 1. 1785년 윤빈 해유문서

윤빈(尹鑣, ?~?)이 서북 병마첨절제사에 임명된 사실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783년(정조7) 12월 29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8</sup> 그는 1783년 당시 중6품의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에서 중3품의 외방 군직인 서북병마첨절제사로 임명됐으며 530일 동안 재임했다. 『승정원일기』 1785년(정조9) 6월 17일 기사<sup>9</sup>에는 북병사(北兵使) 민의혁(閔義赫, ?~?)이 포폄계본(褒貶啓本)을 올려 윤빈이 상부의 지시 없이 함부로 자리를 떠난 사실을 보고하면서 윤빈을 경책(警責)하도록 건의했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윤빈이 천리(擅離)로 견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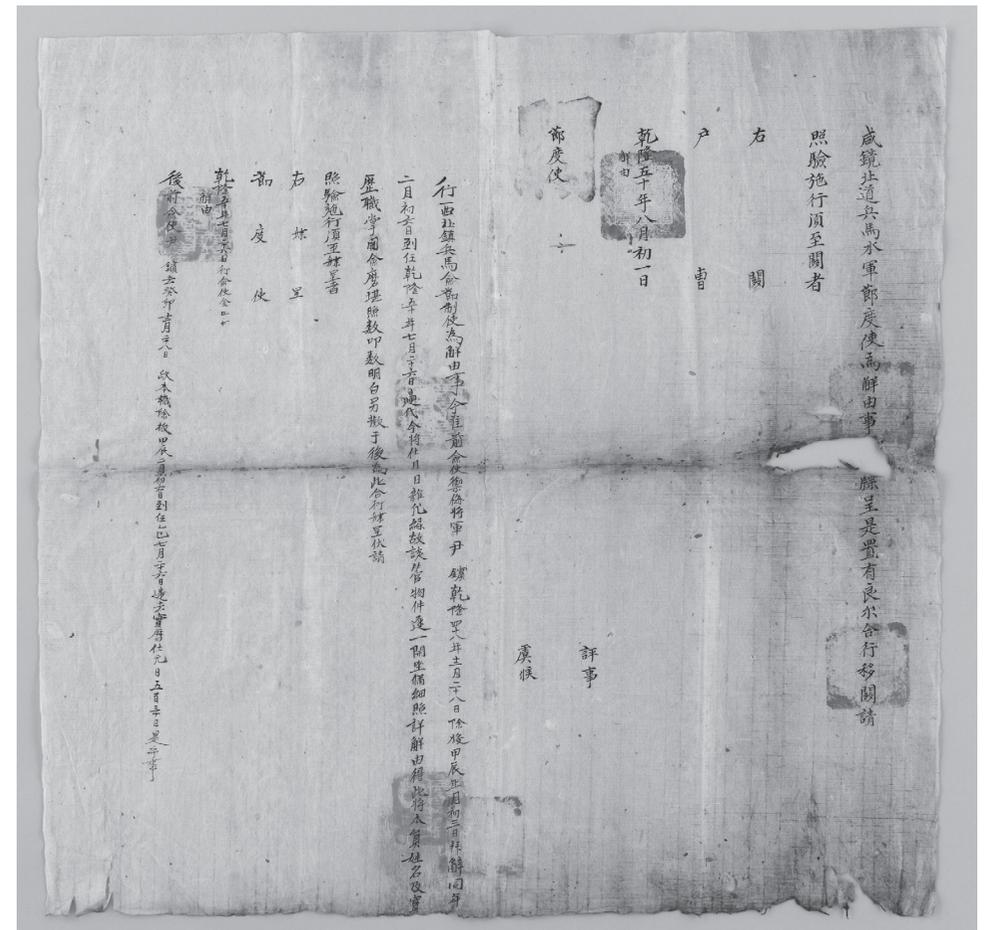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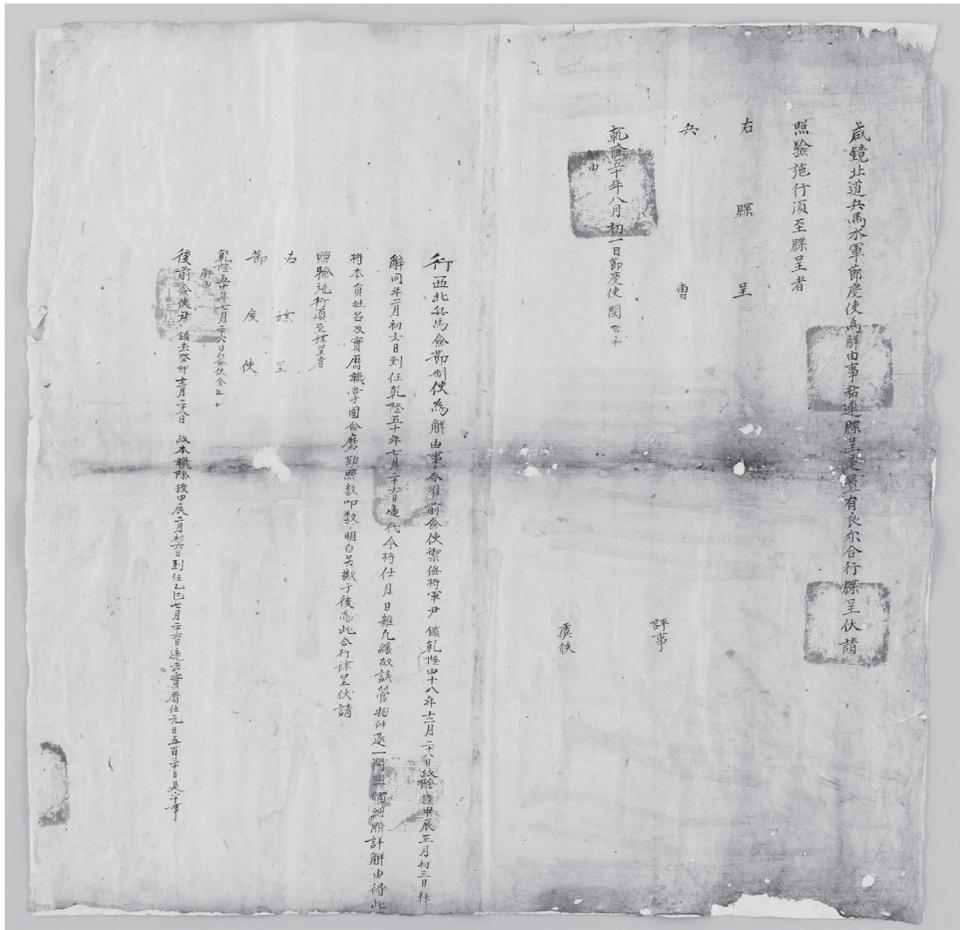


그림 1. 윤빈 해유문서(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 80.5×82.0cm (신해양301-1)

8 “癸卯十二月二十九日辰時, 上御誠正閣, 守令·邊將初入仕人, 同爲入侍時, (……) 西北僉使尹鑣.” 『승정원일기』 1783년(정조7) 12월 29일 21번째 기사.

9 “金蒼者, 以兵曹言啓曰, 拆見諸道褒貶啓本中, 則北兵使閔義赫啓本中, 西北僉使尹鑣, 以擅離宜警爲目, 則邊將之擅離, 宜置下考, 而置諸中考. 全羅右水使鄭觀采褒貶啓本中, 邊將無一人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 竝推考警責, 西北僉使尹鑣, 下考施行,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1785년(정조9) 6월 17일 22번째 기사.



윤빈 해유문서(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 80.5×82.4cm (신해양301-2)

받아 체차(遞差)됐다는 점은 같은 해 6월 24일 병비(兵批)에서 윤빈의 후임관인 김세휘(金世徽, ?~?)가 서북병마첨절제사로 임명됐다는 사실<sup>10</sup>에서도 알 수 있다.

해유문서는 후임관인 김세휘가 작성해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 민의혁에게 올려 보낸 첩정(牒呈)을 시작으로 문서의 행이가 이루어진다. 해유문서는 관찰사와 병마절도사에게 각각 한 부씩을 작성해 상송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김세휘의 첩정 두 부 모두가 민의혁에게 상송된 것은 함경도는 관찰사가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겸하기 때문이다. 김세휘는 1785년 7월 26일 첩정을 작성해 민의혁에게 상송했고, 민의혁은 같은 해 8월 1일 병조와 호조에 각각 첩정과 관(關)을 작성해 올려 보냈다. 다음은 병조와 호조로 상송된 윤빈 해유문서와 원문을 정서한 것이다.

10 “金世徽爲西北僉使.” 『승정원일기』 1785년(정조 9) 6월 24일 7번째 기사.

#### 윤빈 해유문서 (신해양301-1)

[1] 서북병마첨절제사 김세휘 첩정

- ① 行西北兵馬僉節制使爲解由事今准前僉使禦侮將軍尹鑣乾隆四十八年十二月二十八日政除授甲辰正月初三日拜
- ② 辭同年二月初六日到任乾隆五十年七月二十六日遞代今將仕月日離凡緣故該管物件逐一開坐備細照詳解由得此
- ③ 將本員姓名及實曆職掌圓僉磨勘照數叩數明白另擬于後爲此合行牒呈伏請
- ④ 照驗施行須至牒呈者
- ⑤ 右牒呈
- ⑥ 節度使
- ⑦ 乾隆五十年七月二十六日行僉使金 [着名][着押]
- ⑧ 解由
- ⑨ 後前僉使尹鑣去癸卯十二月二十八日政本職除授甲辰二月初六日到任乙巳七月二十六日遞去實曆仕元日五百三十日是乎事

#### [2]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민의혁 첩정

- ① 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爲解由事 粘連牒呈是置有良尔合行牒呈伏請
- ② 照驗施行須至牒呈者
- ③ 右關
- ④ 兵曹 評事<sup>11</sup>
- ⑤ 乾隆五十年八月初一日節度使閔 [着名][着押]
- ⑥ 解由
- ⑦ 虞候

#### 윤빈 해유문서 (신해양301-2)

[1] 서북병마첨절제사 김세휘 첩정

- ① 行西北兵馬僉節制使爲解由事今准前僉使禦侮將軍尹鑣乾隆四十八年十二月二十八日政除授甲辰正月初三日拜辭同年
- ② 二月初六日到任乾隆五十年七月二十六日遞代今將仕月日離凡緣故該管物件逐一開坐備細照

11 병마평사(兵馬評事)의 약칭.

詳解由得此將本員姓名及實

- ③ 曆職掌圓僉磨勘照數叩數明白另擬于後爲此合行牒呈伏請
- ④ 照驗施行須至牒呈者
- ⑤ 右牒呈
- ⑥ 節度使
- ⑦ 乾隆五十年七月二十六日行僉使金 [着名][着押]
- ⑧ 解由
- ⑨ 後前僉使尹鑽去癸卯十二月二十八日政本職除授甲辰二月初六日到任乙巳七月二十六日遞去實曆仕元日五百三十日是乎事

[2]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민의혁 관

- ① 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爲解由事 ■■■(粘連)牒呈是置有良尔合行牒呈伏請
- ② 照驗施行須至牒呈者
- ③ 右牒呈
- ④ 戶曹 評事
- ⑤ 乾隆五十年八月初一日節度使閔 [着名][着押]
- ⑥ 解由
- ⑦ 觀察使 [着押][關] 虞候

두 해유문서는 모두 동일한 인물이 작성한 것이며, 작성 내용도 동일하다. 다만 한 행(行)의 문자 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경국대전』 해유이관식에 따르면 해유이관의 문서 종류는 작성 관원의 직품(職品)에 따라 첩정 또는 관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 민의혁의 당시 직품은 중2품이므로 정2품 병조판서(兵曹判書)와 호조판서(戶曹判書)에게 모두 첩정을 보내야 하지만, 호조에는 관문(關文)을 보냈다.

1785년 윤빈 해유문서는 해유첩정과 해유이관이 온전히 접련돼 있으나 계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런데 병조에 제출된 자료 번호 신해양301-1의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해유첩정의 왼쪽으로 접련된 문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접련된 문서는 어디로 갔을까?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윤빈 해유문서<sup>12</sup>에서 의문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

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유문[解由文(청구 기호: 古文貴2102.1-139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문서명은 해유문으로 돼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윤빈 해유문서로 지칭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김효경과 이해은에 의해 연구된 적이 있다. 김효경·이해은, 위의 논문, 2016.

표 2. 윤빈 해유문서 (신해양3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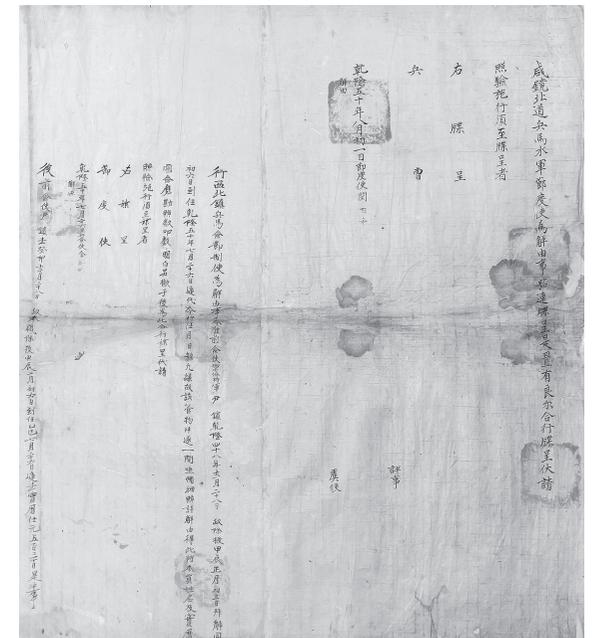
구분	해유첩정	해유이관
문서명	첩정	첩정
작성자	김세휘	민의혁
관직명	서북병마첨절제사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작성 일자	1785년 7월 26일	1785년 8월 1일
수취처	절도사	병조

표 3. 윤빈 해유문서 (신해양301-2)

구분	해유첩정	해유이관
문서명	첩정	관
작성자	김세휘	민의혁
관직명	서북병마첨절제사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작성 일자	1785년 7월 26일	1785년 8월 1일
수취처	절도사	호조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윤빈 해유문서



1785년 윤빈 해유문서, 80.06×89.5cm (청구 기호: 古文貴2102.1-1397)

다.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윤빈 해유문서다.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윤빈 해유문서는 인장의 위치도 동일한데, 두 문서의 차이는 문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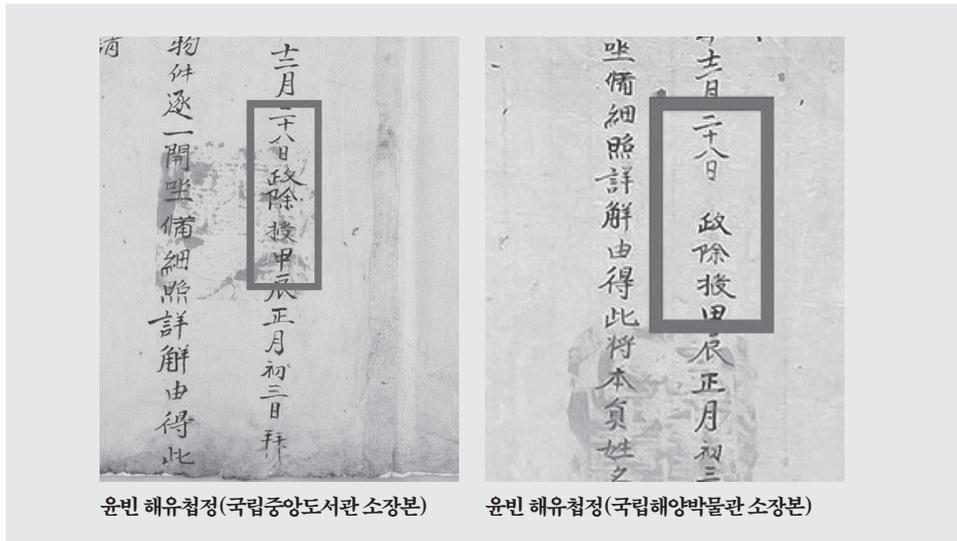


그림 3. 윤빈 해유첩정 비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십이월이십팔일정제수(十二月二十八日政除授)”를 기재할 때 작성일과 ‘정제수’ 사이를 격자(隔字)한 것과 달리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에는 격자가 돼 있지 않다. 조선의 공문서는 이미 상급기관으로 발송했다라도 중간에 문서의 오류를 확인하거나 추가로 보고할 내용이 발생할 경우 급히 과발을 보내 새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했다. 그러므로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의 경우 기재 방식에 위식(違式)이 있어 새로 작성됐고 호조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병조에 제출된 것은 계개 내역이 점련돼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은 폐기되지 않고 전존됐다.

## 2. 1796년 김경혁 해유문서

김경혁(金慶赫, ?~?)은 안의첨사(安義僉使), 경복궁위장(景福宮衛將)을 거쳐 1793년(정조 17) 12월 위도진첨사(蔚島鎭僉使)에 임명됐다. 이후 1796년(정조 20)에 체차되기까지 626일을 근무했으며, 위도진첨사 이후 행적은 자세하지 않다. 김경혁의 후임자인 용득주(龍得珠, 1760~?)는 1796년 1월 위도만호에 임명됐고, 같은 해 3월 해유첩정을 작성해 전라우도수군절도사 이명규(李明奎)<sup>13</sup>에게 올려 보냈다. 이명규는 용득주의 첩정을 받고 4월 17일 첩

13 이명규(李明奎, ?~?).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이억기(李億祺, 1561~1597)의 후손으로, 1795년(정조 19) 12월 전라우도수군절도사에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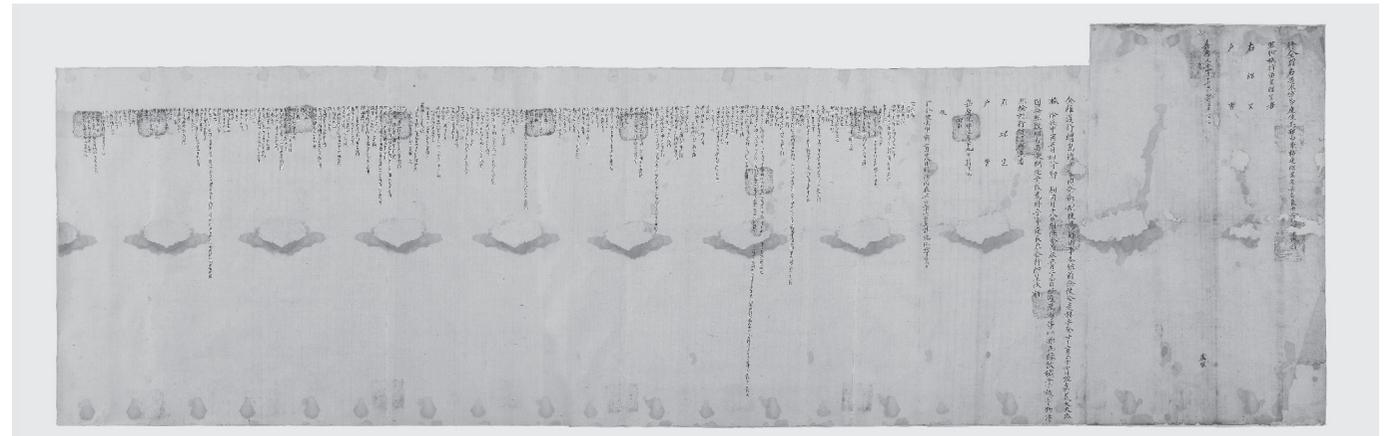


그림 4. 1796년 김경혁 해유문서, 105.0×315.0cm (해양101)

표 4. 김경혁 해유문서

구분	해유첩정	해유이관
문서명	첩정	첩정
작성자	용득주	이명규
관직명	전라도 행 위도진수군동첨절제사	행 전라우도수군절도사
작성 일자	1796년 3월 29일	1796년 4월 17일
수취처	호조	호조
계개	인신(印信) 군기(軍器) 전선(戰船)	

정을 작성해 호조로 상송했다.

다음은 김경혁 해유문서의 이미지와 문서를 정서한 것이다. 다만 계개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 [1] 전라도 행 위도진수군동첨절제사 용득주 첩정

- ① 全羅道行蔚島鎭水軍同僉節制使爲解由事本鎭前僉使金慶赫去癸丑十二月二十七日政嘉義大夫本
- ② 職 除授甲寅正月初八日辭 朝同月十八日到任今丙辰正月二十四日徑遞爲有等以雜凡緣故職掌該管物件
- ③ 圓簽照數明白另擬開坐于後爲臥乎事是良尔合行牒呈伏請
- ④ 照驗施行須至牒呈者
- ⑤ 右牒呈
- ⑥ 戶曹

- ⑦ 嘉慶元年三月二十九日節制使龍
  - ⑧ 解由
  - ⑨ 後
  - ⑩ 前僉使去甲寅正月十八日到任丙辰正月二十四日支計元仕六百二十六日
- [이하 생략]

## [2] 행 전라우도수군절도사 이명규 첩정

- ① 行全羅右道水軍節度使爲解由事粘連牒呈是去有良尔合行牒呈伏請
- ② 照驗施行須至牒呈者
- ③ 右牒呈
- ④ 戶曹
- ⑤ 嘉慶元年四月十七日行節度使李 [著名] [着押]
- ⑥ 解由 虞候

용득주가 작성한 첩정은 관찰사에게 보내져야 하는데, 해유첩정에는 수취처가 호조로 돼 있지만 실제 제출처는 전라우도수군절도사다.

호조로 올라간 김경혁의 해유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돼 병조에 제출된 문서는 현재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청구 기호: 해사02 710607-000)에도 소장돼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첩정에도 수취처는 병마절도사가 아닌 병조로 돼 있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본은 해유기관의 손상이 심해 원문을 확인하기 어렵다.

김경혁 해유문서의 계개 내용은 이미 한 차례 연구된 적이 있으며,<sup>14</sup>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본에도 계개 내용이 점련돼 전하므로 위도진의 재정 실태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 3. 1860년 이승보 해유문서

이승보(李承輔, 1814~1881)의 자는 치강(稚剛, 致剛)이고 시호는 문헌(文憲)이며 본관은 전주(全州)다. 1845년(헌종 11)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이조참판(吏曹參判),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등을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와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이르렀다.

이승보는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로 있다가 1858년(철종 9) 4월 15일 영흥대도호부

사에 임명됐으며,<sup>15</sup> 1860년(철종 11) 1월 2일 후임관으로 유태동(柳泰東)<sup>16</sup>이 임명되기까지 573 일을 재임했다. 후임관의 해유첩정은 1860년 2월 21일 작성됐고, 상관인 함경도관찰사 조득림(趙得林)<sup>17</sup>의 해유기관은 같은 달 25일에 작성됐다. 함경도관찰사 조득림의 관에 따라 호조에서는 계개 내용에 흠축(欠縮)이 없으므로 해유문서를 성출(成出)해줄 것을 이조에 요청했고, 이조에서는 같은 해 3월 29일 조흔해 본관(이승보)에게 돌려보내도록 했다. 이로써 이승보의 해유는 모두 완료돼 해유문서는 본인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이승보 해유문서에 점련된 계개는 그 길이가 상당하며, 이조의 조흔해 마쳤지만 병조에 제출된 문서는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은 이승보 해유문서의 이미지와 문서 내용을 정서한 것이다.

## [1] 영흥대도호부사 유태동 첩정

- ① 永興大都護府使爲解由事今準前府使李承輔 咸豐八年四月十五日 致嘉善大夫本職 除授五月初五日
- ② 辭 朝同月二十一日到任得此將內實歷及雜凡緣故職掌該管物件圓僉磨勘照數叩籌明白另款開坐于後
- ③ 爲此合行牒呈伏請
- ④ 照驗施行須至牒呈者
- ⑤ 右牒呈
- ⑥ 都巡察使
- ⑦ 咸豐十年二月二十一日行府使柳
- ⑧ 解由
- ⑨ 後計開
- ⑩ 一改名無
- ⑪ 一咸豐八年四月十五日 政嘉善大夫本職 除授五月初五日辭 朝同月二十一日到任 咸豐十年正月初二日
- ⑫ 政遞職實任元日五百七十三日
- ⑬ 一病患無

15 “李承輔爲永興府使.” 『승정원일기』 1858년(철종 9) 4월 15일 24번째 기사.

16 유태동(柳泰東, 1792~?).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공림(孔臨)이다. 1837년(헌종 3) 식년시 병과 7위로 급제했다.

17 조득림(趙得林, 1800~?).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덕경(德卿)이다. 조제만(趙濟晩)의 아들로, 1831년(순조 31) 식년시 문과 을과로 급제해 고종 즉위 후 공조판서(工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등을 역임했다.



표 6. 이승보 해유문서 계개 목록

구분	해유첩정	해유이관	해유이관
1	군자창전류고(軍資倉前留庫)	9	진헌곡전류고(進獻穀前留庫)
2	전세별치전류고(田稅別置前留庫)	10	감영곡전류고(監營穀前留庫)
3	병자별합곡전류고(丙子別合穀前留庫)	11	영진곡전류고(營賑穀前留庫)
4	상진정전류고(常賑廳前留庫)	12	급대곡전류고(給代穀前留庫)
5	상진별곡전류고(常賑別穀前留庫)	13	양무곡전류고(養武穀前留庫)
6	교제산재전류고(交濟散在前留庫)	14	별진곡전류고(別賑穀前留庫)
7	구치전류고(久置前留庫)	15	본완곡전류고(本完穀前留庫)
8	■진정전류고(■賑廳前留庫)	16	본부보역곡전류고(本府補役穀前留庫)

『경국대전』에 규정된 해유문서식을 준수하면서 계개 내용 가운데 개명(改名) 내용을 비롯한 재임 기간 동안의 전곡 출납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병조로 제출된 다른 한 건의 해유문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호조에서 이조로 보낸 관문과 이조의 조흔이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4. 1889년 이용화 해유문서

이용화(李龍和, 1867~1919)는 1886년(고종 23) 황해도 서흥도호부사(瑞興都護府使)로 있다가 3월에 성주목사(星州牧使)였던 김상봉(金商鳳, 1819~?)<sup>19</sup>과 자리를 바꾸어 성주목사에 임명됐다. 그리고 1888년(고종 25) 8월 17일 금산군수(錦山郡守) 김갑수(金甲秀, ?~?)와 상환(相換)됐다. 1886년(고종 23) 5월 17일 도임해 1888년(고종 25) 8월 17일 정체(政遞)되기까지 성주목사로 역임한 일자는 879일이다. 이 가운데 국기(國忌)로 인해 100일을 제하고 실제 779일을 근무했다.

다음은 이용화 해유문서의 이미지와 정서한 내용이다.

##### [1] 성주목사 김갑수 첩정

- ① 星州牧使爲解由事今準前牧使 ■ ■ ■ [李龍和]名關內當職於丙戌參月貳拾肆日以通訓大夫本職除授除辭朝伍月拾 ■ ■ ■
- ② 戊子捌月拾柒日政遞任今將歷事日月及雜凡緣故職掌該管物件備細照詳解由成貼本員姓名到任實歷雜凡緣故職掌
- ③ 物件圓倉磨勘照數叩籌明白另款開坐于後爲此具呈

19 김상봉(金商鳳, 1819~?). 본관은 경주(慶州). 음관(陰官)으로 관직에 진출해 홍주목사(洪州牧使), 성주목사(星州牧使)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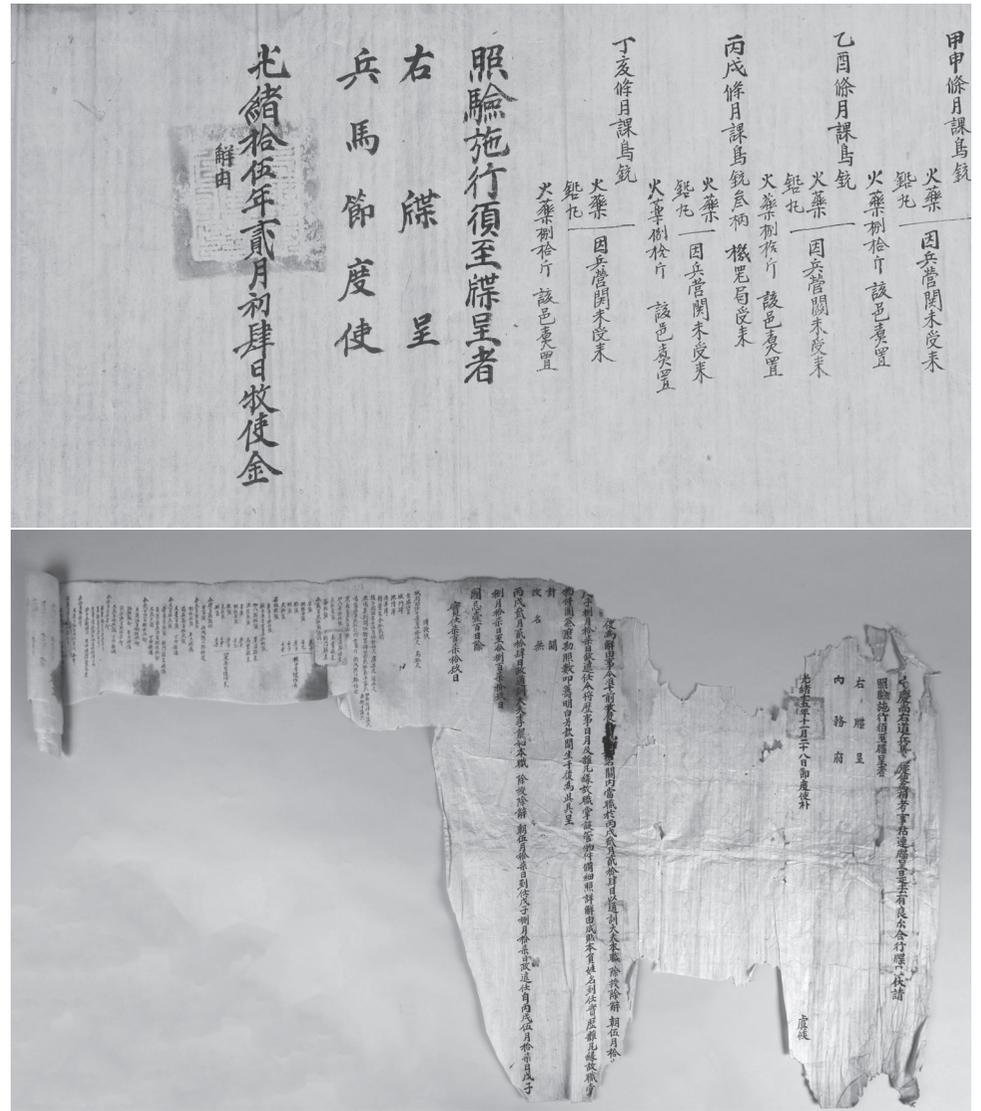


그림 6. 1889년 이용화 해유문서, 104.6×890.3cm (신해양446)

- ④ 計關
- ⑤ 改名無
- ⑥ 丙戌參月貳拾肆日政通訓大夫李龍和本職除授除辭朝伍月拾柒日到任戊子八月拾七日政遞任自丙戌伍月拾柒日戊子
- ⑦ 捌月拾柒日至合捌百柒拾玖日
- ⑧ 國忌日百日除
- ⑨ 實仕柒百柒拾玖日

- ⑩ [중략]
- ⑪ 照驗施行須至牒呈者
- ⑫ 右牒呈
- ⑬ 兵馬節度使
- ⑭ 光瑞拾伍年貳月初肆日牧使金
- ⑮ 解由

[2] 수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박규희(朴珪熙) 첩정

- ①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爲相考事粘連牒呈是去有良尔合行牒呈伏請
- ② 照驗施行須至牒呈者
- ③ 右牒呈
- ④ 內務府
- ⑤ 光緒十五年十一月二十八日節度使朴
- ⑥ 相考處候

문서의 상태를 살펴보면, 해유첩정에 이용화의 이름을 먹으로 삭제한 흔적이 있고 계개를 기재한 종이 아랫부분이 도할(刀割)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갑수는 1889년 2월 4일 해유첩정을 작성했는데, 이용화가 체임된 이후 6개월여가 지난 후였다. 게다가 박규희(朴珪熙)<sup>20</sup>의 해유이관 또한 9개월여가 지난 11월 28일 작성됐다. 이전의 해유문서에서 비교적 빠르게 문서 행정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시일이 상당히 지체된 것이다. 계개를 계관(計關)으로 표기한 것은 개(開)와 관(關)의 자체가 유사해 오기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1</sup>

이용화 해유문서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갑수가 작성한 해유첩정은 『경국대전』의 해유첩정식을 비교적 잘 준행했다.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박규희의 첩정은 수취처가 내무부(內務府)인데, 내무부는 1885년(고종 22) 설치된 관청으로 군사·중앙 행정 등의 사무를 담당했으며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했다. 당시 병조가 존속했으나 해유문서의 행정 업무는 내무부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22</sup>

계개는 크게 전수질(傳授秩), 군정질(軍丁秩), 유음월과질(流音月課秩)로 구분해 작성했다.

20 박규희(朴珪熙, 1840~?). 본관은 밀양(密陽), 자(字)는 희서(希瑞)다.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진출했다.

21 앞서 살펴본 윤빈 해유문서와 같이 문서 내용에 오기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문서가 내무부로 제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22 내무부가 설치된 이후 병조로 이관됐던 해유문서를 고찰하면 해유문서의 행정을 담당했던 관서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이용화 해유문서

구분	해유첩정	해유이관
문서명	첩정	첩정
작성자	김갑수	박규희
관직명	성주목사	수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작성 일자	1889년 2월 4일	1889년 11월 28일
수취처	병마절도사	내무부
계개	전수질(傳授秩) 군정질(軍丁秩) 유음월과질(流音月課秩)	

전수질은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은 물품 내역인데, 성주성(星州城) 성곽의 크기, 성문 수, 우물 수 등을 비롯해 상세하게 기록했고, 물품 아래에는 파손된 것과 새로 마련한 것 등 이전에 발생한 손실과 보수 내역을 해당 연도의 간지와 함께 기재했다. 군정질은 성주목의 군사 수를 군별(軍別)로 분류해 각 소속 군의 종류와 인원수를 기재했다. 말미에 책을 간행하는 데 동원한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간책외인(刊冊外人)’ 조목이 있는데, 조선 후기 지방 관아의 출판 문화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유음월과질이 기재돼 있다. ‘유음’은 이두로 ‘홀남’이라 발음하며, 조선에서 조세를 수거할 때 각 고을 아전이 조세대장에서 베껴낸 초안을 이르는 말이다. ‘월과’는 월과군기(月課軍器)의 줄인 말로 추정된다. 다음은 유음월과질의 내용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경신조(庚申條) 월과조총(月課鳥銃) 11자루 내  
 3자루 총용청(摠戎廳) 미수래(未受來)  
 8자루 군기시(軍器寺) 수래(受來)  
 화약(火藥) 더 구비해 모두 145근(斤) |  
 연환(鉛丸) 더 구비해 모두 16,030개(箇) | 총용청 수래  
 신유조(辛酉條) 월과조총 |  
 화약 | 총용청 미수래  
 연환 12,130개(介) 총용청 수래

임진왜란 이후 조총·화약·연환(鉛丸)을 각 읍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 상납하도록 한 각 읍월과군기법(各邑月課軍器法)<sup>23</sup>에 따라 각 해에 상납한 조총 등의 수량을 기재한 것이다. 1860

23 조선왕조실록사전 참조.

년(철종 11)부터 1887년(고종 24)까지의 내역을 연도순으로 기재했다.

1889년 이용화 해유문서는 조흔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료적 아쉬움이 있으나, 19세기 후반 성주목의 군기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료적 의의가 있다.

### 5. 1893년 민영수 해유문서

민영수(閔泳壽, 1842~1900)의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자는 덕로(德老)다. 1882년(고종 19) 문과 별시(別試) 병과(丙科) 8위로 관직에 진출했으며, 1891년(고종 28) 6월 창성부사(昌城府使)에 임명됐다.<sup>24</sup> 후임관인 이상협(李象協)은 1893년(고종 30) 3월 30일 창성부사에 임명돼 같은 해 5월 26일 해유문서를 작성했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은 관찰사 민병석(閔丙奭)<sup>25</sup>을 거쳐 호조로 이문된 것이다.

다음은 민영수 해유문서의 이미지와 정서한 내용이다.

#### [1] 행 창성도호부사 이상협 첩정

- ① 行昌城都護府使爲解由事今準通政大夫前府使閔泳壽光緒十七年六月二十一日散政本職
- ② 除授十七年八月二十六日禮任暑事至光緒十九年五月二十六日遞代得此將本員姓名及到任實歷月
- ③ 日改 檢會得與本員相同外其餘任內實歷及雜凡緣故職掌該管物件圓僉磨勘照數叩
- ④ 籌明白另關開坐于後爲此合行牒呈伏請
- ⑤ 照驗施行須至牒呈者
- ⑥ 右牒呈
- ⑦ 都巡察使
- ⑧ 光緒十九年五月二十六日行府使李
- ⑨ 解由
- ⑩ 計開
- ⑪ 改名無
- ⑫ 告暇患病無
- ⑬ 被劾無

24 “閔泳壽爲昌城府使.” 『승정원일기』 1891년(고종 28) 6월 22일 16번째 기사.

25 민병석(閔丙奭, 1858~1940).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경소(景召)다. 1879년(고종 16) 문과에 입격해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친 후 1889년(고종 26) 11월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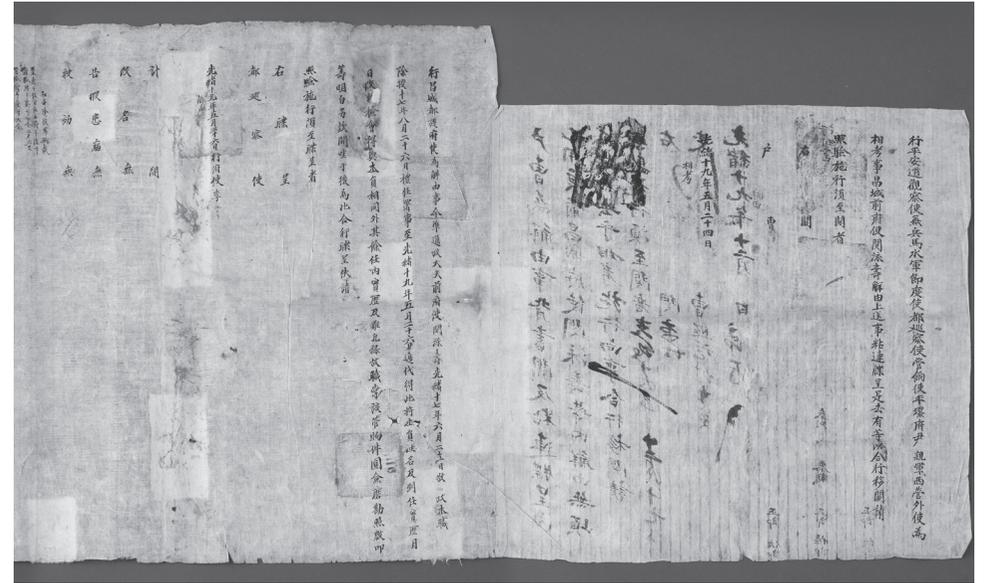


그림 7. 1893년 민영수 해유문서, 62.5×506.7cm (해양1311)

[이하 생략]

#### [2] 행 평안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민병석 관

- ① 行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親軍西營外使爲
- ② 相考事昌城前府使閔泳壽解由上送事粘連牒呈是去有等以合行移關請
- ③ 照驗施行須至關者
- ④ 右 關
- ⑤ 戶 曹
- ⑥ 光緒十九年五月二十四日
- ⑦ 相考
- ⑧ 兼都巡察使 [着押] [關]

#### [3] 호조 관(\*밑줄은 이조의 조흔)

- ① 戶曹爲解由事背書關及粘連牒呈內
- ② 乙用良前昌城府使閔泳壽等內解由無煩
- ③ 成出爲去乎相考施行向事合行移關請
- ④ 照驗施行須至關者 光緒十九年十二月十七日\*

- ⑤ 右 關 吏 曹\*
- ⑥ 吏 曹 照 訖 付 本 員\*
- ⑦ 光 緒 十 九 年 十 二 月 日 郎 廳 [ 着 押 ]\*
- ⑧ 正 郎 佐 郎
- ⑨ 判 書 [ 關 ] [ 着 押 ] 參 判 參 議 正 郎 佐 郎
- ⑩ 正 郎 左 郎

민영수 해유문서는 해유이관의 작성 일자가 해유첩정의 작성 일자인 5월 26일보다 앞선 5월 24일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추측건대 문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일자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협이 도입해 작성한 해유첩정은 평안도관찰사 민병석에게 올려졌고 민병석은 해유이관을 작성해 호조로 상송했다. 앞서 살펴본 이용화 해유문서 중 박규희의 해유첩정은 병조가 아닌 내무부로 행이됐지만, 민영수 해유문서는 여전히 호조와 이조로 이관됐다. 병조로 행이되는 해유문서만 내무부에서 담당하고 호조로 행이되는 문서는 여전히 호조에서 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이 시기 해유문서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내무부의 설치 이후부터 1894년 갑오개혁으로 육조가 혁파되기까지 작성된 해유문서를 고찰한다면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영수 해유문서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역봉수(初亦逢授)와 신관교부(新官交付)에 기재된 구체적 내역은 여섯 가지로, 전곡질(錢穀秩)·제기질(祭器秩)·제진질(祭賑秩)·서책질(書冊秩)·사단제기질(社壇祭器秩)·여단제기질(厲壇祭器秩)이 그것이다. 초역봉수는 민영수가 전임자에게서 처음 인수인계할 때 관아에 있던 물품이며, 신관교부는 후임자인 이상협이 도입한 후 민영수에게서 전해 받은 것이다. 앞서 살펴본

표 8. 민영수 해유문서 (\*는 필자가 이해를 위해 원문을 편집한 것)

구분	해유첩정	해유첩정	해유이관
문서명	첩정	관	관
작성자	이상협	민병석	호조
관직명	행 창성도호부사	행 평안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관향사 평양부윤 친군서영외사	관서
작성 일자	1893년 5월 26일	1893년 5월 24일	1893년 12월
수취처	도순찰사	호조	이조(12월 17일 조홍)
계개	개명무(改名無) 고가환병무(告假患病無) 피핵무(被劾無) 초역봉수(初亦逢授)* 신관교부(新官交付)*		

원문: “初亦逢授軍餉載, 新官交付軍餉載”

대로 군기 등 군사 관련 물품은 병조로 이관하는 해유문서에 기재되므로 본 해유문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전곡·제기 등 창성도호부의 재정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관문서는 후기로 갈수록 문서식이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해유문서에서는 오히려 『경국대전』 문서식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해유문서의 계개 내역을 보면 지방 관아의 재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중앙정부는 지방 관아의 재정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유문서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호조의 물품 내역 검토를 마친 민영수 해유문서는 1893년 12월 17일 이조의 조홍을 마친 후 본인에게 교부됐다.

### III. 조선시대의 해유문서와 해유제

앞에서 살펴본 해유문서는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돼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통용된 제도다. 그렇다면 해유문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며, 어떠한 법제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일까? 여기서는 『경국대전』의 해유제와 해유첩정식, 해유이관식 등의 법제 규정과 실제 해유문서의 행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해유문서의 행이

해유제는 해유문서를 통해 구현되며, 『경국대전』에는 해유이관식과 해유첩정식을 규정해 해유제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해유첩정은 해유이관에 점련돼 해유의 행정 절차를 마친 후 해유 당사자에게 교부된다. 해유 당사자가 해유장(解由狀)을 받은 이후 해유가 완료되는 것이다.

다음은 법전에 규정된 해유첩정식과 해유이관식이다.

#### 『경국대전』 「예전」 ‘해유이관식’

‘解由移關式’ [牒呈平關隨狀員職品]

某職某爲解由事當職於某年月日受本職某年月日禮任署事至某年月日遞代今將歷仕日月及雜凡緣故該管物件逐一開坐備細照詳解由成給爲此合行移關請

照驗施行須至關者

今開

一 改名有無

一 實歷幾箇日告假患病幾箇日  
 一 被劾有無  
 一 該管物件云云 [如貨穀鹽鐵軍器城子船隻書冊册板案籍文書印信田稅貢物楮田莞田桑漆果木  
 公廩公賤畜產冠服等一應公物隨其衙門所在逐一開寫  
 右關  
 某衙門  
 年[印]月 日  
 解由  
 關某職押

『경국대전』 「예전」 ‘해유첩정식’

‘解由牒呈式’ 某衙門爲解由事今准某職某關該云云得此將本員姓名及到任實歷日月改行檢會得與  
 本員元狀相同外其餘任內實歷及雜凡緣故職掌該管物件圓倉磨勘照數叩算明白另款開坐于後爲  
 此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

計開

- 一 改名有無
- 一 某年月日受本職某年月日到任某年月日得代實歷幾箇日告假患病幾箇日
- 一 被劾有無
- 一 該管物件云云
- 右牒呈
- 某衙門
- 年[印]月 日 某職某押 某職某押
- 解由

해유이관식에서는 재화, 곡식, 소금, 철, 군기, 성벽(城子), 선척, 서책, 책판, 문적(案籍), 인  
 신, 전세, 공물, 저전(楮田), 완전(莞田), 뽕나무, 옷나무, 과일나무, 공해(公廩), 공천(公賤), 축산(畜  
 産), 관복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물품에 대한 예시를 두었다. 아울러 ‘죽일개사(逐一開寫)’라  
 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해유첩정식에는 ‘관할하던 물품(該管物件)’이라고  
 만 언급했다.

해유첩정은 후임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경국대전』에는 규정돼 있지 않으나 두 부를 발  
 급해 관찰사와 병마절도사에게 각각 한 부를 보낸다. 이전의 연구 성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그림 8. 해유문서 행이 과정 (⇒: 문서의 행이 방향)

이 해유문서는 관사의 재정 및 군비와 큰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전곡 등 관아의 재산과 관련  
 된 것은 관찰사에게, 군비와 관련된 것은 병마절도사에게 보내져 각각 호조와 병조로 상송되  
 는 것이다. 해유첩정을 받은 관찰사 혹은 병마절도사는 계개 내용을 검토한다. 계개 내용에 흠  
 착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해유이관을 작성해 관찰사는 호조, 병마절도사는 병조로 이  
 문한다.

앞서 살펴본 몇몇 해유문서는 연월일 옆 ‘해유(解由)’라고 기재해야 하는 곳에 ‘상고(相  
 考)’라고 기재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해유이관에는 계개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며, 해유첩정의  
 계개 내용이 문서의 작성 일자 다음에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위식은 비단 국립해양  
 박물관 소장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전하는 해유문서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해유문서의 행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해유문서의 행이 과정은 위의 도식에 준한다. 그러나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하는  
 곳의 해유첩정은 모두 관찰사에게 올라가며, 관찰사는 호조와 병조로 각각 해유이관을 작성  
 해 이문한다. 병조에서는 해유문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호조로 이관하고, 호조에서는 관찰사  
 가 올려 보낸 해유이관과 병조의 해유이관을 검토한 후 관찰사의 해유이관 배면에 다시 해유  
 이관을 작성해 이조로 이문한다. 이조에서는 최종적으로 해유의 완료를 의미하는 ‘조홀’을 작  
 성해 해유 당사자에게 해유문서를 보낸다.

2. 해유제

해유제에 대해서는 임민혁과 정구복의 연구가 있다. 임민혁은 해유제의 시행 목적을 재  
 정 손실의 보전에 두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와 책임의 한계  
 를 분명히 하여 관료 행정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두 가지로 규정<sup>26</sup> 했다. 정구복은 『경  
 국대전』 「이전(吏典)」 ‘해유(解由)’의 해석을 이전의 견해와 달리했다. ‘해유’조의 원문 “凡除

26 임민혁, 앞의 논문, 2005.

職者考解由兵曹同(濟州牧使則不)<sup>27</sup>은 이전까지 “무릇 관직에 제수(임용)하는 자는 해유를 참고한다”라고 해석됐다. 그러나 정구복은 “무릇 직위에서 해임되는 자는 해유 발급을 살펴야 한다”라고 새롭게 정의 내렸다.<sup>27</sup> 그는 ‘제직(除職)’의 ‘제(除)’를 ‘해임’으로 해석해 해유문서가 해유 당사자의 승진과 좌천에 연계된 것으로 본 것이다.

관원의 승진과 좌천에 관계된 제도로는 ‘포폄(褒貶)’이 있으며,<sup>28</sup> 관원의 포폄을 기록한 ‘포폄문서’ 또한 많지는 않으나 현전하고 있어 실제 관원의 업무 평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경국대전』이전 ‘포폄’에는 “열 차례 평정에서 열 번 상(上)을 받으면 한 품계를 올려 주는 상을 주고(……) 두 번 중(中)을 받으면 무록관(無祿官)에 서용하며 세 번 중을 받으면 파직한다”라고 하여 포폄제를 통해 관원의 승진과 좌천을 결정하도록 했다. 정구복의 주장대로 해유제가 관원의 승진과 좌천에 연계된다면 포폄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음은 『만기요람(萬機要覽)』 ‘요록(料祿)’의 내용이다.

매월 20일 이후 이조와 병조에서 다음 달(관원들이) 받을 백관의 녹봉을 성책해(호조로) 수송하고, 호조는 월봉과 미해유 유무를 고준한다. (명칭하기를 유무·월무라 하여 녹패에 쓴다.)<sup>29</sup>

『만기요람』에는 ‘유무(由無)’와 ‘월무(越無)’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유무는 ‘해유를 마치지 않았다’, 월무는 ‘월봉(越俸)이 없다’는 의미다. 여기서 ‘월(越)’의 사전적 의미는 ‘넘다, 넘기다, 초과하다’다. 법전의 규정된 내용과 ‘월’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면 월봉은 녹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월 수만큼 녹봉을 건너뛰고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돼야 한다. 다음은 영조 대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 추가된 해유 규정 중 일부다.

환상을 거두지 않은 경우에는 수를 나누어 녹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 상평정 환상곡을 임기 내에 거두지 않은 것이 10분의 1이면 녀 달을(녹봉 지급을) 건너뛰고, 10분의 2이면 다섯 달을 건너뛰고, 10분의 3이면 일곱 달을 건너뛰고 20분의 1을 거두지 않았으면 두 달을 건너뛰고, 30분의 1을 거두지 않았으면 한 달을 건너뛰되, 거두지 않은 것이 1000석 이상인 경우 수를 나눈

27 정구복, 앞의 논문, 2012.

28 조선시대 인사고과에 사용한 문서는 포폄문서다. 포폄문서와 달리 해유문서는 해당 관원이 녹봉을 수령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포폄문서에 대해서는 조광현, 「조선 후기 포폄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참조.

29 『만기요람』 ‘재용편’ 요록: 每月念後吏兵曹以來月所受百官祿成冊修送戶曹則考準越俸與未解由有無(名之曰由無越無書填於祿牌)

것이 비록 네다섯 달 건너뛴에 해당하더라도 또한 여섯 달을 건너뛴다.<sup>30</sup>

『만기요람』의 내용을 참고해 『속대전』을 해석하면 ‘월사등(越四等)’이란 녀 달 동안 녹봉 지급을 건너뛰는 것이다. 『세조실록』 1460년(세조 6) 기사에 따르면 해유에서 휴함이 발견된 관원은 흠축난 물건을 모두 징납(懲納)하기 전에는 녹봉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sup>31</sup> 해유를 마치고 녹패를 발급받았더라도 이전 관직에서 흠축난 재정을 보전하기 전에는 녹봉을 수령하지 못했고, 이러한 규정은 『속대전』 편찬에 이르러 법제화됐다고 생각된다.

조선의 해유제는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관원에게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결손이 발생한 만큼 재정을 보전하도록 책임을 지운 것이다. 즉 관원의 재정 운용 결과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관원에게 흠축난 재정을 직접 보전하게 하는 한편, 결손을 보전하기 전까지 녹봉 지급을 미루어 결손 난 재정의 보전을 촉구한 것이다. 해유문서 발급은 현직 관원이 체직돼 다른 관직에 제수된 경우 이전 관직에서의 재정 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따라서 정구복의 주장대로 해유제가 관직의 승진과 좌천으로 연결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관원은 정치 능력을 평가하는 포폄제를 통해 승진과 좌천이 결정되며, 이와는 별도로 해유제를 통해 재정 관리 능력을 평가받고 흠축난 재정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녹봉을 수령하지 못하는 처분을 받았다.

#### IV. 결론

이 논문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된 해유문서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해유문서와 조선의 해유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립해양박물관에는 1785년 윤빈 해유문서 두건을 포함해 총 여섯 건의 해유문서가 소장돼 있으며, 윤빈 해유문서 외의 모든 문서에 계개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리고 이승보와 민영수 해유문서에는 이조의 조흔 내용까지 남아 있다.

해유문서는 본디 두 부가 작성되는데, 1785년 윤빈이 서북병마첨절제사에서 체직되

30 『속대전』 「호진」 해유: 還上未捧者分數越祿(本曹常平廳還上等內未捧十分之一越四等二越五等三越七等二十分之一未捧越二等三十分之一未捧越一等而未捧一千石以上者分數雖應越四五等亦越六等……)

31 “戶曹啓. 前此中外官吏所掌虧欠之物雖多, 遷官後文飾雜故, 例給解由, 任然受祿, 故其虧欠之物, 懲納無由. 請自今雖已遷官, 畢懲後給祿. 從之.” 『세조실록』 1460년(세조 6) 9월 18일 두 번째 기사.

면서 작성된 해유문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까지 포함해 총 세 건이 현전한다. 이 중 국립 해양박물관 소장본으로 병조에 이문하기 위해 작성된 것은 격자(隔字)를 하지 않은 탓으로 재 작성됐고, 실제로 호조에 이문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추정된다. 1796년 김경혁 해유문서를 비롯한 네 건의 해유문서에는 계개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지방 관아의 재정 실태 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의 해유문서식과 해유제에 대한 규정은 『경국대전』에 수록돼 있다. 해유문서는 후 임관이 작성하는 해유첩정과 관찰사 또는 병마절도사가 작성하는 해유이관 그리고 이조의 조 흘을 받기 위해 호조에서 작성하는 해유이관, 마지막으로 해유를 마쳤다는 뜻으로 이조에서 작성하는 조흘로 이루어진다. 호조의 해유이관은 관찰사의 해유이관 배면(背面)에 작성되며, 이조의 조흘은 호조의 해유이관 위에 작성된다. 해유문서의 작성 방식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경국대전』의 문서식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준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해 유문서를 지방의 재정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해유제는 관원의 재정 관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의 인사고과제도로는 포폄제가 있는데, 포폄제는 상관에 의해 관원의 업무를 평가하고 평점 에 따라 승진과 좌천을 결정하는 것이다. 관원의 정치 능력과는 별도로 해유제를 통해 관원의 재정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흠족난 것이 있다면 관원 스스로 재정을 보전하게 하는 한편, 재정 을 보전하기 전까지 녹봉 지급을 정지해 재정 보전을 촉구하는 징벌을 가한 것이다.

조선의 해유문서는 체직된 관원 수에 비해 현전하는 수량이 많지 않다. 현전하더라도 이조의 조흘까지 마친 문서가 온전히 전하는 경우는 적으며 호조와 병조에 제출된 두 부의 해 유문서가 모두 전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와 같이 전존 수량이 적은 까닭과 온전한 형태로 전하 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통합된 바다 집시, 바자우족의 생계 전략

—  
**술라웨시 남부를  
 중심으로<sup>1</sup>**

—  
 전경호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  
 목차

I. 서론

II. 바자우족의 역사

III. 연구대상지 개관

1. 부통섬의 바조바하리 마을

2. 와카토비섬의 바자우 마을

1) 샴펠라 마을

2) 몰라 마을

IV. 바자우족의 바다 생활

V. 결론 : 부족과 어려움에 대항하기 위한 생계전략

## 초록

바자우족은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에서부터 확산돼 동남아시아 곳곳에 거주하는 종족으로,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하위 그룹인 사마바자우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의 해안이나 섬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며 어업, 무역, 선상 생활과 같은 바다 중심 활동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술라웨시 남동부의 부통섬과 와카토비섬에 거주하는 바자우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바자우족은 해양자원을 이용한 생계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부족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바다 중심의 경제활동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수립과 국민으로의 편입,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진입, 세계화와 전 지구화의 영향에 노출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와카토비 일대의 해양 국립공원 지정은 바자우족의 전통문화, 전통적으로 영위했던 생계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러한 자본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둘러싸인 바자우족은 일상적 저항 행위 혹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의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있다.

## Abstract

The Bajau are a tribe who live in various areas of Maritime Southeast Asia but who originated from the Malay Peninsula of Southeast Asia. They speaking Sama-Bajau, a subgroup of the Austronesian language family.

They live on the coasts and the islands of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where they live off of sea-based activities such as fishing, trade, and boat inhabitation.

This paper examines their lives and culture, focusing on the Bajau who inhabit the Buton islands in southeast Sulawesi and the Wakatobi islands. The Bajau are tribal people who make a living by using marine resources and do not own land from the past. However, their sea-based economic activities began to change with exposure to the influe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donesian state, their incorporation into the people of the country, their entry into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In particular, the designation of the marine national park in the Wakatobi region has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raditional economic activities. Surrounded

1 이 글은 국립해양박물관의 2019년 해의 해양 문화유산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by a lack of money and facing economic difficulties, the Bajau are overcoming their uncertainty about their economic behavior at sea by the means of their daily resistance or their own knowledge and through their connections.

**주제어** 술라웨시, 바자우족, 바다 유목민, 경제활동, 생계전략

**Keywords** Sulawesi, Bajau, Sea nomad, Economic activity, Livelihood strategy

## 1. 서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로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群島) 국가다. 북쪽으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있고, 남쪽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위치한다. 또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향신료를 찾아 이동했던 대항해시대에는 이 지역이 향신료의 집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문화적, 민족적 교류와 이동이 빈번했다. 바다를 통한 활발한 교류와 이동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종족 구성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2019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6900만 명으로 세계 4위다. 그중 자바인(40.6퍼센트), 순다족(15퍼센트)을 비롯해 약 300여 종족이 살아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소수 종족 가운데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남부에 정주해 생활하는 바자우(Bajau)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바자우족은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에서부터 확산돼 동남아시아 곳곳에 거주하는 종족으로,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하위 그룹인 사마바자우(Sama-Bajau)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의 해안이나 섬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며 어업, 무역, 선상 생활과 같은 바다 중심 활동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켐포르나(Semporna), 사바(Sabah) 지역, 필리핀 남부, 인도네시아 동부 등의 산호초 삼각지대는 19세기 후반부터 바자우족이 밀집해 거주하는 대표 지역 가운데 하나다. 과거 바자우족은 선박에서 생활하면서 바다위를 이동하며 생활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공화국이 수립되고 국민국가로 통합되면서 바자우족만의 독특한 유목 생활은 부정됐으며, 인도네시아의 국민으로 편입됐다. 그 결과 바자우족은 현재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남부 등에 정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현재 술라웨시 남부에 정착해 살아가는 바자우족은 정주 생활 이후에도 근대 국민국가의 강요와 통제에 노출돼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삶과 생계경제활동의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진입과 외부 문화의 유입,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무형의 어로 활동 지식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됐고, 그에 따라 새로운 경제활동을 찾아 이동과 이주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통제와 제재 속에서 일상적 저항 행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바자우족에게는 어업 활동과 관련한 자본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경제적 자본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들의 저항 행위는 소극적 저항에 머무를 뿐이다. 대신 이들은 해양종족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이동과 이주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경제적 자본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바자우족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뒤 연구 대상지인 세 곳의 바자우족 마을을 소개한다. 그리고 국가와 자본이라는 외부 세력에 맞서 '부족'과 '어려움'으로

귀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자우족의 다양한 생계 전략을 분석한다.

## II. 바자우족의 역사

바자우족은 과거에는 일정한 지역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물 무역로를 따라 이동하며 생활했다. 특히 18세기 중반까지는 가족 단위로 작은 배(houseboat) 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바다 유목민’, ‘바다 집시’ 등으로 표현되기도 했다.<sup>2</sup>

민족학이나 역사 자료에 따르면 바자우족은 스스로를 명명하는 호칭, 사용하는 언어, 삶의 방식 등을 특징으로 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바자우족을 부르는 호칭에는 크게 ‘사마(Sama)’와 ‘바자우(Bajau)’가 있다. 말레이어로 ‘사마’는 ‘우리’라는 뜻이며, 바자우족이 스스로를 ‘조모 사마(Jomo Sama, 사마 사람)’라고 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반면 ‘바자우’는 스스로 부르는 용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이들을 일컫는 용어다. ‘바자우’의 기원에 대해서 혹자는 ‘멀리 있는 영원한 상태’를 뜻하는 말레이어 ‘베르자우한(berjauhan)’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혹자는 ‘부자크 라우트(bujak laut)’에서 유래했다고 보는데, 부자크 라우트는 물고기, 해삼 같은 해양생물을 잡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바자우족은 현재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이름을 붙여 ‘○○(지역명) 바자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바자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언어다. 언어는 자신의 집단과 타 집단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현재 바자우족의 언어는 약 열 개의 방언으로 나누어진 다. 문화적으로도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지역적으로 크게 구분해보면 필리핀 북부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카풀(Capul)섬에 거주하는 바자우족, 말레이시아 사바 서해안을 따라 거주하는 바자우족, 술루(Sulu)군도에 거주하는 바자우족, 술라웨시(Sulawesi)에 거주하는 바자우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네 바자우족의 문화적 특징도 유의미하게 구분된다. 카풀섬에 거주하는 바자우족은 어업과 코코넛 농장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다른 바자우족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현대의 바자우족과 사회적으로 거의 연결되지 않는다. 사바 서해안의 바자우족과 술루군도의 바자우족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두 집단 사이의 유대 관계는 제한돼 있다. 사바 바자우족은 주로 논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른다. 술루와 술라웨시의 바자우족도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sup>3</sup>

2 Kazufumi Nagatsu, *Maritime Diaspora and Creolization: Genealogy of the Sama-Bajau in Insular Southeast Asia*, *Seneri Ethnological Studies* 95, pp35~64, 2017.

3 Kazufumi Nagatsu,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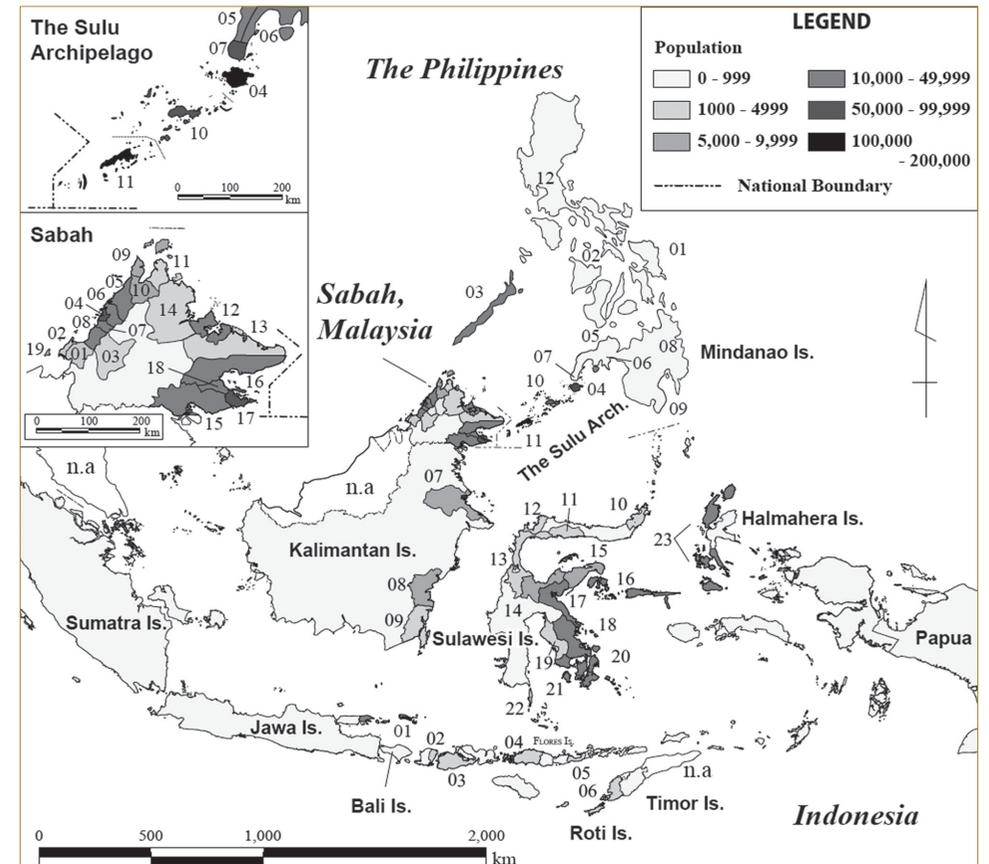


그림 1. 바자우족 분포도(Kazufumi Nagatsu, 2017)

세 번째로 바자우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에는 종교가 있다. 바자우족이 언제부터 이슬람교로 개종했는지, 이슬람교를 믿기 전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바자우족은 일반적으로 무슬림이다.

바자우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필리핀의 술루군도에서 기원한다는 것과 조호르(Johor)에서부터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바자우족이 필리핀의 술루군도에서부터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 따르면 바자우족은 1000년경부터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무역망을 구축했고 중국과의 해삼무역 발달에 따라 15세기경 술라웨시로 이주했을 것이다.<sup>4</sup> 그리고 술라웨시 동부의 바자우족은 술라웨시 남부에서 이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덜란드의 식민지 기록에 따르면 19세기 중반까지 바자우족은 거북등딱지와 해삼을 조달하기 위해 술라웨시 동부에 해양자원 채취 구역을 설정했다. 18세기에 이르러 바

4 ANH LIÊN DO KHAC, 2018: Toga H, Pandjaitan, Albertus Bobby W, 2016.

## 필리핀 지역

연번	지역	바자우족 인구 수
1	Northern Samar	10,670
2	Capiz	1,496
3	Palawan	177,638
4	Basilan	22,336
5	Zamboanga Del Norte	10,226
6	Zamboanga Del Sur	15,518
7	Zamboanga City	57,914
8	Davai Del Norte	3,221
9	Davao Del Sur	62,525
10	Sulu	1,250
11	NCR(Manila)	191,844
12	Tawi-Tawi	6,764
	Total	570,857

## 인도네시아 지역

연번	지역	바자우족 인구 수
1	Sumenep	13,832
2	Lombok Timur	2,634
3	Sumbawa	4,809
4	Sikka	3,097
5	Manggarai	3,521
6	Kupang	6,930
7	Berau	1,604
8	Kota Baru	4,573
9	Pasir	6,381
10	Minahasa	3,179
11	Boalemo	4,091
12	Toli-Toli	3,977
13	Donggala	3,275
14	Poso	5,659
15	Banggai	6,331
16	Banggai Kepulauan	13,259
17	Morowali	10,137
18	Kendari	11,076
19	Kolaka	1,846
20	Muna	13,173
21	Buton	11,445
22	Selayar	1,288
23	Maluku	12,750
	Total	158,970

##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

연번	지역	바자우족 인구 수
1	Beaufort	1,873
2	Kuala Penyu	1,675
3	Keningau	3,903
4	Kota Kinabalu	60,857
5	Kota Belud	26,054
6	Tuaran	25,238
7	Penampang	11,810
8	Papar	14,274
9	Kudat	7,266
10	Kota Marudu	8,425
11	Pitas	3,391
12	Sandakan	37,705
13	Kinabatangan	1,228
14	Beluran	27,984
15	Tawau	3,654
16	Lahad Datu	31,589
17	Semporna	63,008
18	Kunak	10,254
19	Labuan	4,015
	Total	347,193

자우족은 어업 활동 범위를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해안까지 넓혔으며, 여기서 어획한 수산물은 마카사르(Makassar) 등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했다.<sup>5</sup> 그러다가 1850년 부통(Butung) 왕국 술탄의 허가를 받아 칼레두파섬에 근거지를 형성하게 됐다.<sup>6</sup>

바자우족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공주와 술라웨시 남부 고아 왕국의 왕자가 혼인했다는 신화를 중심으로 바자우족이 술라웨시에 정착했다는 학설이다.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바자우족 공주가 조호르 해변에서 놀다가 바다에서 실종됐다. 그러자 왕은 신하들에게 공주를 찾으라고 명령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공주를 찾을 수 없었다. 왕에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하들은 동쪽으로 도망가게 됐다. 한편 어느 날 고아 술탄의 왕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해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당시 공주를 찾다가 동쪽으로 도망간 바자우족 신하들은 술탄의 왕자와 결혼한 여성이 읊은 시를 듣고 그녀를 자신들의 공주로 인식해 고아 왕자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술라웨시 남부의 바자우족은 현재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민국가 수립 초기에 국가의 권한을 강화한 교도민주주의기(教導民主主義期, Guided Democracy Period)를 거쳤다. 이는 다양한 종족 집단과 정치 세력이 자카르타 중심의 인도네시아공화국 체제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sup>7</sup> 즉 인도네시아공화국 수립 당시 국가는 단일한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국민의 삶 자체를 지배하면서 학교와 같은 제도를 통해 훈련, 교육,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

푸코에 따르면 '국가'란 영역, 관할권, 제도 혹은 개인이 갖는 신분의 안정성이다. 그리고 국가 자신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충분한 것을 국가이성이라고 한다. 국가이성이란 '모든 공적인 일, 모든 조연과 계획에서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정치적 견지'다. '이 정치적 견지는 오로지 국가의 보존, 증강, 지복만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손쉽고 신속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이성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국가이성은 국가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는다. 국가이성의 정의에서는 우주도, 자연도, 신적인 것도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둘째, 국가이성은 본질-앎(지식)의 관계

5 Kazufumi Nagatsu, ibid.

6 Lance Nolde, *Great is Our Relationship with the Sea: Charting the Maritime Realm of the Sama of Southeast Sulawesi, Indonesia*, *Explorations* 9, pp 15~33, 2009.

7 송승원, 「인도네시아의 국가 철학과 이에 대한 시대적 해석: 국민윤리 교육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2, 2010

표 1. 인도네시아의 정보 제공자

이름	성별	나이	지역	직업	주요 정보 제공 내용
오킴(Okim)	남성	30대	부통	바조바하리 마을 내 어업	어업 및 해삼 관련 내용
신돌로제(Sindoloje)	남성	62세		바조바하리 마을 내 어업	바자우족 가옥 관련 내용
토니(Toni) 아버지	남성	50대		바조바하리 마을 내 선박 건조	FRP를 이용한 현대 선박 건조 관련 내용
다히야(Dahiya)	여성	60대		바조바하리 마을 내 거주	마을 연안 해산물 채취 관련 내용
롱기(Longi)	남성	27세	와카토비	몰라 마을 내 어업	마을 어업 관련 내용
토미(Tomi)	남성	35세		몰라 마을 내 선박 건조	선박 건조 관련 내용
자비라(Jabira)	남성	67세		삼펠라 마을 내 거주	삼펠라 마을 주요 정보 제공
마만(Maman)	남성	26세		삼펠라 마을 간호사	보건 및 육아 관련 내용
시블리(Sibli)	남성	72세		삼펠라 마을 이맘(imam, 종교 지도자) 및 무슬림 학교 교장	종교 및 교육 관련 내용

를 중심으로 단단히 구성돼 있다. 국가이성은 국가의 본질이자 그 자체로 국가이성의 짜임에 따르고 거기에 복종케 하는 인식이다. 셋째, 국가이성은 보존적이다. 국가이성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통일성 있게 존재하고 유지되는 데 필요·충분한 것, 국가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 통일성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충분한 것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이다. 넷째, 국가이성에는 국가 이전의 목적과 국가 외적인 목적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가 이후의 목적에 관련되는 것조차 없다. 국가이성의 목적은 국가 자체이며, 완성과 행복 그리고 지복 등의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국가 자체의 것일 뿐이다.<sup>8</sup> 다시 말해 국가는 국가 그 자체만을 위해서 작동 중인 과정이고, 국가 유지의 안정성만을 위해서 움직일 뿐,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는 결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유주의, 시장경제, 민주정치제도,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국가 체제 속으로 주입됐다. 국민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 혹은 민족이라는 특정한 삶과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상상의 공동체로 묶여야만 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국가 수립과 근대국가로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국민으로 소속된 바자우족의 삶과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바자우족의 인도네시아 국민 되기는 결국 자신들만의 전통 지식 소멸과 근대 학교 교육 및 문화 주입, 해양을 둘러싼 독특한 유목 생활의 생계경제활동의 변화로 수렴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국가의 통제와 제약에 맞서 바자우족은 한편으로는 순응하면서 수산물 유통의 세계화 시스템 속에서 1차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본에 종속돼 임노동자로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적

8 미셸 푸코 저, 오토르망 역, 『안전, 영토, 인구』, 도서출판 난장, 2011, 350~3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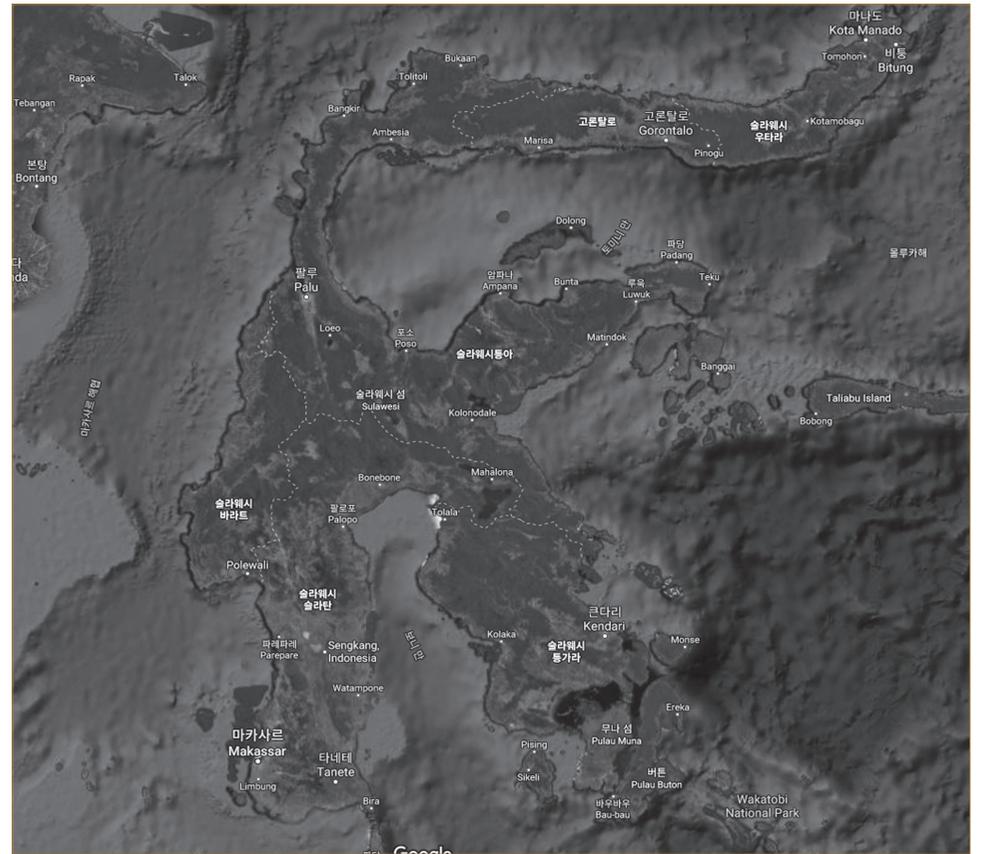


그림 2. 술라웨시(구글 지도)

인 주체로서 국가와 자본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 III. 연구 대상지 개관

인도네시아는 대항해시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동양과 서양을 잇는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해양 중심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sup>9</sup> 있다. 반면 국가 주도의 해양 관련 정책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도네시아의 해양종족과 해양문화를 인위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

9 2014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세계의 해양 중심국, 즉 글로벌 해상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양문화(maritime culture), 해양 자원과 경제(maritime economy & resource), 인프라 시설과 연계성(infrastructure & connectivity), 해양 외교(maritime diplomacy), 해양 안보(maritime security)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 대상지인 술라웨시 남부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다양한 해양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바자우족을 비롯해 만다르(Mandar)족, 부기스(Bugis)족, 마카사르족, 부통족 등 해양과 관련한 생업 활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다양한 부족이 거주한다.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피니시(pinisi) 선박 제작 기술이 전수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술라웨시 남동부의 부통섬과 와카토비섬에 거주하는 바자우족에 초점을 맞추었다. 바자우족에 대한 현지 조사는 2019년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이루어졌다. 현지 조사 기간 동안에는 연구 대상지에 거주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마을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현지 조사를 제외한 시기에는 문헌 연구를 실시했다. 2018년 11월부터 이루어진 사전 조사를 비롯해 현지 조사 전후로 중점적인 문헌 연구가 이루어졌다.

### 1. 부통섬의 바조바하리 마을

바조바하리(Bajo Bahari)는 부통섬 남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의 현지 명칭은 캄퐁펠랑기바조바하리(Kampung Pelangi Bajo Bahari)이며, 펠랑기는 무지개를 뜻하는 인도네시아어다. 바조 마을을 무지개 마을이라고 명명한 것은 정부에서 마을의 집을 형형색색으로 칠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국적 형태의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바조바하리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홀리몸보(Holimombo)라는 육지의 마을을 지난 뒤 북동쪽의 바다 위로 길게 뻗은 300미터의 길<sup>10</sup>을 건너가야만 한다. 이 길의 폭은 대략 2미터 이내이며, 높이 또한 수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올라와 있을 뿐이다. 육지에서 연결된 길이 끝나는 부분에는 넓은 운동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여기서부터 바조바하리 마을이 시작된다. 마을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이고, 남서쪽에서 시작해 북동쪽으로 뻗어 있다. 마을의 길이는 남서-북동으로 약 500미터, 남동-북서로 약 150미터다. 마을 내의 길은 육지에서 연결된 길과 연결된 길 및 이 길과 평행한 마을 안쪽만을 연결하는 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길과 길을 연결하는 나무다리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마을 내부 길의 너비는 대략 1미터 정도의 폭으로 자전거를 제외한 이동수단은 지나가기 어려우며, 세 명 이상이 나란히 걷기 어려울 정도다. 가옥은 평행한 두 길 옆으로 질서정연하게 자리했는데, 집과 길을 연결하는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다.

마을은 바조 바틸라(Batila)와 바레시(Baresi)라는 두 개의 하위 마을로 구성된다. 마을 사람은 남동 술라웨시의 켄다리(Kendari) 혹은 와카토비의 몰라(Mola) 마을 출신이다. 마을 내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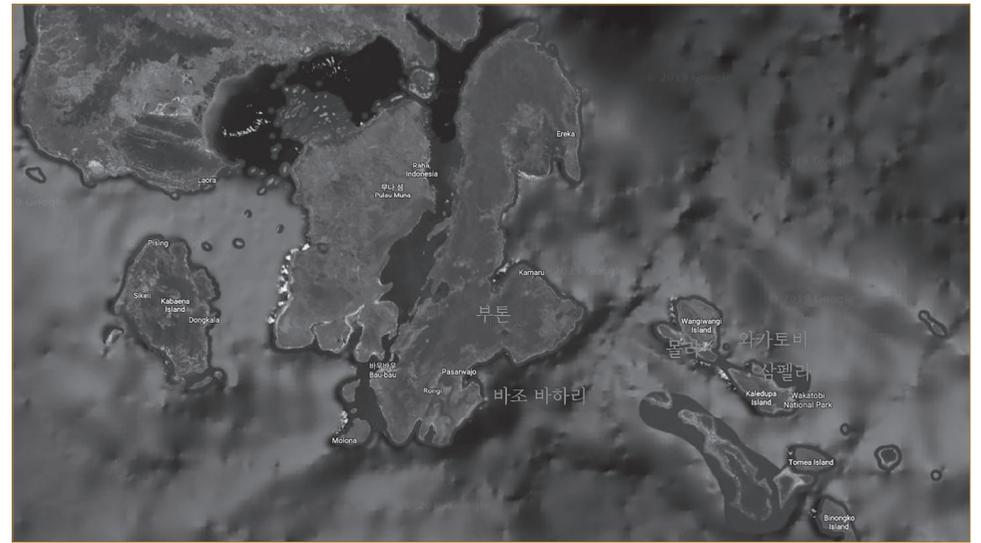


그림 3. 조사 대상 지역(구글 지도)

육 시설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바다 건너편 육지 마을인 톨란도(Tolando)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한다. 마을은 마을 입구에 위치한 학교와 운동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으로만 이루어진다. 집은 바다 위에 축조된 수상가옥이며, 바다에 말뚝을 박아 그 위에 집을 놓인 형태와 산호더미를 쌓은 뒤 그 기단 위에 집을 놓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나무 기둥을 사용한 집은 오랫동안 바자우족의 전통 수상가옥 형태였으며, 시멘트를 활용한 기둥은 3년 전부터 마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집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건축되며, 시멘트 기둥이나 산호 기단도 개인이 설치해야 한다. 집은 직사각형 모양이다. 7.5미터×11.5미터의 집을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7500만 루피아(한화 약 640만 원)다. 마을 내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성원은 제한돼 있지 않으며, 마을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을 장(長)의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지을 수 있다. 다만 바다 위에 떠 있는 마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평행한 두 도로가 없는 바다 쪽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대신 도로와 집을 연결하는 외나무다리를 놓을 수 있는 도로 양 옆쪽으로는 집 건축이 가능하다.

이처럼 마을의 집은 바다에 박아놓은 기둥 위에 놓여 있고, 도로와 집을 연결한 외나무다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수면과 집 혹은 도로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마을 사람은 배를 타고 집과 집 사이를 이동하기도 한다. 특히 마을 내에는 식료품점과 같은 상업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옆 마을인 톨란도에서 과자와 같은 공산품을 비롯해 삶은 달걀, 키슈

10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육지와 바조바하리 마을을 연결하는 길은 2014년경 완공됐다.

아미(kasuami)<sup>11</sup> 등을 통나무배에 싣고 바조바하리 마을로 와서 판매하기도 한다.

바조바하리 마을에는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마시는 물은 육지에서 구입한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기수(汽水, brackish water)<sup>12</sup>를 이용한다. 기수는 마을 건너편의 육지와 바다 경계에 자리한 맹그로브 숲에서 얻는다. 맹그로브 숲은 담수와 해수가 섞이는 지역으로, 바닷물에 비해 비교적 덜 짠물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한다.

## 2. 와카토비섬의 바자우 마을

### 1) 삼펠라 마을

삼펠라(Sampela) 마을은 왕이왕이에서 여객선을 타고 두 시간 반 정도 이동해 칼레두와 본섬인 암배우와(Ambewuwa)에서 하선한 뒤, 다시 작은 배로 5분 정도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는 섬이다. 삼펠라 마을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마을이기에 마을 사이사이를 작은 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으며, 배로 가옥 앞까지 접근할 수도 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집에서 어로 도구를 만들거나 수리를 하며, 어린이는 선착장에서 다이빙과 수영을 하며 주로 시간을 보낸다.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이 마을에 몇 명의 바자우족이 거주하는지는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이는 유목민이라는 바자우족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비록 현재 마을에 정착하고 있지만, 교육이나 직업 등으로 인해서 마을을 떠나 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또 부부가 결혼 후에도 어업 활동으로 인해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지금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한 가정에 두 명의 자녀만을 낳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산아 제한 정책과 달리 보통 네 명에서 여섯 명의 자녀를 두는 경우가 많아서 인구 통계에 누락되는 일도 있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의 전출입, 증감이 활발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 통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마을은 삼펠람(Sampelam), 파가나(Pagana), 디카카투앙(Dikakatuang), 완다(Wanda)의 하위 마을로 구성되며, 1997년경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됐다.<sup>13</sup> 남서쪽의 선착장을 시작점으로 해서 마을 내부를 관통하는 길이 나무 기둥 위에 널빤지 형태로 구성돼 있다. 가장 넓은 길이라

11 카수아미는 부통, 무나(Muna), 와카토비 지역의 독특한 음식이다. 주요 재료는 카사바와 고구마로 만들며, 바다에 나가 어로 활동을 할 때 먹는 식량 가운데 하나다.

12 담수에 의해 묶어진 해수를 말한다. 즉 담수와 해수의 중간 염분(0.5~30‰)을 가지는 물이다. 네이버 해양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36205&cid=50316&categoryId=50316>.

13 Ade Amelia, Albertus Bobby Widagdo, *DEVELOPMENT OF SEA DWELLING: BAJAU TRIBE, DEVELOPMENT OF SEA DWELLING: BAJAU TRIBE*,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welling Form 2015 ROICEEDINGS, pp195~212, 2015.

고 해도 사람을 제외한 이동수단이 지나가기는 어려우며, 사람 또한 양쪽으로 두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너비에 불과하다. 이 길을 줄기로 해서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의 길이 형성돼 있으며, 그 길을 따라서 가옥이 위치한다. 따라서 마을의 크기는 길을 따라 축조된 수상가옥의 위치 및 수와 상관관계가 있다. 즉 가옥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면 마을의 크기는 정비례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된다. 이는 삼펠라 마을을 비롯한 바자우족의 수상가옥이 일정한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가옥이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선착장에서 시작된 가장 넓은 길의 길이는 약 400미터(남서-북동 방향)이고, 이 길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의 길은 300미터 정도(남동-북서 방향)다. 마을 곳곳에는 모두 널빤지로 길이 연결돼 있지만, 널빤지를 받치는 나무 기둥의 높이가 대략 5미터여서 길 아래로는 작은 배가 지나다닐 수 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길을 이용해 도보로 마을을 이동하기도 하지만, 마을 바깥에서 어로 활동을 한 뒤 배를 타고 마을 길 밑을 지나 자신의 가옥 앞까지 이동하는 일이 많다. 마을은 남쪽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성장하다가 수심이 깊어져서 암배우와와 가까운 쪽인 동쪽으로 확산돼 있다.<sup>14</sup>

마을 곳곳에는 공산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가게는 대부분 가옥의 부속 건물 형태로 집 앞에 위치하는데, 그 가옥의 거주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게에서는 대부분 과자, 사탕, 공산품 등을 판매한다. 마을 중앙에는 모스크와 무슬림 초등학교가 있으며, 마을 사람 대부분은 무슬림이다. 마을 내에는 무슬림 초등학교를 비롯해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하나씩 있으며, 유치원도 세 곳이 있다. 모스크 옆 병원에는 다섯 명의 간호사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네 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네 명의 간호사는 본섬인 암배우와에서 출퇴근하며, 한 명의 남성 간호사는 이 섬에 거주하면서 마을 보건 활동을 담당한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질병이나 상해 등을 치료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산아 제한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칼레두파에서 공무원들이 파견돼 자녀의 수를 조사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산아 제한 주사를 놓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옥은 바조바하리 마을과 마찬가지로 바다에 나무 기둥을 박은 뒤 그 위에 나무로 집을 짓는 형태와 산호를 쌓아서 그 위에 나무로 지은 집을 엮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산호 위에 집을 엮는 형태의 가옥은 통째로 집을 구입한 뒤 산호 위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 가옥은 조립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분해해 이동이 가능하다. 나무 기둥을 이용한 전통 방식의 가옥은 바다에 나무 기둥을 박아서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가옥은 대략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 후에는 개보수를 해야만 한다. 대신 산호 기단 위에 놓

14 Ade Amelia, Albertus Bobby Widagdo, *ibid*.

인 가옥은 오랫동안 집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산호를 이용해 집을 짓는다.

하지만 이러한 가옥 형태의 변화는 해양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바자우족의 가옥 뒤쪽에는 주방이 있고 그 뒤로 화장실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수상가옥의 특성상 주방이나 화장실 내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다. 특히 화장실은 작은 공간에 나무로 벽을 세워놓은 뒤 바닥을 뚫어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물이 바로 바다로 유입된다. 과거 나무 기둥을 박은 뒤 그 위에 집을 지어 생활했던 때는 이러한 오물이 바닷물의 흐름으로 인해 먼 바다로 떠내려가 스스로 정화 작용을 했다. 그러나 현재 산호를 쌓아 집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바닷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은 곳은 물이 고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 2) 몰라 마을

왕이왕이섬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몰라(Mola) 마을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바자우 마을로 유명한 지역 가운데 하나다. 그 이유는 앞의 두 바자우 마을과 달리 규모가 크며, 이에 따라 마을 인구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마을 입구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이슬람 사원을 비롯해 관공서가 자리하며, 곳곳에 목재소와 선박 정비소 등이 있다. 마을 내부로는 수로(水路) 형태로 바닷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집 앞까지 소형 배를 정박할 수 있지만, 집은 육지 위 시멘트 바닥 위에 지어져 있어 다른 바자우 마을과는 다른 경관을 보여준다.

마을은 ‘ㄱ’자 형태를 이루며, 북서쪽보다는 남서쪽이 인구밀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마을의 규모는 북서쪽에서 남동쪽까지 최대 1200미터 길이에 달하며, 북동쪽에서 남서쪽까지는 최대 800미터 정도다. 마을 입구에서 시작해 남서쪽의 마을 끝까지 이동하면 바로 바다와 연결된다. 그 앞으로는 작은 섬과 캄보데(Kambode)섬이 위치한다. 마을 앞 바다에서는 소형 배를 타고 낚시를 하거나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인다. 마을 내부로 연결되는 수로를 따라서 연근해 어업을 하는 배가 마을 내부로 빈번하게 드나들기도 한다. 또 어로 활동을 위해 어업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물품 등을 집 앞에 정박한 배에 싣는 등 마을과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와 배를 둘러싼 다양한 활동이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계속해서 벌어진다.

몰라 마을의 가옥은 다른 바자우 마을의 것과는 형태가 다르다. 이는 다른 바자우 마을이 바다 위에 가옥을 지어 거주하는 것과 달리, 몰라 마을은 육지 위에 집이 있기 때문이다. 몰라 마을의 가옥 중 일부는 수상가옥과 마찬가지로 나무 기둥 위에 나무로 지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땅 위에 시멘트와 벽돌을 가지고 집을 완성했다. 또한 널빤지로 만든 길을 도보로 이동하고 길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배로 다녀야 하는 다른 바자우족 마을과 달리, 몰라 마을은 전체가 육지이고 마을 내부로 길게 수로만 놓여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마을 내부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약 3미터 너비의 수로를 건널 때에만 그 위에 설치된 다리를 이

용한다.

가옥의 크기 또한 다른 바자우 마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몰라 마을이 다른 바자우 마을에 비해 어업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의 말에 따르면 몰라 마을 사람은 이른 시기부터 동력선을 사용해 어업 활동을 했다. 마을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동력기를 활용한 참치어업이 활발했고, 그 때문에 다른 바자우 마을의 어업 활동보다 효율성이 높았다. 그래서 칼레두과섬 삼펠라에서 거주하는 바자우족 가운데 일부가 이 마을로 이주하기도 한다. 그 결과 두 개의 하위 마을이었던 몰라 마을은 다섯 개로 늘어났으며, 가옥 또한 다른 바자우 마을에 비해 규모가 크고 현대적이게 됐다. 현재 마을은 몰라바하리(Mola Bahari), 몰라우타라(Mola Utara), 몰라사마투루(Mola Samaturu), 몰라셀라탐(Mola Selatam), 몰라넬라안마크티(Mola Nelayan Bakti)로 이루어진다.

## IV. 바자우족의 바다 생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자우족은 기본적으로 바다 위에 사는 사람들로, 과거부터 땅을 소유하지 않는 종족이었다. 현재의 바자우족은 유목과 이동 생활에서 벗어나 정주 생활을 하고 있으나 수상가옥에서 생활하기에 현재까지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자우족은 바다를 이용한 경제활동에 집중한다. 하지만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배나 어로 도구 등은 소규모거나 낙후된 상태다.

부통의 바조바하리 마을에서는 인근 바다에서 낚시를 통해 생선을 어획하기도 하지만, 엔테데 지역으로 향해해 두 달 정도 머무르며 참치잡이를 한다. 마을에서 엔테데까지는 하루 정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장거리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길이 약 15~20미터, 너비 약 2미터에 불과한 소형 선박이며, 두 명의 남성만이 탑승한다. 선박에는 어획한 참치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대신 소규모의 아이스박스만 놓여 있다. 따라서 엔테데 지역에서 어획한 참치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장에서 가까운 육지로 가져가서 판매한다.

와카토비섬의 삼펠라 마을 바자우족 또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채 배를 타고 마을과 연안을 오가며 낚시를 하는 한편, 다이빙을 하면서 채집 활동을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주변의 잘피 숲 사이에서 그물로 어업 활동을 하거나 마을의 북동쪽에 위치한 호가(Hoga)섬 근처의 암초에서 낚시 등을 한다. 물고기를 잡는 도구는 낚시를 비롯해 그물과 작살이 있다. 그물은 바구(Bagu)나무 껍질로 만들어서 사용하지만 1~2년 전부터 나일론을 이용한 그물을 사용하고 있다. 어업 활동뿐만 아니라 이동 생활에도 중요한 수단인 배는 목선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FRP를 이용한 배로 바뀌고 있다. 또한 밤에는 휴대용 랜턴과 작살을 이용해 산호초 근처

에서 잠수해 해삼을 채집한다. 채집한 해삼은 삶은 뒤 햇빛에 말리거나 기계로 건조한 후 수라 바야와 같은 타 지역으로 판매한다. 그곳에서 집하된 해삼은 중국으로 수출된다.

왕이왕이 몰라 마을 사람들의 바다 생활 또한 바조 바하리 마을, 삼펠라 마을의 바다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후자의 두 마을과 차이가 나는 것은 몰라 마을이 대규모이며, 집도 수상가옥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마을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생긴 것은 몰라 마을 사람들이 이른 시기부터 동력기를 사용해 적극적인 어업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마을 사람들은 주로 참치를 잡고 있다. 참치잡이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가능한데, 비교적 먼 곳까지 이동하려면 24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참치를 잡기 위해서는 보통 새벽 1시에 마을에서 출항한다. 주요 참치잡이 어장은 마을에서 세 시간 거리의 비농코(Binongko)다. 이른 새벽에 비농코에 도착한 마을 어부들은 모마르라는 생선을 미끼로 사용해 낚시로 참치를 잡으며 서너 마리를 어획하면 마을로 돌아온다. 참치잡이에 사용되는 미끼인 모마르는 어부가 직접 잡기도 하지만, 어류 군집 장치인 룬폰(rumpon)<sup>15</sup>으로 어획하기도 한다.

이처럼 바자우족은 바다에 의존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경제활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소수 종족이다. 그래서 과거 바자우족은 자신들을 '사마(Sama)'로 부르고, 바자우족이 아닌 사람은 '바자이(Bajai)'라고 부르며 구분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바자우와 바자이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는 바자우족이 해양자원에 의지하며 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수립과 하나 된 국민국가의 강조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고, 법과 제도의 규율 내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독립한 이후 수카르노 정부는 이슬람교, 공산주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단일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을 육성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공동체주의가 강조됐으며, 공동체가 개인에 우선한다거나 공동체를 위해 개인은 희생될 수 있다는 등의 사고가 등장했다. 따라서 민감한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나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 과정에 반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sup>16</sup>

여기에 더해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현재 바자우족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생계 방식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자우족이 야간에 채집하는 해삼은 자신들의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등지로 수출하기 위해서다. 해삼 채집은 바자우족이 담당하지만, 삶고 말리는 2차 공정은 중국인이 담당한다. 즉 바자우족이 소비하지 않았던 해삼

15 룬폰은 어류를 모여들게 하는 장치로, 인도네시아 동부에서 사용하는 전통 어로 도구다. 룬폰이 언제, 어디서 사용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전통 참치잡이 어부는 오랫동안 룬폰을 사용해왔다. 룬폰은 해양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달했다.

16 송승원, 앞의 논문.

이 외부 세계에 의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바자우족은 해삼을 채집하기 시작했고, 공급을 요청한 외부 세계인 중국인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2차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해삼 채취 및 수출과 더불어 바닷물고기인 그루퍼 또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즉 술라웨시 동부 와카토 비섬이라는 인도네시아 변방에서의 바자우족의 어로 활동은 수산물 유통의 세계화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 이동의 세계화 속에서 민족과 종족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은 바자우족 공동체의 일상적 언어 사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바자우족은 그동안 고유 언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해왔으나, 현재는 외부 공동체와의 연결 속에서 인도네시아어뿐 아니라 다른 종족의 언어도 이해하게 됐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수립 이후 국가권력의 통제 아래 바자우족은 이동 생활에서 정주 생활로 삶의 방식을 변경했다. 정주 생활 이전까지 바다 위를 이동했던 바자우족에게 정규 교육 과정은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이들은 가정교육만으로도 바다 위의 삶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 기본적으로 바자우족은 자녀가 바다에서 일하고 해양생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바자우족의 전통 의례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전수됐다. 해양자원의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한 어종의 방류·방생 의례, 물고기의 성장 기간과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의례 등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보존하고 존중했다. 하지만 오늘날 바자우족 마을은 이러한 전통 지식과 결합된 의례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삼펠라 마을의 가옥 앞에는 비닐봉투, 폐어구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또 가옥의 특성상 생활 오폐수 등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한다. 몰라 마을의 경우 마을의 규모만큼이나 정주하는 사람도 많아서 마을 안을 관통하는 수로 바닥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가 널려져 있다.

바자우족의 전통 의례에 기반한 전통 지식의 쇠퇴와는 상반되게 정규 교육에 대한 열의는 높아졌다. 자본주의 발달로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규 교육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삼펠라 마을에 학교가 설립된 2004년 이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옆 섬에 위치한 학교로 자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삼펠라 마을의 학생은 중학교 졸업 이후 대도시인 켄다리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는 마을 인근에 상급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수업은 하루에 한 시간에서 세 시간 동안만 하며 교사가 일찍 마을을 떠나거나 늦게 마을에 도착하면 그 시간마저 단축된다. 또 마을 내 혹은 지역 내 취업의 기회가 적기에 대도시로 진학해 정규 교육을 받는 것을 희망한다. 마을과 떨어져 외딴 섬처럼 고립된 삼펠라 마을에는 2007년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의료 센터가 개설되기도 했다. 여기서는 간단한 검진과 예방접종을 비롯해 산아 제한을 위한 처방도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큰 질병이 있는 환자는 다른 섬으로 가야만 한다.

이와 같이 바자우족은 외부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이 되라는 '강요'를 받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경험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부재' 혹은 '부족' 및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과 규칙 내에서의 해양자원 이용, 환경오염으로 인한 해양자원 감소, 정규 교육 과정의 부족과 어려움, 취업 기회의 부족을 비롯해 바자우족에게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지식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자우족은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들어 형성된 대형 건작망 선박 회사 혹은 대규모 외국계 상업 어선에 고용돼 마을을 떠나 경제활동을 하는 한편, 젊은 시절 무역선에서 잡다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번 뒤 마을로 돌아오기도 한다.<sup>17</sup> 또한 환경오염과 계절 변화로 인한 해양자원 감소에 맞서 다양한 생계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가내경제 수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정한 수산자원만을 어획 및 수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어로 방법을 사용해 다양한 수산자원을 어획한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업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개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매트를 만들거나 물안경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하며, 재활용품으로 가방이나 옷, 스카프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가게도 등장했다.

바자우족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또 다른 전략은 이주다. 이주의 종류에는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어업을 위해 이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삼펠라 마을에서는 이주가 흔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결혼 후에도 남성은 몰라 마을에 거주하면서 어업 활동에 종사하지만, 여성은 친정인 삼펠라 마을에 거주하면서 남성이 보내주는 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또한 삼펠라 마을의 어려운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몰라 마을로 이주한 뒤, 그곳에서 대를 이어 정주하기도 한다.

#### IV. 결론: 부족과 어려움에 대항하기 위한 생계 전략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의 여러 해안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는 바자우족 가운데 술라웨시 남동부에 정주하고 있는 바자우족의 삶과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자우족은 해양자원을 이용한 생계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부족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종족이다. 이들에게 땅은 죽음 이후 묻히는 곳이다. 평생 바다 위를 이동하는 바자우족은 죽은 뒤에야 땅에 묻히며,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시체에 무거운 짐이나 돌을 매달아 바다 속 땅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sup>18</sup>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고 바자우

17 Titiek Suliyati, *Social Change of Bajo Tribe Society in Karimunjawa: From "Sea Tribe" to "Land Tribe"*, Journal of Maritime Studies and National Integration, 1 (2), pp 128~138, 2017.

18 이러한 매장 풍습으로 인해 삼펠라 마을의 한 촌로는 "죽어야 땅에 닿는다"라고 말했다.

족에게 땅은 직접적인 경제활동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 대신 바다에서 수확한 자원을 자본으로 이용해 땅에서 나는 쌀, 옥수수 등을 얻는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의 편입,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진입, 세계화와 전 지구화의 영향에 점차 노출되면서 바다 집시, 유목민으로서의 바자우족의 삶과 문화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의 해양국립공원 지정은 바자우족의 전통 문화, 전통적으로 영위했던 생계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행위는 국가가 특정 영토와 그곳의 자원을 직접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통제를 위한 국가 행위에 반대 혹은 비판하는 '원주민'에 대한 강요와 폭력이 수반된다. 즉 특정 지역에 대한 보존 정책이 국가 폭력에 정당한 사유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들만의 문화와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섭과 일상적인 통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와카토비 해양국립공원 또한 플로레스해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와카토비섬 주변을 조사하면서 2007년 국립공원 지구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와카토비 해양국립공원은 사용 구역(local use zone), 보호 구역(protected areas), 여행 구역(tourist areas)으로 나뉘었다. 사용 구역에서는 영세한 어부만이 바늘이나 낚시줄, 소규모의 자망 등을 사용해 낚시를 할 수 있다. 보호 구역과 여행 구역은 접근이 금지되므로 이곳에서는 일부 어업 행위를 할 수 없고, 어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어부는 자신의 선박과 어획물을 신고해야 한다.

통합된 바다라는 실제 공간 속에 국가의 개입으로 바자우족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세 가지 가상 해양 공간을 갖게 됐으며, 이러한 상상의 공간 분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게 됐다. 먼저 국립공원 지정으로 관습적으로 인식돼왔고 경험으로 획득한 어장에 대한 지식 정보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갔다. 산호초 주변에는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며, 특정 지역을 방문해 어업 활동을 하면 충분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도 해양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경험으로 완성된 특정 어장에 대한 사용권이 소멸된 것이다. 삼펠라 마을의 바자우족 또한 마을에서 가까운 호가섬 주변에 많은 어종이 서식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곳은 여행 구역으로 지정돼 어업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여행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관광업과 같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모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바자우족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들은 어업을 제외한 다른 경제활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어업 활동을 버리고 관광 관련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sup>19</sup> 이러한 국가 제도와 통제에 맞서 바자우족은 일상적인 저항

19 ANH LIÊN DO KHAC, *The Political Sea Conservation Policies, State Power, and Symbolic Violence The*

행위를 하는데, 그 대표적 행위가 바로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하는 어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험으로 획득한 해양 정보를 무용지물로 만든 국가의 정책에 맞서 바자우족은 국립공원 관리자 혹은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감시자의 눈을 피해 자신들만의 방식을 활용해 어업활동을 한다. 실제로 삼펠라 마을 사람은 어업이 금지된 호가섬 주변에서도 지속적으로 어업 활동을 한다.

게다가 외부의 위협과 생계경제활동의 유지를 위해 바자우족은 자신들이 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 도우면서 어업과 판매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자본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한다. 와카토비섬 주변의 바자우족뿐만 아니라 플로레스해, 말루쿠제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의 사바 지역에 거주하는 바자우족은 다른 지역으로 향해 혹은 이동할 때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기존의 관계에 의존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 향해와 이동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을 가로질러 바다에 관한 지식, 이야기, 경험, 때로는 가족이 교환되기도 한다.

투캉베시를 중심으로 한 바자우족과 말루쿠 지역 간의 사회적 연결의 역사는 오늘날 까지도 이어진다. 2009년 사례에 따르면 켄다리 출신 투캉베시 지역 바자우족 남성은 말루쿠제도 북부의 바자우 마을에도 친족이 있어서 거북을 채집하러 그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는 친족과 함께 생활을 한다. 그 남성의 아버지는 말루쿠의 여성과 결혼했는데, 이 결혼은 남성의 아버지가 낚시와 무역을 위해 말루쿠 지역으로 자주 향해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말루쿠 여성과 혼인한 결과 친족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투캉베시 지역의 바자우족 남성은 말루쿠의 친구와 가족에게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말루쿠의 지역적 지식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투캉베시 지역의 바자우족은 동자바, 플로레스, 말루쿠, 술라웨시의 다른 지역 바자우족과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지역 남성은 한 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생활을 한다.<sup>20</sup> 또한 생계경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선택한 원거리 향해나 선박 관련 노동으로 다른 지역의 바자우족과 새로운 유대 관계를 구성하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가 완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바자우족에게 부재한 현대의 지식과 부족한 경제적·사회적 자본을 상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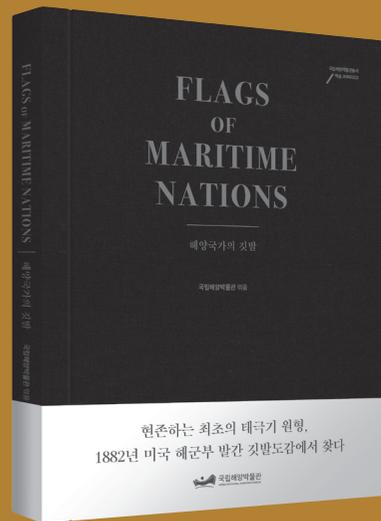
## 참고문헌

- 미셸 푸코 저, 오트르망 역, 『안전, 영토, 인구』, 도서출판 난장, 2011.
- 송승원, 「인도네시아의 국가 철학과 이에 대한 시대적 해석: 국민윤리 교육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2, 2010, 187~214쪽.
- Abdul Rasyid Asba & Ismail Ali, Gypsy from the Oriental: Bajo Ethnic in the Sulawesi Sea, *International Journal for Historical Studies*, 6(1), 2014, pp.25~34.
- Ade Amelia, Albertus Bobby Widagdo, DEVELOPMENT OF SEA DWELLING: BAJAU TRIBE, DEVELOPMENT OF SEA DWELLING: BAJAU TRIBE,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welling Form 2015 ROICEEDINGS, 2015, pp.195~212.
- ANH LIÊN DO KHAC, The Political Sea Conservation Policies, State Power, and Symbolic Violence The Case of the Bajau in the Wakatobi Marine National Park, *Explorations Volume 14*, 2018.
- Kazufumi Nagatsu, Maritime Diaspora and Creolization: Genealogy of the Sama-Bajau in Insular Southeast Asia, *Seneri Ethnological Studies* 95, 2017, pp.35~64.
- Lance Nolde, Great is Our Relationship with the Sea: Charting the Maritime Realm of the Sama of Southeast Sulawesi, Indonesia, *Explorations* 9, 2009, pp.15~33.
- Titiek Suliyati, Social Change of Bajo Tribe Society in Karimunjawa: From "Sea Tribe" to "Land Tribe", *ournal of Maritime Studies and National Integration*, 1(2), 2017, pp.128~138.
- 네이버 해양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36205&cid=50316&categoryId=50316>

# 최초로 국제사회에 등장한 태극기

김태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해양 국가의 깃발』(국립해양박물관, 2019)

## 깃발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유치환의 시「깃발」에는 바다 냄새가 배어 있다. 깃발의 원초적 생명력이 물에서보다는 물에서 훨씬 강렬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물과 물이라는 물성의 차이가 깃발의 효용성 차이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를 일이다. 광활한 강이나 호수의 수면이나 일망무제의 바다에서 수평선을 넘어오는 깃발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자기 정체성의 존재를 드러내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표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치환의 「깃발」이 우리 가슴속에 더욱 쉽사리 자리 틀고 앉았는지 모른다.

책을 읽다 보면 '깃발'을 노래한 시(詩)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란다.

노름꾼과 강도를  
잡던 손이  
위대한 혁명가의  
소매를 쥐려는  
욕된 하늘에  
무슨 깃발이  
날리고 있느냐

동포여!  
일제히  
깃발을 내리자

가난한 동포의  
주머니를 노리는  
외국 상관(商館)의  
늪은 종(奴隸)들이  
광목과 통조림의

밑매를 의논하는  
폐 왕궁(廢王宮)의  
상표를 위하여  
우리의 머리 위에  
국기를 날릴  
필요는 없다

동포여  
일제히  
깃발을 내리자

살인의 자유와  
약탈의 신성이  
주야로 방송되는  
남부 조선  
더러운 하늘에  
무슨 깃발이  
날리고 있느냐

동포여  
일제히  
깃발을 내리자

해방 공간인 1946년 5월 『현대일보』에 실렸던 임화의 「깃발(旗)을 내리자!」라는 시다. 이 시는 불행하게도 이듬해 3월 공보부로부터 불온 딱지가 붙어 더 이상 공개되지 못했다. 나라 잃은 비탄을 딛고 일어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열은 잠시뿐이었다. 그래서 시인은 ‘깃발’을 내리자고 한다. 내려진 ‘깃발’은 더 이상 ‘깃발’이 아니다. 새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내건 ‘깃발’은 더 이상 새 세상의 상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해방 정국의 혼란 속 대한민국, 또 다른 강대국 미국에 휘둘리는 깃발의 처지다.

운동회 날 하늘을 덮던

만국기들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깃발  
아버지는 언제부터 무엇에 쓰시려고  
숨겨두고 계셨던 것일까  
그 깃발의 세상이 오자  
아버지는 온양으로 떠나셨고  
오늘토록 돌아오시지 않는다  
어머니와 우리 세 남매의  
행복을 앗아간 깃발 하나  
오래도록 내 안에서  
입 다문 슬픔으로 펄럭이고

『시와 사람』(2004, 봄)에 실린 이근배의 「깃발」이다. 낮에는 국방군, 밤에는 인민군의 세상이 펼쳐지던 한국전쟁 중에 북인지 남인지 끌려갔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다. 인공기건 태극기건 단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물건의 끝은 이데올로기 갈등을 넘어 생과 사를 가르고 말았다. 그 ‘깃발’은 부자의 연(緣)마저 갈라놓은 처참한 비극의 세상을 가져왔다.

“태극기가 휘날리게” 하기 위해 우리의 청년이 얼마나 처절하게 피 흘리며 싸웠던가.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던 한국전쟁이 끝나고, 중앙청 꼭대기에 태극기가 내걸린 이래 대한민국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이던 남과 북은 두 개의 국가로 나뉘었고, 각기 태극기와 인공기를 국가 상징으로 내걸었다. 태극기는 역사고 국민이고 대한민국이었다. 정부 행사에도,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도, 심지어 결혼식장에까지도 태극기는 상석에 놓였다. 처음에 지역이나 공간, 조직이나 집단을 상징하던 것에서 이제는 신성까지 확보해 불가 훼손의 영물이 됐다. 어느덧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극기 앞에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놓는 경배가 의무가 됐다.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군사독재에 의한 권위주의 시절 군사정부는 국기에 대한 불가 훼손 의식을 퍼뜨렸고, 국기는 곧 국가와 정부라는 도착을 유도하는 도구로 전략했다. 국기가 곧 국가요, 국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절대선이라는 국민교육이었다. 국기를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상징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군사독재 국가의 권위는 오래가지 못했다. 권력을 앞세운 권위는 민주화의 바람 앞에 서서히 무너졌고, “국기가 곧 국가일 수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오히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앞장서는 투사가 국기를 대신하는 표상이 됐다.

우리들 중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깃발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이라면  
 한 울의 실, 한 조각 형짚이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깃발이 되어간다  
 숨죽이고 울던 밤을 훌쩍 건너  
 사소한 너와 나의 사이를 성큼 뛰어넘어  
 필력이며 간다  
 나부끼며 간다  
 갈라진 조국과 사상을 하나의 깃대로 세우려  
 우리는 바람을 흔드는 깃발이 되어간다

안도현의 시집 『그대에게 가고 싶다』(2002)에 수록된 「우리는 깃발이 되어간다」라는 시다. 추상화된 국가 상징으로서의 국기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깃발이 된다’는 기막힌 역설이다. 이런 생각은 “무력한 사랑의 슬픔 하나로/ 이 막막한 사막 지평에 서면/ 바람이 크다/ 바람이 크다/ 거센 모래바람에 휘청이며/ 폭폭 빠지고 쓰러지며 가다 보면/ 다시 온몸으로 필력이며 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깃발이 되는 것이다/ 깃발도 없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깃발이 되는 것이다”라고 노래한 박노해의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2010)에 수록된 「사람의 깃발」과 정확히 일치한다.

도대체 깃발이란 무엇일까? 시인은 깃대에 매달려 훑날리는 형짚 조각 하나도 ‘깃발’이라 부르며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았다. 작게는 집단과 조직, 크게는 국가와 국민의 상징으로까지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만큼 풍부한 상징성을 지닌다는 말이다.

원래 중심(中心)을 뜻하는 한자 ‘중(中)’은 긴 작대기 끝에 매달려 필력이는 형짚 조각의 형상을 이미지화한 글자(𠄎)다. 티베트의 라마교나 불교 사원을 방문하면 흔히 보이는 작대기나 줄에 수없이 매달려 훑날리는 깃발의 형상이다. 형짚을 매달아 필력에게 하면 쉽사리 눈에 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신(神)이건 간에 금방 눈에 띈다. 왜 그랬을까? 지금도 그렇지만, 남의 시선에 띄게 하는 까닭은 주목해야 할 중요하거나 신성한 어떤 것으로서, 지키거나 보호해야 할 존귀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이나 부족의 지도자가 거처하거나 그런 존귀물을 존치해둔 신성한 곳이다. 그런 곳은 마을이나 집단의 중앙에 위치했고, 자연스럽게 이런 장소나 공간을 ‘가운데’, 즉 ‘중심’이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중심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뛰어넘어 정서의 상징으로 추상화됐다. 그리하여 모든 것의 중심으로 표상되어 조직이나 단체, 나아가 국가의 상징인 기(旗)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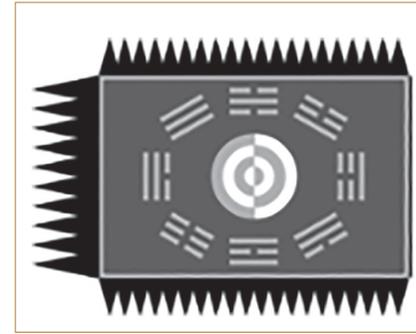


그림 1. 조선 국왕 어기 ‘태극팔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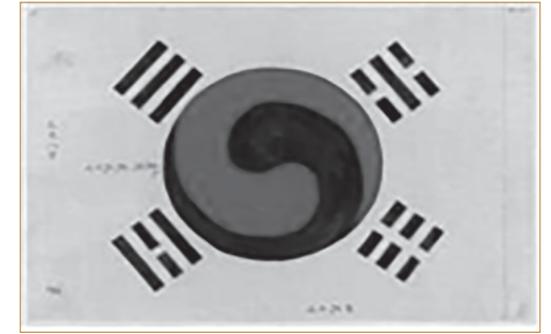


그림 2. 1882년 9월, 박영효 등 수신사 일행이 사용했던 태극기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형성되어가던 대한제국 말기부터 3·1만세운동, 해방 정국, 한국전쟁, 대한민국 등의 역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깃발은 늘 그렇게 국가의 상징이 되어 훑날려 왔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太極旗)’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는 탄생 이래 줄곧 고난과 시련의 운명에 휩싸여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라는 깃발은 언제부터 나부꼈을까? 누군가의 ‘출생의 비밀’을 눈치채는 것처럼 위험한 일도 없다.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태극기 역시 그 탄생과 관련해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필자가 태극기에 대해 조금 성숙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배를 타고 처음 중국에 갔을 때였다. 필자는 인천과 웨이하이(威海)를 왕복 운항하는 웨이둥(威東) 선박 회사 소속의 5000톤급 화객선(貨客船)을 타고 중국으로 향했다. 1990년 가을이었다. 인천항의 갑문을 느릿느릿 빠져나가는 뱃전에서 필자의 가슴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뛰고 있었다. 선실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우고 난 이튿날 아침, 배의 엔진 소리가 멎는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필자는 쿵닥거리는 가슴을 안고 단숨에 뱃머리로 뛰어올라 갔다. 아니나 다를까, 배는 이미 중국 땅 웨이하이항에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배에서 가장 높은 곳인 마스터에는 이곳이 중국 땅임을 확인해주듯 태극기 대신 오성홍기(五星紅旗)가 휘날리고 있었다. 배가 다른 나라 항구에 들어가면 배의 마스터에 게양해두었던 자국 국기 대신 상대국의 국기를 올려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당시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 질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 “너희 나라 국기에 왜 태극(太極) 문양이 있니?”라는 것이었다.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필자에게는 곤란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국기를 떠올려보았다. 해, 달, 별을 담은 국기나 마치 토템인 듯 동물을 그려 넣은 국기도 있고, 단순한 도형에 색으로 상징한 국기도 있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태극에 팔괘(八卦)를 그린 국기는 없다. 중국인의 눈에 태극은 도교(道敎)의 음양오행 중 음(陰)과 양(陽)을 상징하는 문양으로서 특정 종파와의 관련성을 의심하

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도교가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을 지배하는 것도 아닌지라, 그 중국인의 합리적 의문에 크게 공감한 적이 있었다.

태극기는 흰 바탕의 기 위에 짙은 붉은색과 파란색의 태극 문양을 가운데 두고 검은색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가 네 귀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모양은 아니었다. 1882년 고종이 조선의 왕을 상징하는 어기(御旗)인 ‘태극팔괘도’를 일부 변형하여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고종은 백성을 뜻하는 흰색과 관원을 뜻하는 파란색과 임금을 뜻하는 붉은색을 화합한 동그라미를 그려 넣음으로써 정조의 군민일체(君民一體) 사상을 표현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종을 도와 국기 제작에 참여했던 김홍집은 이러한 형상이 일본제국의 일장기와 비슷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보완책으로 “반홍반청(半紅半靑)의 태극을 가운데로 하고 그 바깥에 조선 8도(道)를 뜻하는 팔괘(八卦)를 그리면 일본 국기와 구분이 될 것”이라 여겨 태극기 문양으로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로 사용될 목적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깃발이 최초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식장에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고, 그해 9월 일본 수신사에 참여해 도일하는 박영효가 메이지마루(明治丸) 안에서 급하게 현존 태극기를 제작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에 앞서 이용로가 고종의 명을 받들어 도안했던 기존의 태극기에 4괘의 위치를 현재처럼 바꾸어 제작했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박영효본 태극기가 현존 태극기의 원형이라는 얘기다. 그 이듬해인 1883년 3월 6일 고종은 이 태극기를 조선의 정식 국기로 공포했다. 그 후 대한제국(1897년 10월 12일)과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년 4월 11일)를 거치는 동안 몇 차례 도안 변경이 있었지만,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의회가 태극기를 국기로 공식 제정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남한의 태극기 지정에 앞서 별도로 인공기를 제작해 독자적 국기로 사용함으로써 남과 북은 각기 다른 국기를 갖게 됐다.

## 한국 최초의 태극기

대한민국 태극기는 과연 어떻게 그려야 할까? 사실상 오래도록 단지 흰 바탕에 상하로 휘감는 형상의 청홍색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통일된 작도법이 없어 모양과 형태가 가지각색이었다. 이를 통일할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안을 수렴했고, 마침내 ‘우리국기보양회’의 안을 채택해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로 현행과 같은 최종안을 발표했다. 1950년 깃봉 제작법 제정을 계기로 법정 통합 국기로 채택됐다. 1984년에 이르러 대통령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하지만 태극기의 운명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2002년 11월 6일 국기 문양과 태극 문양 등을 각종 물품의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태극기나 태극기 문양의 활용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2002년 월드컵과 ‘붉은 악마’의 성과다. 태극 문양을 얼굴에 보디페인팅으로 그려 넣는가 하면, 심지어 양말이나 속옷 문양으로까지 사용됐다. 그 후 2007년 ‘대한민국 국기법’ 제정으로 태극기의 제작, 계양, 취급 지침이 완성됐고, 다시 2011년과 2014년 등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태극기가 전통적 의미의 신성한 상징물에서 이제는 신성성을 벗고 옷이나 장식품, 액세서리 등의 문양으로 대중화됐고, 때로는 일명 ‘태극기부대’라는 시위대가 망토처럼 둘러쓰고 다니는 시위용품으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격세지감이다.

2019년 8월 15일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역사 복원의 중대한 사명을 실현하면서도 매우 실험적인 책 한 권을 번역, 출판했다. 『해양 국가의 깃발(Flag of Maritime Nations)』이다.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1882년 7월경 출판한 이 책은 1882년 미국 의회 제17차 회의에서 깃발에 관한 최종 동의안의 의결을 거쳐 공개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런 귀한 자료가 어떻게 국립해양박물관 수장고의 한쪽 구석 서가에 먼지를 켜로 덮여 쓴 채 숨어 있었던 것일까? 만약 이번에 출간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이 필요했을까. 『해양 국가의 깃발』은 19세기 세계의 해양 국가 43개국의 깃발을 모은 도감이다. 책 첫 장을 열면 눈에 띄게 기록된 “가장 신뢰할 만한 출처로부터 해군부 장관의 지시로 항해국이 작성함”이라는 머리말처럼 무한 신뢰를 자아내는 장정에 올 컬러판인 원본의 풍모를 그대로 살린 책이다. 당시 미국 해군부 항해국은 총 3000부를 인쇄해 그중 800부는 상원에, 1200부는 하원에, 나머지 1000부는 해군 함선에 배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쇄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별도로 인쇄 발행했다고 하나, 그 수량은 알 수 없다. 어쨌건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도서는 그중의 한 권일 것이다.

이 책에 조선(대한제국)이 세계와 겨루는 어엿한 하나의 국가임을 표상하는 원시 형태의 깃발이 수록되어 있다. 19세기 말 국제 정세 속에 등장한 43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경이롭고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는 미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이집트,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이탈리아, 일본, 라이베리아, 멕시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르시아, 페루, 포르투갈, 러시아, 산토도밍고(도미니카공화국 수도), 산살바도르(엘살바도르 수도), 시암(태국의 옛 이름),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트리폴리(리비아 수도), 튀니스(튀니지 수도), 터기, 콜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미국에 병합되기 이전의 하와이제도, 영국에 복속돼 있던 아일랜드, 트리폴리 같은

도시, 프랑스령인 폴리네시아의 소시에테제도 등이다. 이 가운데 태극기가 '코리아(COREA) 선박용 기(Ensign)'이라는 설명과 함께 하나의 국가를 상징하는 것발로 당당히 수록되어 있다.

필자는 이 책에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같이 당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해양 국가'라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에 '코리아'가 어깨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편 이 책의 가치와 의미에 대

해서 논하는 서문 격의 「논고 1」은 미국 해군 제독 로버트 슈펠트(Robert W. Shufeldt)의 회고록에서 "1882년(고종 19) 5월 22일, 제물포(인천)에서 열린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 때 성조기와 함께 조선 국기를 게양했다"라는 기록을 인용하면서, "이 회고록이 같은 해인 1882년 7월 19일 발간된 것으로 보아, 그해 5월 조인식에서 쓰인 태극기를 보고 미국의 관리가 모방해 그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의 관리가 그린 필자본 태극기가 미국의 워싱턴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슈펠트 문서함 내 한국 조약 항목에서 발견됐는데, 『해양 국가의 깃발』에 실린 영인본 태극기의 원 도안으로 보인다. 슈펠트의 회고록 속 태극기는 1882년 5월에 게양된 것이니, 박영효 일행이 그려서 게양했다는 1882년 9월보다 4개월 빠르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 국가의 깃발』에 등장하는 태극기는 한국 최초의 국기로 소급, 비정된다"<sup>1</sup>라는 주장현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주장은 자못 의미 있다.

이 책에 수록된 태극기는 가로 6.8센티미터, 세로 4.2센티미터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문(太極紋)과 건곤감리 등 현재 통용되는 태극기의 원형에 매우 가깝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 태극기의 제작 시점이나 제작자 그리고 용도 등에 대한 내용은 더 깊은 연구를 기다리는 부분이다.

이 글을 쓰는 내내 중학교 다닐 즈음 미술 수업 시간에 태극기를 그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요즘은 무엇 하나 자신의 손으로 만들 필요 없이 마트에 가면 없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됐지만, 그때는 아니었다. 필요한 웬만한 것은 직접 만들어서 썼다. 태극기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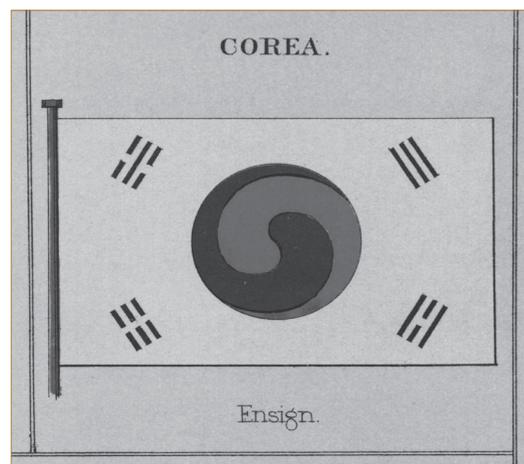


그림 3. 1882년 7월 미국의 『해양 국가의 깃발』에 소개된 태극기

경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다. 태극기 그리기 수업이었다. 그때 알았다. 3 대 2 비율의 종이 세로 변의 2분의 1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가운데 그리고, 가로세로 대각선을 접은 후 원의 중심에서 좌우 중간 지점에 컴퍼스 바늘을 놓고 회전해 호를 긋되 그 호의 끝이 대각선에 물리도록 한다. 그리고 원 지름의 4분의 1 지점부터 4괘를 얹는데 4괘 전체의 폭은 원의 3분의 1, 길이는 2분의 1이 되도록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원의 태극에 위는 붉은색, 아래는 파란색을 칠하고 4괘는 검은색으로 칠한다. 이것이 태극기를 그리는 작도 원리다. 이렇게 해서 만든 태극기를 우리는 사방에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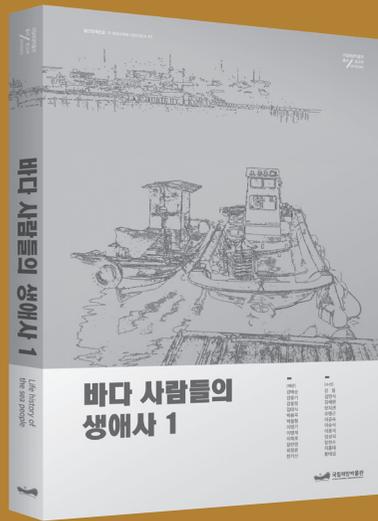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태극기를 그릴 줄 아는 아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긴 태극기를 둘러쓰고 다니는 철없는 노인도 있는 세상에, 태극기 좀 못 그린다 해서 흥이 될 일은 아니다. 태극기의 처지가 이래저래 안타까운 오늘날, 태극기의 원형이 담긴 『해양 국가의 깃발』 출간의 의미는 자못 심상치 않지 않은가.

1 논고 1, 「1882년 선박 깃발로 소개된 한국 최초의 태극기」, 주장현.

# 민중이 기록한 바다 생활사

노용석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1·2(국립해양박물관, 2019)

## 역사 없는 사람들과 기록

역사학자 어니스트 겔너는 서구 유럽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발생하기까지는 표준화된 언어 수단과 문자가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족주의가 성립하는 데 자본주의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한 체제 내부의 다수가 공유하는 문자와 문자 교육이 기본적인 자본주의적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민족주의가 발전한다고 보았다. 비슷한 견지에서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연구를 해오던 베네딕트 앤더슨 역시 민족주의 형성에 활자와 언어가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지방어 사전과 역사서, 지방 신문 등이 민족 정체성을 ‘발명’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한 사회의 고차원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문자와 기록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문자와 기록은 단순히 후세대에게 기억을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좀 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담론을 창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민중은 자신의 과거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에릭 올프는 이러한 민중을 ‘역사 없는 사람들(people without history)’이라고 정의했다. 이렇듯 민중의 생활사는 대부분 기록 없이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하물며 바닷가 어민의 생활사는 오죽했겠는가. 만약 어민에게도 기록의 기회가 있었다면 서두에서 언급한 민족주의와 같은 다소 거창한 담론은 아니더라도, 단순히 어민의 일상을 보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와 기록을 통해 자신들만의 담론을 생산하고 새로운 문화 가치를 생산해냈을지도 모른다.

활자화된 기록은 단순히 글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와 철학을 생산해 낼 수 있다. 문자가 상징성을 만들어내고, 그에 힘입어 인간의 인식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단순하게 볼 때 이번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출간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는 민중의 생활사를 기록했다는 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 민중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어민이라면, 이것은 상당한 모험과 향후 연구에서 하나의 정형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민은 다른 어떤 활동 공간보다도 기억과 인지, 감각적 활동에 의한 많은 전승을 가지고 있다. 과거 많은 어민은 어군탐지기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물고기를 잡는 위치와 향해로 그리고 각종 바람의 종류 등을 자신의 오감과 경험, 주변 자연 환경의 특성을 통해 인지했다. 이것은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이고, 오로지 세대를 통한 ‘경험의 전승’을 통해서만 이어져 내려왔다. 현재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에 등장하는 이들은 뒷세대에게 경험을 배운 마지막 세대이고, 향후 새로운 전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출발점이다. 또한 이 책에 등장하는

어민은 우리 시대에 가장 변화무쌍했던 20세기를 구술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는 훌륭한 기획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과 오늘의 과제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가 왔다. 또한 자기 기술(記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대전화와 SNS에 자신의 일상을 알리고 타인과 생활을 공유한다. 이는 실로 개별 기술의 역사에 이어 혁명적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제 또 인류가 현재만큼 자신의 생활사를 상세히, 그리고 부지런하게 기록했겠는가. 쏟아지는 개인의 자기 생활사 기록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개별 기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 시점은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고, 기록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듯 변화해가는 사회적 분위기는 생활사 연구 분야에도 좀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 사실 근래에 들어와 구술사 혹은 생애사에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중의 생활사를 옮긴다는 것이 ‘지고지순한’ 학문의 영역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사회 혹은 학계에서 민중 생활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 이후다. 그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민중의 생활을 글이나 사진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21세기 이후 시작된 ‘민중 생활사 기록에 대한 열정’은 지금까지 그 어느 시기보다 뜨겁다. 한국에서 민중의 생활사가 기록되는 본격적인 시작점은 아마도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이 2002년 출범한 이후일 것이다. 이 연구단은 한국의 일고여덟 개 대학교와 연구소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원과 연구 보조원을 포함해 70여 명의 연구진이 활동하고 있다.

연구진은 잊힐 수도 있었던 20세기 한국 민중의 생활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의 목표는 역사 없는 사람에게 역사를 건네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원이 인터뷰를 통해 구술 생애사를 수집했고, 생애사와 연관된 사진을 모았으며, 다양한 물증을 수집하고 해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단은 특히 대규모 자료 집성 체계를 구성하여 생활사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체계를 세우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자 했다. 자료 축적은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했는데, 그 결과물은 대부분 ‘구술 자서전’ 형식으로 출간됐다. 이름 모를 민중의 생애가 책으로 출간되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주인공의 생애를 읽으면서 자신의 과거와 앞으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의 노력이 항상 장점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이것

은 마치 디지털 시대를 맞아 현재 우리가 엄청나게 접할 수 있는 SNS상의 개별 기록과 민중 생활사의 기록이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사실 민중의 생활사를 학문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종류의 ‘문화 범주’가 설정되어야 하고, 또 이렇게 설정된 문화 범주에 따라 개별 민중의 생활사도 하위 범주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의 생애사 수집은 ‘마구잡이’로 진행된 것처럼 보였다. 또 반드시 문화 범주로 구분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생애사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면서 어떠한 범주에 속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그리 없어 보였다. 이러한 단점은 연구의 치명적 잘못이라기보다 오히려 거의 최초로 시작했던 팀의 ‘실패한 경험’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는 생애사 그룹의 범주를 특정하여 생활사를 수집한 후 이들에 대한 모든 정보와 연관 지식을 체계화하여 총합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좋은 경우의 작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카테고리의 구술 생애사가 조직적으로 정리된 적이 별로 없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국가 폭력 피해자 혹은 고문 피해자, 한국전쟁 때의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특정 인권 침해 피해자 및 가해자 등 일련의 과거사 청산 정국에서 정리된 생애사가 있을 뿐, 실제 생활사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수집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2019년 현재 구술사에 대한 이해도는 전성기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생애사를 비롯한 구술사 연구의 결과물이 반드시 디지털 아카이브에 남겨져야 한다는 신념이 생긴 것 같다. 사실 이 모든 것은 20여 년 전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의 ‘자료 집성 체계’ 구축이라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것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자료 집성은 SNS에 올라오는 개별 기술의 모임일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화된 범주의 꾸준한 생애사와 생활사 자료가 축적돼야 한다.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는 바로 이러한 시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 바다와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는 모두 스물네 명의 생애를 기록했다. 이들은 어민이거나 아니면 바다와 연관된 직업을 가졌다. 사람들이 사회를 조직해 생활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종류의 ‘범주’가 존재한다. 과거 한국 민중의 생활사를 연구했던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은 이러한 사회적 범주를 모두 열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고자 했다. 그 열 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자연과 환경, 몸과 마음, 삶과 일, 놀이와 공부, 가족과 이웃, 마을·고을

·나라, 여성과 아동, 사람의 종류, 공간과 교류, 세월과 신세타령.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에 소개된 각 생애사에는 이 열 개의 사회적 범주가 거의 포함되어 있다.

문화는 하나일지라도 이를 몇 개의 개념으로 추상화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를 서술할 수 없다. 많은 선학이 문화를 몇 개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L. A. 화이트는 문화를 기술 체계와 사회 체계, 이념 체계로, 러시아의 인류학자 S. M. 시로코고로프는 통구스족을 연구하면서 물질문화와 사회조직, 심리정신 복합체의 세 가지 개념으로 각각 설명했다. 국내의 인류학자와 민속학자는 사회 체계, 민간신앙, 산업 기술, 의식주, 민속예술, 구비 전승의 여섯 개(『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내지 사회구조, 관혼상제, 일상생활, 의식주, 민간 생활, 종교, 세시풍속, 전승놀이, 구비 전승의 아홉 개(『한국민속대관』)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문화를 크게 혹은 작게 쪼갠 이러한 몇 개의 개념은 각 문화를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추상화된 문화의 개념은 민중의 생활 양상을 건져 올리는 하나의 그물망에 해당한다. 그물망의 크기가 균일해야 씨알이 고른 수확을 할 수 있듯이, 문화의 그물망 상호 간에도 균형이 있어야 한다. 광활한 바다에 부유하는 수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문화의 그물망도 시·공간적으로 고도의 유연성과 포괄성을 필요로 한다.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는 두 개의 중요한 영역을 나누어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수산 분야’와 ‘해양 분야’다.

먼저 수산 분야에 포함된 이들은 주로 생업으로서의 고기잡이와 바다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 생애사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법성포 굴비, 죽방렴 멸치, 영덕 대게, 영산포 홍어, 서산 어리굴젓, 제주도 해녀, 고성 명태, 공동 어시장 경매업, 포항 과메기, 통영 수하식 굴, 소래 염전 등인데, 이것들은 과거 한국 수산업의 주요 분야였으며, 한국의 ‘계획적 경제발전기’를 대변하는 중요한 ‘음식’이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한국의 1960~1980년대를 계획적 경제발전기로 규정하면서 새마을운동 등을 통한 농촌 사회의 변화와 도시민의 식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지만, 어촌과 수산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는 큰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는 수산업을 주업으로 삼아 살아가던 바닷가 사람들의 인생과 공동체를 소개함으로써 자칫 농업과 산업화의 물결 속에 잊힐 수 있었던 중요한 수산 분야의 개인 기록을 남긴 것이다. 특히 점차 환경과 기후가 변하여 주요 어획 종이 바뀌는 한국에서 이러한 수산업에 대한 자세한 구술 생애사는 상당히 중요한 기록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십 년 전 한국인에게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명태는 현재 기후위기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은 기후가 변하여 기존의 물고기가 사라지면 다른 물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이전 물고기에 대한 기억과 생활 방식은 기억 속에 항상 남아 있게 마련이고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없어

져버리게 된다. 1970년대 우리의 국민 생선은 명태였지만, 이것은 명태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명태를 잡고, 이것을 내다팔고, 또 이 생선을 사서 먹었던 우리 삶의 기억이지, 물고기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수산 분야의 생애사 조사는 개인의 삶을 추적하여 중요한 시기(유년기-청년기-장년기 등)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의 생애와 포괄적 수산업의 관계를 엿볼 수 있기에 상당히 중요한 시도라고 본다. 또한 조사 내용에는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개인 소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이해도가 높고, 수산업과 관련한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직업 현장에서 활동할 당시의 담론과 공동체의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반도에 존재했던 수산업 분야는 단지 열두 종류로만 한정될 수 없기에 아직도 많은 수산 분야 직업군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프로젝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해양 분야’ 연구는 자신의 생계를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이들의 생활사다.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에서 조사한 이들의 직업을 보면 수리조선소 노동자 ‘깡깡이’, 해기사, 등대원, 항운노동자, 양식업 종사자, 선구점 종사자, 조선소 노동자, 남극 세종기지 건설 노동자, 어업지도관, 선원, 항해사, 조선소 앞 식당 하숙집 종사자다. 이들은 해양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 민중의 생활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세부적 직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구술 생애사 작업이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 작업은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사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실시된 여러 종류의 해양 관련 생애사 프로젝트는 모두 수산 및 해양과 직접 연관성을 가진 이들에 한해 실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에서는 상당수의 해양 연관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해양 기억’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글의 내부 구성을 봐도 구술 생애사 연구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성장 과정(유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과 통과의례, 가정과 공동체의 일상생활사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해양과 연관된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 근현대사의 민중 생활사를 새롭게 복원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대원으로 36년 동안 근무했던 강용정의 생애사는 자신의 직업과 예전에 있었던 담론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요한 장면을 보여준다. 그는 1960년대 후반 ‘등대원 시험’을 치르고 기능직 공무원인 ‘등대원’이 됐고, 이후 여러 작은 섬을 돌며 바다 생활을 시작했다.

등대지기, 등대수에서 등대원으로 바뀌요. 그러다가 등대 그러면 아주 소외된 곳, 60~70년대 그때는 조금 인식이 그랬어요. (……) 그러다 최근에 와서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래도 봉사하

고 섬기는 그런 직업이었던 걸 공감대를 가져왔지. 우리 딸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등대라는 표지가 ‘항로표지’로 이름이 개명이 됩니다. 나는 지금도 항로표지관리소라고, 그게 조금 불편해요. - 국립해양박물관, 2019, 61쪽

강용정의 생애사에서 등대는 최근에 들어와 ‘항로표지’로 이름이 바뀌었고, 등대소는 ‘항로표지관리소’가 됐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당연히 명칭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용정이 구술한 것은 ‘등대’로서의 담론이 자신의 기억에 있을 뿐이며, 등대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만 그 당시의 복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생애사 곳곳에 보이는 여러 단어는 구술자의 인식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은 비단 등대와 같이 잘 알려진 단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의 ‘해양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성과물은 해양 관련 직업과 본인의 삶을 연결하면서 자신의 전체적 기억을 서술한 부분이다. 구술 중간중간 조사 내용과 결부하여 삽입해놓은 개인 소장 사진은 구술자의 삶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들어가기’와 ‘축약형 생애사’, ‘연보’ 등의 내용은 개인의 전체 삶을 효과적으로 요약해 전달해주는 중요한 기법으로 여겨진다.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양 관련 분야 역시 21세기에 들어와 급격하게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과거 호황을 누렸던 조선업 등이 ‘산업고고학’의 영역으로 퇴장하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것은 1970~1980년대 한국 섬유산업의 메카로 불렸던 대구에서 많은 섬유공장이 전쟁 후 남겨진 피난민의 집처럼 남아 있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산업의 찌꺼기’까지도 전체적인 학문의 관점에서 연구해야 하며, 이러한 영역을 산업고고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 재생’의 영역이란 산업고고학의 또 다른 요청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사라져가는 과거, 즉 1960~2000년대 한국 해양업의 다양한 직업 역시 산업고고학의 견지에서 기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여정에 ‘해양 휴먼 히스토리’ 프로젝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바다의 기억을 모두에게 전하기 위하여

요즘 바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물 안에 들어 있는 것과 물 밖에 있는 것이 모두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물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물고기일 것이고, 물 밖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일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21세기 들어 한국의 항구와 바다는 총체적인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수십 년간 많이 잡히던 물고기가 이제 더 이상 잡히지 않으니 새로운 기술과 어법 등을 이용해 다른 어종을 잡아

야 한다고 말한다. 또 혹자는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물속 환경이 너무 변해서 전체적으로 물고기 수가 줄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물속 환경과 비례해 물 밖 환경(어민의 전체적 표상)도 변화하고 있다. 현재 아무리 큰 항구를 돌아다녀도 젊은 한국인 선원을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됐다. 지금 선박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는 베트남에서 왔거나 필리핀, 태국 등에서 건너온 외국인 노동자다. 또한 과거에 성황을 이루던 고기잡이배도 하나둘 줄어 지금은 어지간히 큰 항구에서도 1970~1980년대 선박 수보다 많은 배를 보기가 힘들게 됐다. 이와 더불어 과거 화려하게 성황을 이루던 부둣가 인근의 상권은 일부 관광지로 탈바꿈한 항구를 제외하면 거의 인적이 끊긴 외딴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제 과거의 한국 바다를 기억하고 구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들은 아직까지 구술을 할 수 있는 60~70대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칠게 살아온 1970년대 문화를 기억하고 있으며, 떠나면 바다로 진출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었던 해양 문화도 기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민중 생활사 기록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활 영역 카테고리 속에 들어간 특정 단어를 저장하고, 이를 후세대에 계속해서 전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는 어촌 및 어민의 기억과 생애를 계승하기 위한 좋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국립해양박물관,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1·2, 2019.  
베네딕트 앤더슨 저,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2.  
어니스트 겔너 저, 최한우 역, 『민족과 민족주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9.

#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의 여정과 여운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2018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학술대회

홍영의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 고려 건국 1100주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는 근대 사학 태동 이후 단군조선의 개천절 행사를 제외하고 한 번도 나라의 개국 기원을 기억하지 않았다. 불명확한 단군조선의 개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구려나 신라, 백제 등 고대국가로부터 중세에 이르는 고려나 조선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여서 그랬던 것일까? 고대국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려는 역사 기록에 개국 연도와 날짜가 명확히 남은 나라다. 2018년(음 6월 15일, 7월 25일)은 태봉의 궁예를 내몰고 철원 포정전(布政殿)에서 고려를 건국한 지 1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경기(京畿) 정명(定名) 10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올해는 개경 정도(定都) 1100주년이 되는 해다.

언제부터인가 고려(918~1392)는 우리 역사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한국사의 허리에 해당하는 고려시대는 이전의 삼국시대와 뒤이은 조선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왔다. 이유가 무엇일까? 근대와 맞닿은 조선은 가까운 역사라는 이유로, 고대는 민족의 형성기라는 이유로 관심이 집중됐지만, 고려는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주성이 강조된 이래 점차 한국사에서 멀어져만 갔다. 여기에는 고려의 수도가 개경(개성)인 만큼 주요 유적이 북한 지역에 집중된 것에도 큰 이유가 있지만, 고려사를 연구하는 남한 학자의 수적 빈곤 속에서 그들의 연구도 문헌 자료에 의존해온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고려가 역사 연구를 소홀히 해도 될 국가는 아니다. 고려는 475년간 지속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완전한 통일 국가다. 신라를 계승한 단순한 정치 통일이 아니라, 옛 고구려나 백제의 문화와 정서까지 아우른 실질적 민족 통일 국가였다. 고려는 내부적으로 여러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고 신분 이동도 활발한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였고, 밖으로도 주변국과 정교한 다원적 실리 외교로 독자 생존을 이루며 문화를 꽃피운 나라였다.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된 오늘날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역사 속 국가가 고려다. '코리아'라는 명칭도 남북한이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원-코리아(One Korea)'를 꿈꾼다. 남북 간 이념의 갈등에서 포용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다양성과 통합성, 개방성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원화 사회였던 고려는 21세기 대한민국 현재(역동성과 개방성)의 원형질이자 DNA를 가지고 있으며, 21세기 대한민국 미래(다양성과 통합성, 개방, 포용과 통합, 평화)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이 고려 건국이 현재에 갖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연히 탐구와 공유(역사 대중화)가 절실하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고려의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일깨우기 위해 정말 많은 행사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개최됐다. 학술 행사를 비롯해 전시와 특강이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행사 주제도 다양하고 풍부했다. 또



국가기관뿐 아니라 관련 학회와 지자체의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 있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했다.

그동안 한국중세사학회는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사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했다. 그 준비의 첫 움직임은 2017년 3월 10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5월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위원장 박종기)'가 구성돼 공식 출범했다.

이때 의결된 1100주년 기념사업의 주요 목적은 고려 건국의 의미를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후속 연구 세대 양성과 좀 더 광범위한 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로 정했다. 이후 몇 차례 회의를 열고 임원진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구상했다. 특히 교육부와 관계 기관뿐 아니라 지역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그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 할 수 없는 행사는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진행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야만 했다.

당시 학회와 조직위 기획을 담당했던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안을 준비해야 했다. 학회 차원에서 1100주년의 의미를 지닌 다양한 학술 행사의 주제를 선정하고, 우리 학회와 인연이 있는 여러 기관과 단체에 행사 제안과 함께 협조를 요청했다. 2018년 한 해에만 국제학술회의 두 차례, 일반 학술 행사를 다섯 차례나 치를 수 있었던 것은 학회와 조직위의 노력과 함께 그만큼 우리 학회의 역량과 위상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고려 연구자가 모인 전국 단일 규모의 최대 학회라는 이점만으로도 큰 동력이 됐다.

이 글은 필자가 2년 동안 학회 기획위원장과 준비위 기획위원으로 기획과 학술 행사 주제를 마련하고 주관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였던 국제학술회의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2018년 9월 7~8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를 자료와 기억을 더듬어 정리, 기술한 것이다.

###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획

2018년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사실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2018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학술회의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는 필자가 운영하는 '한국섬역사연구소'에서 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 2018년 5월 11일 열린 2018년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대회 <섬과 바다, 그곳에서의 삶: 섬과 바다 조사 연구 전망과 향후 과제>를 진행하는 기획 회의 과정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당시 '고려의 바다' 기획안 내용은 '고려는 한국사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넘어서 보다 더 큰 의미의 민족통일을 완성한 국가라는 것.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은 지금도 남북 분단이라는 민족적 비애를 간직한 채 서로 대립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점. 이러한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려 건국은 여러 가지로 포괄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을 부각했다. 즉 '고려는 후삼국 통합은 물론 발해를 포용해 실질적 민족 통일을 완성한 국가라는 점. 또한 다양성과 통합성 그리고 개방성과 역동성을 가진 다원적 사회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과도 부합하는 개방·통합·포용·평화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내년을 고려의 해로 선포하는 것은 남북한 역사 인식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통합과 통일의 시대정신을 공유하며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이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선언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학술대회의 의의로 강조했다.

'고려의 바다'를 주제로 한 것은 고려를 둘러싼 다원적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의 바다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열린 천혜의 해상국가'다.

섬은 고대 이래로 해로를 통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교류의 거점이기도 하고, 해산물을 육지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곳이기도 하며, 교통과 국방상 중요 지점의 섬에 군현(郡縣)과 진(鎭)을 설치할 만큼 국가적 관심이 높았다. 고려시대까지 바다는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바닷길)로 기능했고, 섬은 바닷길의 징검다리였다. 즉 고려인에게 바다와 섬은 삶의 현장이었다. 바다와 섬 주민, 섬의 토지는 왕화의 대상으로 국가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자원(財源)이었다.

고려가 섬을 크게 주목한 시기는 크게 궁예 정권 때 왕건의 나주 경략과 고려 중기의 대몽항쟁기, 고려 말의 왜구 침탈기로 구분할 수 있다. 궁예 정권하의 왕건은 해군대장군(海軍大將軍)으로 진도군(珍島郡)과 고이도(梟夷島)를 점령해 나주로 이어지는 뱃길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서해에서 남해로 이어지는 뱃길의 길목인 압해도(壓海島·壓海縣)를 장악하고 있던 능창(能昌)을 제압하면서 서남해 지역과 해상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또 건국 후 태조는 대표적인 원해(遠海)의 해양 세력이 존속하는 우산국(율릉도)과 탐라국(제주)을 복속했다. 여기에는 고려의 천하관, 즉 황제국을 자처하던 고려는 주변의 여진과 일본 등을 제후국으로 삼는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물론 원해의 섬 가운데 우산국이나 탐라국은 고려가 지향하는 천자와 제후-종변(宗蕃)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고려의 천하관과 함께 섬에 대한 인식을 유추해볼 수 있다.

고려 초부터 바다와 섬의 실태를 파악해 그에 따른 이용 가치를 확인케 해주었던 것은 고려가 지닌 해양적 속성에 있었다. 해상 세력 출신의 후예가 건국의 주역이 됐기 때문에 ‘해군통수(海軍統帥) 왕건이 자립해 고려 왕을 칭했다’고 하거나, ‘해국(海國)’으로 표현하거나, ‘해상(배)의 경제상 이익(舟楫之利)’을 언급할 정도로 고려는 해양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고려 태조는 해상무역에 중사했던 가문 출신답게 항해에 능숙했으며, 바다 사정에도 밝았다. 태조가 후백제의 배후 지역인 한반도 서남해에 집중돼 있는 나주 일대의 도서 지역 경략에 주력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는 그가 궁예 휘하에 있던 장군 시절부터 해전에 뛰어나 나주 연안과 서남해 일대 도서 지역을 장악하고, 고려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에는 해상 영역이 전라남도 여수 부근 돌산도(突山島)와 경남 남해도(南海島), 강주(康州, 진주) 일대까지도 확대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서남해 일대를 장악한 태조는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지원을 얻으려는 후백제의 시도를 해상에서 봉쇄해 차단함과 동시에, 해상 세력을 규합해 해륙 양면으로 후백제를 협공할 수 있었다. 이 역시 그가 바다에 친숙해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태조는 이를 바탕으로 해상 경영을 통해 얻는 부가 통일과 국가 경영의 재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또한 이를 잘 이용했다.

따라서 국제학술회의 주제인 ‘해양 강국 고려의 바다를 품다. 건국과 통일의 원천’은 바로 이러한 고려가 바다를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건국과 통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물론 이 주제는 뒤에 바뀌었지만, 왕건 집안의 해상 활동, 서남동해 해상 세력의 활동, 바다와 섬에 대한 인식, 고려 선박과 수군, 바다를 통한 대외무역이라는 다섯 가지 꺾직한 주제를 통해 고려가 바다를 통해 어떻게 이익을 확보해 건국과 통일 과정에서 활용했는지를 규명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려의 바다’를 정리해 기획했지만,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주관과 개최를 결정



국립해양박물관의 초청장과 학술대회 일정

한 것은 이듬해 2018년 1월 회의에서였다. 이때 발표 주제의 집중도와 세부 주제에 대한 외연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서로 공감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조직위 임시회의에서 대주제와 한·중·일의 관련 발표자와 토론자 선정을 의뢰했다.

성과와 의의

2018년 국립해양박물관의 국제학술회의인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의 주제의식은 해상 강국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이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고려의 바다를 심도 있게 조명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해상 강국으로서의 자긍심과 친해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였다. 즉 ‘코리아’가 전 세계에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의 활발한 해상 활동이 있었기 때문으로, 고려를 탄생시킨 해양 의식의 형성과 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9월 7~8일 이틀 동안 이루어진 이 학술회의는 한국중세사학회뿐만 아니라 국립해양박물관과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한국중세고고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합적 성격을 띤 의미 있는 행사였다. 하나의 학술행사를 위해 다섯 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라는



1부 발표 뒤의 토론

주제의 상징성 때문에 부경대학교 실습 탐사선 나라호에서 선상 토론회가 마련됐다는 점도 기억할 만한 일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 대한 언론 보도는 『서울경제』 “번영의 원천이었던 고려의 해양 경영 고찰”(2018년 9월 5일 자), 『일요신문』 “국립해양박물관, 2018 국제학술대회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 개최”(2018년 9월 6일 자) 등의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의 학술 발표는 총 4부로 구성됐다. 먼저 등록과 개최 행사를 맡은 백승욱 실장의 진행 사회로 김기섭 한국중세사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주장현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의 환영사, 김영섭 부경대학교 총장의 축사에 이어 기념 촬영을 마치고 본 발표를 시작했다.

첫날 1부는 필자의 진행 사회와 토론으로 [기조 강연 1] ‘고려 건국과 통일, 바다’(이정신 한남대학교 명예교수)와 ‘왕건의 해상 활동과 고려 건국 및 통일기의 해상 활동’(강봉룡 목포대학교 도서관학원장), ‘고려의 동아시아 바다, 중세 해양사적 관점’(아마우치 신지 고베여자대학교), ‘몽골시대 한·중 해상교통과 그 항로’(모리히라 마사히코 규슈대학교) 등이 이어졌는데, 고려의 해양사적 관점이 주 내용이었다.

2부는 조명제(신라대학교) 교수의 진행 사회와 토론으로 [기조 강연 2] ‘고려 물략과 바다, 왜구’(김기섭 부산대학교), ‘고려-송 해상 실크로드와 해양문화 교류’(위지강 중산대학교), ‘고려의 송상 왕래와 교역망’(이진한 고려대학교), ‘고려·중·일 승려의 해상교류와 불교 교섭’(박용진 능인불교대학원) 등을 통해 고려와 인접국의 해상 문화 교류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3부는 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의 진행 사회와 토론으로 ‘고고 자료를 통해 본 고려의 해상교류’(정의도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일본 출토 고려청자 연구’(후루야 데쓰오 교토국립박물관 연구원), ‘중국 출토 고려청자 연구’(동천리 항주박물관 연구원) 등으로, 고려와 인접국의 해상교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고 유물인 청자를 통해 해상교류의 한 단면을 추적했다.

주제의 다양성과 많은 발표자 때문에 개별 토론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회자가 토론을 겸한 것 또한 다른 학회 발표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사회와 토론으로 참여한 필자를 비롯한 세 명은 세부 주제에 대한 여러 시각과 논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도 있었지만, 1부의 사회였던 필자는 “그동안 고려가 바다를 기반하고 중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목하지 못



부경대학교의 실습 탐사선 나라호

했다. 아마도 그동안의 연구 분위기와 기초 자료의 부족이 장애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점에서 고려의 바다를 주목하고,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이 된 바다에 대해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도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하고, 중요한 출발점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의미를 평하고,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는 바로 고려가 바다를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각각의 주제는 고려의 바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말해주는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의 의의를 언급했다.

2부의 사회였던 조명제 교수는 먼저 종래 일국사(一國史) 위주의 시각에서 접근한 대외 관계사, 교류사라는 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상을 준다는 점, 나아가 전통적인 중화주의적 시각이 여전히 깔려 있어 근래의 연구 동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10~14세기는 중화 질서가 약화되고 거란-금-몽골제국으로 이어지는 유목제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시기인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국제교류와 교역에 대해서는 중앙유라시아 역사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시각과 방법론이 요구되며, 나아가 대외 교류가 국가권력의 영향하에 있지만, 9세기 이후 정치, 외교적 교류에서 민간 주도의 교역으로 변화했다는 것, 동아시아의 해상 교역은 이슬람 상인과 연계된 인도양 해역 세계, 동남아시아 해역 세계까지 연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 학자 대부분이 그러하듯, 관계사를 다루는 논문은 자국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외국 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나라호에서 바라본 오륙도 전경



나라호에 승선한 발표자와 토론자

3부의 사회였던 한성욱 원장은 중국과 일본에서 출토된 고고 자료를 통해 고려의 해상 활동과 대외 교류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하고 있어 고려 사회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이해

의 폭을 넓혔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이튿날인 9월 8일 열린 4부 선상 토론회를 위해 용호만 매립 부두에서 아침 9시에 모여 나라호에 승선했다. 부산 앞바다를 주유하는 동안 나라호 관계자로부터 배의 현황을 소개받았다. 건조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이루어졌고, 총 예산은 310억 원이다. 총톤수 1494톤, 길이 70.7미터, 폭 13.5미터, 승선 인원 66명, 최대 속력 14.3노트,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디젤기관 추진기 대신 전기 추진 방식이기에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이 참석해 김광철 교수(동아대학교)를 좌장으로, 전날 이루어진 발표에 대해 이종봉(부산대학교) 교수가 1주제,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2주제, 배상현(신라대학교) 교수가 3주제에 대한 토론을 담당해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고, 함께 승선한 여러 청중이 질문을 이어갔다. 첫날 다하지 못한 열띤 토론을 마치고 미리 준비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을 끝으로 용호만 매립 부두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1박 2일간의 짧지 않은 여정을 마치며 함께한 분들과 다음을 기약하며 해산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의 적극적인 지원, 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후원, 한국중세고고학회의 도움에 힘입어 성대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 아쉽다면 이러한 학술대회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바다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바다-배 위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음엔 부산과 하카타를 오가는 밤배 카멜리아호를 타고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에 대해 몽골, 중국, 일본 관련 연구자와 토론하고 감사하려 했던 기획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 전통 포구의 식민지 근대

한국역사연구회,  
국립해양박물관 학술회의

배석만  
한국과학기술원 강사

## 기획 의도:

### 연안 포구의 '다양한' 식민지 근대를 확인하다

포구는 바다와 강의 물길이 육지와 만나는 공간이다. 사람과 물화, 문화가 모이고 흩어지는 결절의 공간이기도 하다. 개항 후 제국주의, 자본주의, 근대, 식민이 모두 이곳을 통해 들어왔다. 당연히 포구는 가장 먼저 그 영향으로 기존 모습을 바꿨다. 제국주의와 식민자의 입장에서 보면 포구는 지배의 거점이자 개발의 집적이 일어난 곳이고, 식민지 피지배자의 입장에서는 수탈의 축수이자 억압의 장치였다. 그리고 이들이 뒤섞여 공간이 바뀌고, 물길이 변했으며, 사람이 섞이면서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냈다. 그러나 변화가 획일적 모습은 아니다. 포구가 개발을 만나 근대 항구로 변신하는 대칭점에는 아예 사라지는 포구도 존재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친 전국 연안 포구의 변화 과정은 근대, 개발, 확장, 식민, 수탈, 쇠퇴 등 모순된 키워드가 혼종하면서 한국 근대의 다면적 모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목적은 이렇듯 근대 이행기 전통 포구가 경험한 다양한 변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특징으로 전국에 걸쳐 수많은 포구가 존재한다. 이들 포구는 개항, 식민지, 해방 후 경제개발이라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친 근대 이행기 속에서 다양한 시대성을 가지고 변화를 경험해왔다. 그러나 주로 연구된 것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개항되어 변경의 전통 포구에서 근대 항구로 개발된 부산, 인천, 목포, 원산 등의 주요 개항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포구의 역사상은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강제된 근대라는 시각이 연구를 압도적으로 규정하면서 단조롭고, 때로는 모순적인 모습을 갖게 됐다. 개항도시, 근대도시, 식민도시는 같은 시기,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같이 쓰이는 단어이고, 같은 내용을 수탈로도, 근대로도 규정하는 현상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포구와 관련된 분절적이고 모순된 역사 키워드의 유기적 연관 그리고 이를 통한 풍부한 역사상의 정립을 위해서 큰 개항장뿐만 아니라 연안 곳곳에 위치한 포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한국에서도 해양사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이 시각에서 보면 기존의 역사 서술은 '육지사 연구'로 점차 상대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인 이상 어차피 이 두 영역은 밀접히 관계되며 분리되지 않는다. 그간의 해양사 연구 축적을 토대로 육지사와의 접점을 모색할 때이며, 이 경우 육지와 해양을 연결하는 결절지로 '연안'의 거점으로 표현되는 포구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항과 식민지 그리고 해방 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는 시기까지의 이른바 근대 이행기를 경과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기존 전통 포구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본격

적인 역사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 시행을 계기로 ‘지방사’ 연구가 활성화되고, 21세기에 접어들어 해양사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전통 포구가 개항장으로 변모하는 것에 주목했지만, 부산이나 인천 등 제국주의에 의해 근대 항만으로 개발된 몇몇 항구에 대한 연구에 국한됐다. 그나마도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한 타율적 개항과 침략 교두보 건설이라는 관점에 의한 초기 연구를 제외하면, 도시사 관점의 공간 연구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개항, 식민지, 해방 후 경제개발을 거치면서 변모를 거듭한 시대성에 대한 연구, 육로와 해로, 물류가 가져온 포구의 변화, 사람과 문화의 교류 등 많은 주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역사지리학 관점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등의 물길에 위치한 전근대 시기 포구의 분포와 입지 특성 그리고 개항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 과정에 대해 연구가 일부 축적됐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통한 공간 비정과 변화된 모습에 기계적 정리는 이루어졌으나 시대성을 반영한 역동적 변화와 그것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 등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역사학의 과제다.

## 발표 구성과 내용:

### 지역(local)과 민족 그리고 식민지 개발의 화두

학술회의는 총 다섯 개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종합 토론으로 구성됐다. 우선 중견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로 구성된 발표자와 지역사, 해양사, 도시사 관련 전공의 토론자 조합은 인상적이었다. 발표 대상이 된 포구는 서울 마포, 흥남항, 장항항, 마산포, 진남포였다.

먼저 마포에 대한 발표는 ‘20세기 초 마포 지역 경제 권력과 용산 거류지 일본인’이라는 주제였다. 전통 포구였던 마포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청과 일본 상인이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경제 권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주목했다. ‘지역의 경제 권력’이라는 범주 설정에서 보듯이 발표자는 지배와 수탈, 민족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굳이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민족 간 대립이라기보다는 이익에 따른 대립이었음을 얘기한다. 용산의 일본인은 마포의 한상과 경쟁, 조정, 타협, 연대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해 나갔는데, 그런 사례로 조운업의 경우 인천항 해운업자와 용산 운선업자 사이에는 한강 조운업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있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한강선교 가설 반대 운동에 연대하기도 했음을 밝혔다. 인천 해운업자와 마포 객주의 협업, 마포 선박업자와 용산 상인의 협업 관계는 국적에 의해 구별되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인 흥남항은 ‘일제시기 대함흥 구상과 흥남항’이라는 제목으로, 이 지역의

식민지 공업화 과정에서 항만 변화를 검토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 영역, 즉 식민지 지역민의 ‘개발 욕망’과 일본 재벌 기업 일본질소의 ‘기업주의적 지역개발 구상’이다. 발표자는 이들에 의해 항만 건설과 철도 부설, 인구 확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나, 한편으로 한계점도 명확히 지적한다. 식민지화 초기 단계에서 개항장 원산에 밀려 상대적 부진을 겪은 함흥 지역 유력자들은 일본질소의 지역 유치를 통해 기업에 의한 인프라 확대를 추구했으나, 정작 이렇게 들어온 일본질소는 지역민의 바람과 달리 일본질소를 위한 ‘기업도시로서의 변형’으로 개발을 한정했다. 이러한 일본질소의 ‘비지적(飛地的) 개발관’은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기업과 지역의 상생이라는 지역민의 희망은 동상이몽 속에서 와해될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내린다.

세 번째 발표인 장항항은 ‘장항의 식민지 근대’라는 제목으로, 일제강점기에 걸쳐 미곡항에서 공업항으로 변신했던 장항항의 식민지 개발 과정을 추적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주도의 항만 개발이라는 면에서 두 번째 발표인 흥남항과 비슷한 관심사다. 발표자는 우선 전근대 군사기지 성격의 포구였던 장항의 일제강점기 본격적인 개발은 제조 일본인 지주의 농사 경영과 이렇게 생산된 미곡의 대일 반출을 목적으로 한 교통 인프라가 유인한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충청남도 생산 미곡의 편리한 대일 반출을 위한 충남선 철도 종착역이자 일본 반출 출발항으로서의 장항 개발이며, 이렇게 구축된 한반도 중서부 교통 요지로서의 장항이라는 위상은 일제의 국책인 산금 정책을 수행할 장항제련소 건설의 주요 배경으로 연결됐고, 장항항을 미곡항에서 공업항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정리한다. 식민지 개발의 주체라는 면에서 보면 당연히 일본인 주도였고, 민간 주도로 시작하여 점차 식민지 지방권력, 중앙권력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간척사업 등을 통한 농사 경영 확대를 목적으로 했던 제조 일본인 지주, 충남선을 부설한 경남철도, 충남도와 도회라는 식민지 지방권력 그리고 식민지 중앙권력인 조선총독부로 전개되는 과정이었다고 보았다.

네 번째 발표는 ‘조선총독부의 마산포 폐쇄와 조선인 경제인의 생존 경쟁’이라는 주제로 마산포를 다루었다. 한말 개항장이었던 마산포를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조선총독부가 군사 지역인 진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항장에서 제외하면서 어떤 변화 모습을 보였는지에 주목했다. 일제강점기 전통 포구를 무대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관계됐는지에 대해서 살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발표인 마포와 비슷한 관심사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편차가 크다. 마포의 사례가 민족 문제가 식민지 공간의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전통적 시각에 일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마산포의 사례는 민족 문제를 오히려 전면에 내세워서 식민지 권력의 정책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생존하는 한국인 자본가의 모습에 주목했다. 특히 ‘기업체 명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마산포를 거점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간 한국인 기업가(발표자는 좀 더 포괄적 의미로 '경제인'으로 표현함)의 전체적 실태를 드러내 보이려고 한 것은 그 의도의 성패에 관계없이 흥미로운 시도라고 생각된다. 분석 결과 마산포의 한국인 기업가들은 식민지 권력과 일본인의 압박 및 공세 속에서도 자신들의 전통적 본거지이자 경제 영역인 마산포에서 세력을 유지했다고 했다. 발표자는 마산포가 보인 '한국인 위주의 경제 지대'라는 모습은 평양 지역을 제외하면 유일한 곳임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진남포를 사례로 도시사의 관점에서 '식민 도시' 형성에 주목했다. '전통 포구 진남포의 식민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발표 제목은 발표자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평안도의 전통 포구였던 삼화부 증남포가 어떻게 식민 도시 진남포로 변신했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그 군사적 특징인 청일전쟁을 계기로 설치된 일본 육해군의 군사시설, 다음으로 각국 거류지,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인프라가 형성되고 일본인 식민자 사회가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일제에 의한 식민 도시로 형성되는 흐름은 일제의 전략적인 주요 항구 조약 체결, 군사시설 설치, 개항, 식민자의 이주, 매립, 시가지 형성, 철도와 도로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의 틀로 전개되는데, 진남포 역시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일전쟁을 위한 병참기지 조성으로 시작하여 각국 거류지 형성과 외국인 잡거는 진남포 식민 도시 형성의 특징으로 보았다. 식민 도시 진남포의 건설 자체가 군사기지 조성이며, 상층 자본가는 전부 일본인이고, 이들 식민자에 의해 지배되는 침략의 거점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면 발표자의 시각은 '침략'과 '수탈'이라는 전통적 시각과 거의 궤가 일치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전통적 시각을 좀 더 강화하는 듯한 뉘앙스의 서술도 자주 나타난다.

## 성과와 과제:

### 식민지 근대 주체들의 정립과 상호 관계 모색

학술회의가 1차로 목적인 전국 연안 포구에서 나타난 식민지 근대의 다양한 변화 모습을 확인한 것은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사례로 제시된 이들 다섯 개 포구가 식민지 근대의 어떤 다양성을 대표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대답이 용이하지는 않다. 기획 의도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조직된 발표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관련 연구 인력 풀과 기존 축적된 연구 수준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다. 이것은 전국 연안 포구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발표자 자체를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전통적인 연안의 포구가 식민지, 근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학술회의 기

획 시점에서 연구가 가능한 사례를 병렬적으로 조직한 면이 있다.

따라서 종합 토론에서 발표된 다섯 개 포구를 아우르는 공통분모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은 당연하다. 이것은 이번 학술회의가 가지는 한계이자 과제이기도 하지만, 몇몇 주요 개항장에 국한된 기존 포구와 항만 연구의 외연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이기도 하고 연구사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회의가 한반도에 수없이 산재하는 포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섯 개 발표에 대한 개별 토론 그리고 학술회의 말미에 별도의 세션으로 마련된 종합 토론에서는 우선 이번 학술회의가 1차 과제로 규정한 전국 각 지역의 포구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식민지 근대의 모습을 밝혀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와 관련한 마포, 흥남항, 장항항, 마산포, 진남포라는 다섯 개 포구의 다양함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다양함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전체적인 공통분모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 있었다. 첫째는 '식민지 개발'이라는 면에서 일제 식민지 권력이 주도한 장항항과 지역 유지,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한 흥남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는 마포와 마산포를 식민지 근대의 '경제 주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범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진남포를 식민지 근대의 '도시 변화'라는 면에서, 구체적으로 개항 도시에서 식민 도시로의 변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개별 토론과 종합 토론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식민지 근대를 이끌었던 다양한 주체다. 논의 과정을 보면 이제 식민지 근대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더 이상 차별과 수탈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관련 연구자들이 확고하게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포의 사례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자본가가 민족에 따른 대립보다는 이익에 따른 조정과 타협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해 토론자는 20세기 초 마포에서 일어난 한·일 자본가 사이의 경쟁, 조정, 타협, 연대의 모습을 '분점'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공동체'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식민지 연안 포구의 공간에서 이처럼 공동으로 합리적인 이익 추구를 가능케 했던 환경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흥남과 관련해서도 민족보다 지역에 주목한 발표로 규정하고, 이 지역 개발을 이끌던 주체를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그 실체를 밝히는 작업을 요구한다. 함흥군, 일본 질소, 흥남면, 조선총독부, 일본 정부 등을 주체로서 구분하여 실체를 구체화하고, 이들 단위가 관련 사안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식

민지 근대 지역 개발이 일본 제국주의의 정책적 관점만이 아닌, 해당 지역 주체의 개발 관점, 민간기업의 관점 등등이 대립·경합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항항의 사례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항에서 공업항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그 개발 주체인 지역 유지, 충남도와 도회, 조선총독부가 상호 관계 속에 움직이고 있고, 경쟁 지역인 군산이 대립과 경쟁의 모습으로 가세하면서 그런 모습은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마산포의 경우도 민족 문제에 주목한 것이지만, 지역 주체의 개별 사례까지 천착하여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주체에 대한 관심이 우선시되고 있다.

이렇듯 지역 관점에서 식민지 근대를 이끈 다양한 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기존 화두인 식민성, 근대성, 민족 문제가 도외시된 것은 아니다. 우선 장항항 발표와 관련한 토론에서는 근대성과 식민성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이해 및 사용과 관련한 직접적 질문이 있었다. 또 진남포와 관련해서는 일본 제국주의 국가권력에 의해 군사항으로 개발된 점에만 주목한 것에 의문이 제기됐다. 1910년대 이후 진남포의 성장 둔화는 군사항이라는 면보다는 경의선 부설과 평양에서의 일본인 상권 형성이 더 근본적 이유라는 지적이었다.

지역과 다양한 개발 주체에 주목한다고 하여 지배와 수탈, 민족 문제와 차별이라는 기존 관점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기존 화두와 새로운 화두가 상호 배척하는 관점이 아닌, 어떻게 관계하고 조합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진행된 역사도 그러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식민지 근대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처럼 보이지만,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개별 발표에 대한 구체적 언급 중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보완 요구도 있었다. 마포의 경우 일본 상인과 경쟁, 조정, 타협, 연대하는 ‘한상’의 실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남에 대해서도 개발을 주도한 지역 유력민의 실체에 대한 질문과, 일본질소가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 결정 과정에서 회사 내부 의견에 대한 파악을 요구하고 있다. 장항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장항제련소 부지로 장항이 선택된 이유와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내부의 결정 과정, 장항제련소의 모기업인 조선제련주식회사의 기업 관점 전략과 의도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요구했다. 마산포와 관련해서는 활용한 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조선인 경제인의 ‘생존 경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과 분석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아울러 마산포 공간에서의 한국인 경영을 얘기할 때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마산어시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추가 연구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진남포와 관련해서는 개항을 주도한 주체가 대한제국인지 일본인지, 1905년 이전 ‘서구의 식민 도시’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보완, 또한 이것이 정치적 관점 또는 경제적 관점인지 정립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전통 포구의 식민지 근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전체적으로 지배와 저항, 수탈과 개발 등 식민지 근대를 바라보는 기존의 이분법적 역사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학계의 일반적 인식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통 포구의 변화는 개항기,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후 경제개발기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대성을 연속적으로 포함한다. 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로 다룬 식민지 근대의 행위자인 일본이라는 근린제국주의이기는 하지만, 개항기 서구 제국주의와 중국, 해방 후 박정희 정권기의 개발도 연관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장항항의 경우 미국항이자 공업항으로 개발된 식민지 근대의 모습 중 해방 후에는 공업항, 그중에서도 장항제련소의 기업항 역할만이 남았다는 지적은 했지만, 그 과정에 대한 풍부한 분석이 시도되지는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19세기 후반 개항기 이후 20세기까지 포구, 항만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그 토대를 놓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술회의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논점은 당연히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회의를 기획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최초 개항장이었던 부산의 전통 포구인 구포, 하단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쉬웠다. 사실 구포와 하단에 대한 발표를 집어넣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 관련 연구자와 광범위하게 접촉했으나,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구포, 하단의 누락은 학술회의가 부산항 맞은편 영도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의 후원을 받아 부산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더한다. 플로어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짧았던 관계로 다양한 질의와 응답, 토론이 전개될 수 없었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이런 아쉬움은 관련한 다음 학술회의에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부산의 구포, 하단을 포함하여 국내 연안 포구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 다음 학술회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수군 훈련(水操)의 군례 절차 분석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수조출기』를 중심으로

김선  
전 국립해양박물관

## 들어가는 글

수조(水操)는 ‘수군 조련(調鍊)’ 혹은 ‘수군 습조(習操)’를 줄인 말로, 조선시대 해상에서 실시하던 군사 훈련을 말한다.<sup>1</sup> 이와 함께 훈련장에서 전술을 연마하는 장조(場操)와 산성에서 적을 수비하고 방어하기 위한 성조(城操)도 시행했다. 수조를 할 때는 장조와 성조처럼 지휘관을 정점으로 하여 예하 관속이 알현하는 군례(軍禮)를 거행한 후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임했다.<sup>2</sup>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서문에는 “국가의 방비 때문에 군례가 있게 됐다”라고 기록돼 있다.<sup>3</sup>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군례는 대열의(大閱儀)와 강무의(講武儀) 등의 조목으로 편제됐다.<sup>4</sup> 전쟁이 없을 때 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성과 보루를 쌓고 조련과 열병을 통해 군사력을 기르는 의식인 대열의의 경우 전술 훈련을 정리한 『병장도설(兵將圖說)』의 내용을 규정으로 참고하도록 했다.<sup>5</sup>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에서 군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현실에서 전쟁은 짧은 시간 안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전술 훈련의 절차를 성문화된 전례서의 법식에서 동일하게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병서에 기록된 수군 절차에는 군례의 거행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소개된 『수조출기(水操笏記)』 같은 자료에는 지상에서 군례를 거행하고,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한 전술 훈련으로 이어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특히 『수조출기』(국립해양박물관 소장)는 통제사를 정점으로 하는 통제영에서 거행했던 경상우도 수군 훈련의 군례 절차를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선의 의례에 대한 연구는 오래 가운데 분량이 많은 길례와 흉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본고에서 다루는 군례는 국가 의례 중에서도 비중이 적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많지 않고 있어도 소략하게 이어졌다. 군례 가운데 대열, 강무, 사례(射禮) 등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주로 진행됐다.<sup>7</sup> 군례와 관련된 복식이나 음악, 특정 의례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도 지속됐다.<sup>8</sup>

1 이민웅, 「17~18세기 수조 운영의 일례 고찰: 규장각 소장본 경상좌수영 『수조출기』를 중심으로」, 『군사(軍史)』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9, 57쪽.

2 『兵學指南』 卷5, 「場操」·「城操」.

3 “由備禦, 有軍之禮”, 『國朝五禮儀』 「序」.

4 『國朝五禮儀』 卷6, 「射于射壇儀」·「觀射于射壇儀」·「大閱儀」·「講武儀」·「吹角儀」·「救日食儀」·「季冬大雉儀」·「鄉射儀」.

5 『兵將圖說』 「陣法」·「大閱儀注」.

6 정해은, 「수군 훈련」, 『(한국) 전통 병서의 이해』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331~422쪽 참조.

7 정재훈, 「조선시대 국왕 의례에 대한 연구: 강무를 중심으로」, 『한국 사상과 문화』 50, 2009; 이왕무, 「조선 전기 군례의 정비와 사례(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연구』 54, 태종고전연구소, 2014; 강신엽, 「조선시대 대사례의 시행과 그 운영: 『대사례의궤(大射禮義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6, 2001; 신병주, 「영조 대 대사례(大射禮)의 실시와 『대

이렇게 축적된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조선시대 통제영이 지방 군문에서 거행한 의례 및 군례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특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중심 자료로 『수조홀기』를, 사서류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전례서로는 『국조오례의』, 병서로는 『병장도설』과 『병학지남(兵學指南)』, 지리서로는 『여지도서(輿地圖書)』를 이용했으며, 이들 자료를 통해 수군 훈련 시의 군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수군 훈련의 군례 절차 분석

통제영은 임진왜란의 전화(戰火) 속에 설치됐다. 전란이 끝나고 전후 복구와 함께 조선 후기 수군사령부로서 수행할 수 있는 군영을 완비했다. 통제영의 통제사는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3도를 관할해 해안의 군무(軍務)에 책임을 다했다. 또 관할 지역에 속한 무관과 군민을 안무(按撫)하는 직임을 가진 수군 최고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렇게 해안의 방어를 통해 국가의 융정(戎政)을 닦아 국방을 방비했다.

통제사는 임진왜란의 전란 과정에 처음으로 신설됐다. 1593년(선조 26) 선조와 관료들은 8월 각 도의 수군절도사를 통합하는 지휘 체계를 갖추고 통섭 권한을 지니는 통제사 직책을 마련했다. 또 통제사는 1601년(선조 34) 통제영이 두릉포로 이전돼 경상우수사 직책도 겸하게 된다. 조선 말 서구의 아시아 진출에 따른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해안 방어의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고종 때에는 통제사의 직급이 높아졌다. 대장의 직책으로 외등단에 오르게 된 것으로 보아 그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sup>9</sup>

1726년(영조 2) 영조는 통제사의 막중한 책임과 그 권한을 인식하며 통제사를 임명하는 교서를 내렸다.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이복연(李復淵)에게 내린 교서다.

왕은 이르노라. 곤열(閹臬)이 어느 것인들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는가마는 통제사만 한 것은 없으

사례의례』, 『한국학보』 28, 2002; 박종배, 「조선시대 성군관 대사례의 시행과 그 의의」, 『교육사학연구』 13, 2003; 백기인, 「조선 후기 국왕의 열무 시행과 그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 2006; 노영구, 「조선 후기 한성(漢城)에서의 열무(閱武) 시행과 그 의미: 대열(大閱)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2008; 소순규, 「조선 초 대열의 의례 구조와 정치적 의미」, 『사총』 75, 2012.

8 이숙희, 「조선조 군례에 사용된 음악의 종류와 성격」, 『한국음악연구』 32, 2002; 김우진, 「18세기 경상좌수영 군례악 연구 (1): 규장각 소장 『수조홀기』에 기해」, 『한국음악사학보』 49, 한국음악사학회, 2012.

9 김현구, 「조선 후기 통제사에 관한 연구」, 『역사와 세계』 9, 부산대사학회, 1985, 366~368쪽.

며, 조정에 무신이 충분하지만 우리 경(卿)을 바꿀 사람은 없다. 그 직임은 매우 어려우니 지금 제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돌아보건대 이 세병관(洗兵館)이 있는 변방 지역은 진실로 왜(倭)를 대비하는 요충이다. 빠른 바람을 타고 기습할 것을 염려해 요해처를 웅장하게 했으며, 또 삼도의 수군을 맡겨 그 권한을 중하게 해주었다. 이곳은 변방 방어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아울러 사력(事力)이 자못 넉넉하다. 앞에 큰 바다를 끼고 있어 고기잡이의 이익이 있고, 비축하고 있는 물자는 항상 여러 도(道)에서 으뜸이다. 그래서 군대를 잘 지휘하는 사람이라도 실정에서 벗어난 비난을 받기 쉽다. 전임자들을 낱낱이 헤아리면 혹 울림(鬱林)의 돌을 가질 정도로 청렴하더라도 거둬 법관(法官)에게 탄핵을 당했던 것은 모두 고장(姑臧)의 기름 때문이었다. 이것이 내가 개탄스럽게 여기는 바이니 누가 적임자이겠는가. 재지(才智)와 용략(勇略)을 갖춘 선비가 없음을 걱정하지 않지만, 간소(簡素)하고 근칙(謹飭)하는 사람을 반드시 쓰고자 한다.

경은 대대로 청백(淸白)의 전통을 전해 받았으며 일찍부터 방략에 통달했다. 용복(戎服)을 입고 있더라도 가난한 유자의 모범을 잃지 않았으며, 부귀해저도 가정에서 배운 법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충분히 몸에 배어 스스로 청렴함과 선량함을 지킨 것이다. 큰 지방과 중요한 변방에 시험해보았더니 과연 기대에 걸맞았고, 어영청(御營廳) 중군(中軍)과 금군별장(禁軍別將)에 발탁했더니 명성과 능력을 더욱 드러내었다. 지금 조정의 의론이 모두 추천하는 것을 보건대 마침 통제사를 신중히 선발할 때다. 이러한 때에 누구에게 부탁하겠는가. 나의 마음에 정해둔 사람이 있다.

이에 경에게 삼도통제사 겸 경상우도 수군절도사(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를 제수하니, 경은 공경히 이 총장(寵章)을 받고 평소의 지조를 더욱 면려하라. 채찍이나 신발 같은 하찮은 물건은 괜찮다고 받는 습성은 말끔히 씻어버리고, 절조를 지키는 명성은 그대 아버지의 기풍을 잘 따르라. 군무를 잘 다스리는 정사는 본래 행해야 할 계획이다. 군량을 비축하고 병기를 수선해 우리 국방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군함을 정비하고 기계를 준비하기를 항상 강한 적이 침입할듯이 하라. 그 밖에 안무하고 다스리는 방도는 모두 잘 헤아려서 조처하는 데 달려 있으니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경이 스스로 알 것이다. 아, 옛 덕을 기려 은혜를 더해주어 방금 작질(爵秩)을 추증한다는 명을 내렸으니, 조상의 아름다운 덕을 유념해 더욱 두려워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생각을 배나 더하도록 하라. 오직 한 마음을 영원히 지킬 것을 생각하고 세 변방이 평안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므로 이렇게 교시하니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한다.<sup>10</sup>

10 “敎三道統制使李復淵書。‘王若曰，閹臬執非重寄而無逾統帥，朝廷雖足武臣而無易我卿，其任莫難，今授非偶，眷茲洗兵之徵，允惟備倭之衝。蓋慮夫一蹕颺風旣雄所搯，又屬以三道水卒俾重其權，是爲關場之最要，兼且事力之頗瞻。漁採之利前挾大洋，儲峙之需常冠諸路，所以師中之吉，易速情外之言。歷數往前容有鬱林之石，累登柱後摠緣姑臧之膏，予所慨然，誰可任者？才明勇略之士不患無之，簡素謹飭之人必欲用也。惟卿，世傳淸白，夙通籌鈴，雖紱布在身，卿不失儒寒之模，雖紛華移體，而不替家庭之法。蓋濡染之既熟，故廉善之自持。嘗試之雄藩重防果稱期待，俄擢以御副禁帥益著聲能，方看朝議之

이 교서에서 영조는 통제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통제영 군영의 설치와 삼도수군통제사의 권한을 주는 이유, 통제사를 신중히 뽑아 군무를 다스리고, 군량을 비축하며, 병기 수선, 국방 안보를 견고히 하는 직무, 군함 정비, 기계 준비를 통해 적의 침입에 대비하면서 관민을 안무하고 다스리는 방도까지 당부했다.

통제사는 변방의 해안에서 일본의 침입에 대비해 국가의 군정을 도왔다. 즉 통제사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인식하고 군민의 사정을 살피면서 휘하 군관과 함께 산성과 해상에서 전술 훈련을 실시하는 역할을 해냈다. 통제사의 직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해안 방어는 수군 훈련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 후기 수군 훈련은 통영의 삼도수군통제사와 강화도의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가 주관하는 통영합조와 각 도의 수사가 주관하는 각도전양수조로 구분된다. 수군 훈련은 봄과 가을에 이루어졌다. 대개 봄에는 통영합조를, 가을에는 각도전양수조를 실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수조는 육조와 달리 시기를 놓치면 조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날짜가 매년 비슷했다.

통영합조는 통영의 통제사와 강화의 통어사가 각각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과 경기도, 황해도 수군을 징발해 훈련했다. 효종 때에는 진보의 이동을 통해 통어영 주변의 수군 세력을 정비했고, 현종 때에는 통영합조가 시행됐다.

조선은 각 도의 수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인조 때에는 오군영(五軍營)을 두었는데, 중앙에 훈련도감(訓練都監)을 두고 어영청과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 금위영(禁衛營)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수도의 중앙과 외곽을 방어하는 수도 방위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해안 방어를 강화하며 수군 조직을 개편하고 수군 훈련도 봄과 가을 두 차례 시행하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이를 통해 국내 정세의 안정과 국가 방비를 철저히 했다. 숙종 때에는 몇 차례 군제 변동을 통해 국방 체제를 강화했고, 수군 군역 확보와 수조 시행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숙종 재위 46년간 모두 11회의 수조를 시행할 수 있었다. 영조도 각 도의 수조와 관련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경상감사 황선이 아뢰었다.

“성상의 하교가 이러하니, 범사에 명을 받들어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간 뒤에 일에 따라 장계로 보고하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든건대 통제사 이복연이 올해의 수상(水上) 습조를 8월

咸推, 適際統垣之慎簡, 當是時而誰屬, 抑予心之有存, 茲授卿以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卿其砥膺龍章, 益勵素操, 鞭靴不已之習一洗此言, 水蘖有聲之風克追乃父, 至若克詰之政, 自是應行之謨, 峙糧繕兵, 要使我圉之益固, 整楫備械, 常若劬敵之旁侵, 其他撫綏尊理之方, 都在斟量區劃之善, 予不多詰, 卿宜自知, 於戲, 褒舊德而加恩, 繼降贈秩之命, 念先懿而增惕, 應倍殉國之誠, 惟思一心之永肩, 莫謂三陲之方晏, 故茲教示, 想宜知悉.” 『承政院日記』 英祖 2年 11月 27日(乙卯).

10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감사의 보장(報狀)을 살펴보면 대내외의 한재(旱災), 풍재(風災), 충재(蟲災)가 매우 심하니, 앞으로 흉년이 들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때 수상 습조를 갑자기 행한다면 군정(軍丁)들이 기한 내에 모이는 즈음 곤란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전에 이러한 때에는 으레 혹 습조를 정지했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이미 임박해 변통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만약 신이 감영(監營)에 도착한 뒤에 그래도 중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통영(統營)에 공문을 보내 전례대로 우선 수상 습조를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상이 일렀다.

“일의 형편이 그렇더라도 옛사람이 ‘편안해도 위태로워질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한 도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군무에 관한 일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 도의 흉년이 든 지역은 만약 어쩔 수 없다면 습조를 정지할 수도 있지만, 군비(軍備)를 닦는 도리에 있어서는 매우 소홀히 하는 것이다. 방백(方伯)의 입장에서는 비록 올해 수상 습조를 하기에는 편치 않다고 말할지라도 조종조에서 봄가을에 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은 것은 그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근래 인심이 편안한 데 길들여져 위난(危難)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번 수상 습조를 가벼이 정지해서는 안 된다. 경은 내려가서 형편을 살펴본 다음 수상 습조를 행할 만하면 행하되, 사실상 행할 수 없으면 다시 장계로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sup>11</sup>

경상감사 황선(黃璿, 1682~1728)은 전 감사의 보고 내용을 듣고 통제영이 있는 경상우도에 한재, 풍재, 충재로 흉년이 예상되니 가을에 수군 훈련을 정지하지는 주장을 했다. 황선은 흉년으로 군정들이 수군 훈련 기한 내에 모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또한 수조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군 훈련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영조는 ‘편안해도 위태로워질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위난에 대비해 해상 훈련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며 수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중요한 수군 훈련 절차가 『수조홀기』(국립해양박물관 소장)에 기록돼 있다. 『수조홀기』에는 조선 후기 통제영, 즉 경상우수영에서 각 읍진의 군선을 모아 수군 훈련을 행한 절차와 규칙이 기록돼 있다. 본문에 표기된 곤양, 고성, 창원, 거제, 사천, 진주 등의 지역명을 통해 경상우수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이 언제 작성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영등포(永登

11 “璿曰, ‘聖教如許, 凡事可不奉承爲之, 下去後, 當隨事狀聞, 而俄聞統制使李復淵, 今年水操, 以八月初十日爲定云, 以前監司報狀觀之, 道內之旱災·風災·蟲災孔甚, 前頭之失歎必矣, 此時水操, 若卒然爲之, 則軍丁期會之際, 多有難便矣, 在前如此之時, 例或停操, 今則日子已迫, 似難變通, 而若臣到營之後, 猶可及止, 則當行移于統營, 依前例姑停水操, 何如?’, 上曰, ‘事勢則然, 以古人安不忘危之道言之, 軍事不可輕矣, 至於諸道失歎之處, 若不得已則可以停操, 而其在詰戎之道, 甚爲疎虞, 方伯則雖曰今年水操不便, 而祖宗朝春秋定式, 意非偶然矣, 近來人心忒安, 不識陰雨之備, 今番水操, 不可輕易停止, 卿下去觀勢, 水造[水操]若可爲之則爲之, 實不可爲則更爲狀聞, 宜矣.’”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16日(庚午).

浦)<sup>12</sup>리는 지역명으로 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 1751년(영조 27) 통제영이 영등포를 포함한 칠진(七陣)을 혁파했기 때문에 흘기의 작성 하한선은 1751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조흘기』는 훈련 절차별로 별도의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면에는 수조에 앞서 군례를 거행하는 절차를, 후면에는 해상에서 전술 훈련을 행하는 절차를 기록했다.

먼저 『수조흘기』에 적힌 통제영 경상우도에서 시행한 전술 훈련의 이해를 위해 통제영의 지휘 체계를 파악해보자. 통제사는 경상우도 수군이 단독으로 작전할 경우에도 이를 지휘했다. 경상우도 지휘 체계는 통제사를 정점으로 다섯 개의 사(司)와 두 개의 영(營) 그리고 두 개의 척후(斥候)로 편제됐다. 사는 수비나 방어를 담당하는 주력 전투 부대라고 할 수 있다. 사의 지휘관은 파총으로, 보통 3품 이상 품계를 가진 수령이나 수군의 지휘관이 주로 담당했다. 파총 휘하에 각기 전(前), 좌(左), 우(右), 후(後)라는 네 개의 초(哨)가 편제됐다. 각 초의 지휘관은 동침절제사, 만호, 권관 등의 수군 지휘관과 부사, 현감, 현령 등의 수령이 담당했다. 영은 통제사의 호위부대다. 좌별선장과 우별선장을 중심으로 전, 좌, 중, 우, 후 다섯 개의 영이 존재했다. 척후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담당했다. 영등포만호와 당포만호가 각각 좌척후와 우척후의 지휘관이었다.<sup>13</sup> 이와 함께 산성의 수비 체제도 함께 이루어졌다.

영조 대에 간행된 『여지도서』에는 통제영의 인적 구성이 나타난다. 인적 구성은 삼도 통제사(三道統制使) 1명, 우후(虞侯) 1명, 산성에는 산성중군(山城中軍) 1명, 천총(千總) 2명, 파총(把總) 4명, 치총(雉總) 6명, 초관(哨官) 19명, 성장(城長) 19명, 지구관(知戩官) 7명, 기패관(旗牌官) 50명, 도훈도(都訓導) 6명, 화포감관(火砲監官) 2명, 성정군(城丁軍) 440명, 친병(親兵) 16명으로 소부대[哨]로, 각 읍에는 아병(牙兵)을 3개의 소부대[哨]로, 표하군 654명, 승장(僧將) 1명, 승군(僧軍) 42명, 전선(戰船) 3척, 좌우별선(左右別船) 2척, 거북선(龜船) 1척, 좌우방선(左右防船) 2척, 병선(兵船) 7척, 사후선(伺候船) 21척, 병대관(變待官) 140명, 선장 12명, 포도장 14명, 포수파총(砲手把總) 1명, 파수별장(把守別將) 2명, 지각관(知戩官) 6명, 기패관 20명, 도훈도 16명, 감관(監官) 18명, 별무사겸가왜장(別武士兼假倭將) 29명, 사부(射夫) 174명, 화포수(火砲手) 150명, 200명, 타공(舵工) 7명, 사공(沙工) 144명, 가왜군(假倭軍) 75명, 난후병(欄後兵) 41명, 능로군(能櫓軍) 841명, 선고직(船庫直) 69명, 중영장졸(中營將卒) 합해 38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4</sup> 통제사를 비롯해 통제영에 속한 인원이 군례와 해상 및 산성에서의 전술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술 훈련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군례 이후 대장이 좌선에 승선하고 장관이나 기총 대장(隊將)을 가리키는 관기를 불러 모아 명령을 전하면, 좌·우 정탐선이 햇빛을 올려 경보를 알

12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지역이다.

13 송기중, 앞의 논문, 2016, 284쪽.

14 『輿地圖書』下, 「官職」.

리면서 훈련이 시작된다. 중군이 본선에 돌아와 오방신기를 세우면 각 사초(司哨)에서 대답하는 포를 쏘고 깃발을 점(點)<sup>15</sup>한다. 다음으로 적선과 전투를 시작하고, 전투가 끝나면 배를 돌려 첨자찰(尖字札)로 변환하고 득승고를 올린다. 각 군선은 일제히 방진을 칠 기지에 도착해 방영을 형성하고 각 배는 모두 닻을 내리고 휴식한다. 각 배는 땀나му와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내보낸다.

공죄조사로 중군이 갑주를 입고 병선을 타고 좌선 아래로 가서 훈련 가운데 공로와 잘못을 강평하고 본선으로 돌아온다. 등을 올려 야간훈련을 시작한다. 중군이 조령관을 대장에게 올리면서 군령과 진도를 조대에 걸고 이어서 군호를 내준 후 대장이 아로 돌아가면서 훈련이 마무리된다.<sup>16</sup>

다음으로 『수조흘기』에 기록된 알현 행사는 『병학지남』에 기록된 지상 훈련인 장조 의식(場操儀式)과 비교해볼 수 있다. 장조 의식에 나오는 조련패를 걸고 영의문을 조금 열어두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수조 의식과 비교해볼 수 있다.

장조 의식에서는 첫 번째 절차로 훈련을 알리는 패를 건다. 첫 번째 신호에는 중군이 주장에게 장호를 보고하며 각 군사와 장군이 밥을 짓는다. 두 번째 신호에는 장수와 병사가 밥을 먹고 나서 군장을 갖춘 뒤 교장(教場)에 들어와서 열을 지어 대오를 정렬한다. (……) 기고관은 열을 지어 길을 정리하고 주장은 문 앞에서 정중히 의식을 갖추고 기다린다. 세 번째 신호에는 주장이 출발해 문을 나가면 포를 세 번 놓고 징을 두 번 울리며 대취타를 울린다. 주장이 장차 교장으로 들어오면 징을 세 번 치고 취타를 그친다. 그리고 포를 한 방을 높이 쏘고, 천아성을 분다. 군사들은 기를 앞뒤로 흔들며 고향을 세 번 지르고 징을 한 번 울려 나팔을 그치게 한다. 다음으로 징을 울리고 대취타를 한다. 중군, 천파총, 초관은 있던 곳에서 꿇어앉아 기다리다가 주장이 지나가면 곧 그를 따라간다. 그런데 주장이 장대에 이르면 징을 울려 취타를 그치게 한다. 바라의 가를 울리면 기들은 좌우로 줄을 나누어 서며 징을 울리고 바라를 그친다. 천총 이하는 원문 밖에서 기다린다. 영문을 조금 여는 과정(小開門)인데, 주장이 자리를 정해 앉으면 징을 울리고 군악을 분다. 그러다가 다시 징을 울려 군악을 정지하면 중군의 기고와 기패 등이 대(臺) 위에 올라가서 주장에게 예를 갖춘다. 중군이 두 번 꿇어앉으며 한 번 읍하고, 기고와 기패는 두 번 꿇어앉으며 두 번 읍한다. 다음으로 군뢰, 순시수, 취고수 등은 반을 나누어 인사하고 명이 내리면 긴소리로 이에 응답하고 물러간다.<sup>17</sup>

『병학지남』은 군대의 훈련, 진 치는 법, 행군, 호령 등에 대한 규정을 설명과 그림으로

15 점은 깃발을 지면에 대지 않은 상태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동작이다.

16 정해은, 「수군 훈련」, 『(한국) 전통 병서의 이해』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331~422쪽 참조.

17 『兵學指南』卷5, 「場操」, 「城操」.

수록했다. 훈련 규정을 기록한 병서(兵書)이기에 17세기 이후 훈련병의 교과서로 사용됐다. 규정을 적은 『병학지남』의 장조 의식과 『수조홀기』의 군례는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그러나 『수조홀기』에는 지방 병권의 대표인 통제사를 주장으로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동선 등을 명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대장의 대좌기를 세병관에 둔다. 장막을 세우고 깃발을 세운다. 여러 장관의 군례 등은 평상시와 같다. 대좌기는 예를 마치고 좌좌(罷坐)하는 나팔을 불면 관아로 돌려준다.

치진일

대장이 세병관에서 대좌기를 열면, 장막과 깃발을 올리고, 여러 장관은 군례 등의 일을 평상시와 같게 한다. 대좌기의 예식(例式)이 끝나면 좌좌(罷坐)하고 나팔을 불면 관아로 돌아온다.

치진일

수령과 변장은 직접 전선(戰船)을 올라탄다. 치진시에 포 한 방을 쏘면 □□□□하고, 치진 후에는 중영에서 기고관(旗鼓官)을 나누어 보내면, 좌우에서 도(圖)에 따라서 열을 지어 향오를 정렬한다. 두 번째 신호나팔을 불면 중군의 수령·변장과 영·읍·진의 여러 장관은 세병관 삼문 안팎에 이르러 기다린다. 세 번째 나팔이 불면 대장이 아문에서부터 말을 탄다. 징을 치고 대취타를 불고, 기패관은 문밖에 청도기와 위의를 배치한다. 대장이 종각 아래에 이르면 말에서 내린다. 신호탄을 세 번 쏘면 이때 수령과 변장이 삼문 안팎에서 공손히 (대장을) 맞이한다. 반수(班首)는 가자(加資)에 따라 맞이하고, 중군은 직접 따르는 것으로 공경히 맞이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당상(堂上)은 중문 안에서 공손히 맞이하고 당하(堂下)는 중문 밖에서 공손히 맞이한다. 대장은 세병관 문밖에 이르면 징을 세 번 친 후에 취타를 그친다. 징의 가장자리를 치고 깃발을 좌우에 나누어 세운다. 대장이 그대로 앉을 때 나를 불지 않고 마치면 징을 치고 취타를 불고 징을 치는 것을 멈춘다. 황문기수는 깃대를 맞물려 문을 만든다.

중군과 기고관·기패관이 먼저 알현한다.

다음으로 수령수·군뢰 취소수 반으로 나누어 앞드려 조아리고 (명령이) 내리면 응답하고 물러간다.

다음으로 중군이 무릎을 꿇고 승장포를 쓰는 것을 아뢰면 이어 대포를 세 번 쏘고 징을 치고 이하 대취타를 분다. 뇌자가 크게 세 번 소리친다. 뇌자일인이 나와 무릎 꿇고 큰 소리를 친다. 그러면 문 여는 기수가 소리에 응해 기를 휘두르고 뇌자들은 물러간다. 또 징을 세 번 치고 취타를 멈춘다.

다음으로 중군이 배의 갑판 위에 깃발 올림을 보고한 다음 명령이 내리면 물러가 포를 한 번 놓고 바라를 올리고 북을 세게 치며 깃발 올리는 것을 마친다. 매 반은 지시에 따라 들어오고 (뇌자

는) 큰 소리를 친다.

다음으로 부선별장 오른쪽에서 홀로 들어와 영내에서 두 번 무릎 꿇고 한 번 읍한다.

다음으로 친병 좌·우부친총은 좌우로 나누어 들어와 영내에서 두 번 무릎 꿇고 한 번 읍한다.

다음으로 한선장, 포수, 파총, 친병 좌우부, 좌우 파총은 영내에서 두 번 무릎 꿇고 두 번 읍한다.

다음으로 가덕·창원·거제·적량·미조항, 오사파총은 나누어 들어와 영내에서 두 번 무릎 꿇고 두 번 읍한다.

다음으로 산성치총 여섯은 나누어 들어와 영내에서 두 번 무릎 꿇고 두 번 읍한다.

다음으로 영등·당포, 좌우척후장이 나누어 들어와 영내에서 위와 같이 한다.

친병16초관이 나누어 들어와 영내에서 위와 같이 한다.

다음으로 삼천영 귀선장 곤양·고성·울포·좌한선(左翰) 오초는 왼쪽에서 들어오고, 다음으로 가배랑·진해·귀산·장목포·남촌·우한선(右翰) 오초는 오른쪽에서 들어와 무릎 꿇고 읍하는 것을 위와 같이 한다.

천성·안골·청천·가덕이선장(二將) 전사의 사초는 왼쪽에서 들어오고, 둔량·사천·진주 일이선장 우사 사초는 오른쪽에서 들어와 위와 같이 한다.

다음으로 옥포·지세포는 왼쪽에서 들어오고, 다음으로 조라포·거제 이선장은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중사 사초가 나누어 들어와 위와 같이 한다.

제포·용천·신문·김해 좌사의 사초는 왼쪽에서 들어오고, 평상·소을비포·남해·하동의 후사 사초는 오른쪽에서 들어와 영 밖에서 위와 같이 한다.

다음으로 산성십이성장은 좌우로 나누어 들어와 영 밖에서 위와 같이 한다.

각사 초병선장은 좌우로 나누어 영 밖에서 위와 같이 한다.

다음으로 승병과 의병장은 영 밖에서 이와 같이 한다.

다음으로 집사가 군례를 마친 것을 고한다.<sup>18</sup>

『수조홀기』 앞면에 기록된 군례의 알현 행사 절차에는 『병학지남』과는 다르게 대장이 아문에서 세병관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기록됐다. 먼저 군례의 절차는 대좌기를 설치하는 것과 이를 관아에 돌려주는 사항을 적고 있다. 치진일은 대장 이하 수령과 변장 등이 절차를 따라 군선을 이끌고 진에 나아가는 의례를 의미한다. 대장이 아문에서 말을 타고 종각 아래에 이르면 말에서 내려 세병관으로 들어온다. 이어서 휘하에 장관들이 당상은 중문 안에서 지영하고 당하는 중문 밖에서 지영하는 내용을 적고 있다. 이를 통해 의례가 거행되는 공간은 아문에

18 원문은〈부록〉참조.

서부터 종각, 세병관으로 이어지고 각 공간에서 거행하는 절차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참여한 계층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중군·기고관·기패관은 통제사를 알현하고, 순령수·군뢰·취소수는 고두한다. 부선별장, 친병좌우부 천총, 좌우 한선장 포수 파총, 친병 좌우부 좌우 파총, 가덕·창원·거제·적량·미조항 오사파총, 산성치총, 영등·당포 좌우 척후장, 친병 16초관은 영내에서 두 번 무릎 꿇고 두 번 읍했다. 삼천영귀선장·곤양·고성·율포 좌한선 오초, 가배량·진해·귀산·장목포·남촌 우한선 오초와 천성·안골·청천·가덕이선장 전사 사초, 둔량·사천·진주일이선장 우사사초는 영내에서 한 번 무릎 꿇고 한 번 읍했다. 제포·웅천·신문·김해 좌사의 사초, 평상·소을비포·남해·하동의 후사 사초, 산성십이성장, 초병선장, 산성십이 성장은 영 밖에서 한 번 무릎 꿇고 한 번 읍했다. 조선은 신분사회였으므로 통제사 이하 여러 장관과 병사는 품계에 따라서 알현하는 공간과 횟수의 차이가 발생했다.

다만 이러한 군례의 양상을 통해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제사가 당시 지방 사회에 끼친 영향대로, 군례에서 통제사와 수령과 읍 사이에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제 영에 방어를 위해 설치한 산성에 있는 병력도 군례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승병과의 병장이 군례에 참여한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승병은 세속적인 조선 군주의 정치 권위를 존중하는 한편으로 승병 자신도 나라의 한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승려지만 군주에 대한 신하와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sup>19</sup> 의병의 활동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전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활동했고, 그 가운데 경상우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됐다.<sup>20</sup>

이렇게 통제영, 즉 경상우수영의 수군 훈련은 관으로 대표되는 통제사와 예하 무관과 민으로 대표되는 의병과 승병에 이르기까지 함께 훈련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실제 전시에서도 관민이 함께 해안 변방을 방어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위기 극복을 다짐하면서 군례를 거행한 것으로 그 의미를 새겨보고자 한다.

필자는 본고에서 군례와 관련된 부분의 분석까지 진행했다. 수군제도와 진술 훈련에 대한 분석 및 수영에서 작성된 홀기에 대한 비교 연구는 다음을 기약하려 한다.

19 부남철, 「조선 건국 이후 17세기까지 불교 승려의 정치의식과 행동: 기화, 보우, 휴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9, 한국정치학회, 2015, 132쪽.

20 김강식, 「임진왜란기 충순당(忠順堂) 이영(李伶)의 의병 활동과 기억화」, 『역사와 경계』 110, 부산경남사학회, 2019, 149쪽.

## 참고문헌

정해은, 『(한국) 전통 병서의 이해』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김우진, 「18세기 경상좌수영 군례악 연구 (1): 규장각 소장 수조홀기(水操笏記)에 기해」, 『한국음악사학회』 49, 한국음악사학회, 2012.

김현구, 「조선 후기 통제사에 관한 연구」, 『역사와 세계』 9, 부산대사학회, 1985.

김현구, 「조선 후기 통제영의 공해(公廩) 구성과 변천」, 『역사와 경계』 83, 부산경남사학회, 2012.

소순규, 「조선 초 대열의(大閱儀) 의례 구조와 정치적 의미」, 『사총』 7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2.

송기중, 「17~18세기 통제영의 방어 체제와 병력 운영」,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이민용, 「17~18세기 수조(水操) 운영의 일례 고찰: 규장각 소장본 경상좌수영 『수조홀기』를 중심으로」, 『군사(軍史)』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9.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병장도설(兵將圖說)』

『병학지남(兵學指南)』

『수조홀기(水操笏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여지도서(輿地圖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부록: 〈水操笏記〉原文

水操笏記

大大將大坐起于洗兵館 升帳升旗 諸將官軍禮等事 一如常時 大坐起例畢罷坐吹 還衙

馳陣日 守令·邊將, 親騎戰船, 馳陣時 各放砲一聲 □□□□ 馳陣後 中營分送旗鼓官 左右依圖 列成行伍 二吹則 中軍守令·邊將, 營邑鎮諸將官 到洗兵館三門內外處候 三吹後 大將自衙門上馬 鳴金大吹打 旗牌官擺列清道威儀于門外 到鐘閣下 下馬 砲三聲 此時守令·邊將 祇迎于三門內外 班首從加資爲之 中軍以親隨不爲祇迎 堂上則中門內祇迎 堂下則中門外祇迎 大將到洗兵館門外 鳴金三下 吹打止 鳴金邊 旗幟分立左右 大將仍坐 交椅時不告吹打 訖 鳴金吹打鳴金止 黃門旗手 叉桿作門

中軍旗鼓旗牌官先行參現

次巡令手·軍牢·吹鼓手 分班叩頭起去應退

次 中軍跪稟升帳砲 仍放大砲三聲 鳴金以下大吹打 牢子大鳴三聲 牢子一人 進跪大呼 開門旗手應聲揮旗而退 鳴金三下吹打止

次中軍稟臺船上 升旗 命起應退 放砲一聲 鳴鐘播鼓 升旗畢, 每班移入大喝聲

次副船別將右獨入檻內兩跪一揖

次親兵左右部千總左右分 入檻內 兩跪一揖

次左右翰船將砲手把總親兵左右部左右把總檻內 兩跪兩揖

次加德·昌原·巨濟·赤梁·彌助項五司把總 分入檻內 兩跪兩揖

次山城雄總六(備)分入檻內 兩跪兩揖

次永登·唐浦左右斥候將 分入檻內 上同

次親兵十六哨官 分入檻內 上同

次三千營龜船將 昆陽·固城·栗浦左翰五哨左入

次加背梁·鎮海·龜山·長木浦·南村右翰 五哨右入 跪揖上同

次天城·安骨·晴川·加德二將 前司四哨左入

次蛇梁·泗川·晉州 一二船將右司四哨右入上同

次玉浦·知世浦·左入 次助羅·巨濟二船將右入中司四哨分入上同

次齊浦·熊川·新門·金海左司四哨左入

次平山·所乙非浦·南海·河東後司四哨右入檻外上同

次山城十二城將左右分入檻外上同

次各司哨兵船將左右分檻外上同

次僧·義將楹外上同  
 次執事 告軍禮畢  
 次大將平坐 不告小吹打訖 私禮或行或否  
 次傳令 中軍使諸將 回還該船  
 次兵裨稟初吹 待諸將還歸 二吹則中軍亦還本船  
 次執事 告退軍物 鳴鑼邊  
 次大將上馬 鳴金吹打 行到船門 放駐馬 砲一聲鳴金吹打止  
 次中軍船上內哨兵三 次畢 仍鳴金吹打 行到座船頭 鳴金吹打止  
 次大將 升船廳 舉砲砲一聲 鳴金吹打 行船入

藍黑令下旗 及紅藍白黑招點鼓 則左後司哨  
 俱間船疾趨前右司之前 舉砲一聲 立左右先鋒  
 旗 鳴鑼雷鼓吹天鵝聲作戰良久鳴金止 戰  
 左後司退至前層之前 立定舉砲一聲 立紅白令下  
 旗 及紅藍白黑超点鼓 則前右司哨出後居日  
 之前 鳴鑼雷鼓吹天鵝聲作戰良久鳴金止  
 戰 舉砲一聲 立左翰令下旗 及藍高招兩船 應  
 之營龜船点旗撤帳疾檣赴 賊作吐霧狀  
 待賊船束附忽放大砲一邊升旗設帳鳴鑼  
 雷鼓作戰放砲一聲 立中司令下旗 及四高招中  
 司哨應令出救放砲三聲 立司命七司做一場大  
 戰狀 座船尾上舉砲一聲 立令下旗 指點各兵船  
 自後面出來作戰 良久鳴砲三下止戰 舉砲一聲  
 立五方神旗 各船應之 鐸鉦鳴 各船隨應回船  
 成變換尖字陣 放砲三聲 吶喊三次 不点旗畢 行  
 得勝鼓吹打 各船一齊吹打 回到方陣基 舉號  
 砲一聲 立司命 各船應之 右三巨巨鼓吹羅隊伍  
 喇叭 各船應旗槍成方營 中軍船上舉砲一聲  
 鳴金邊 發旗立表 大將船上 吹長聲喇叭 舉砲  
 一聲 各船回船向前 舉號砲一聲傳羅 各船 下  
 碇坐息 舉砲一聲 立左右先鋒旗掌喇叭 收入陣  
 中 中軍船上 舉砲一聲 豎黃神旗雷鼓 各船發樵  
 汲兵 大將船上 放砲三聲大吹打 閉船門 若晝習  
 夜營 則豎黑神旗行之 中軍船上 舉砲一聲 吹掌  
 號笛 清道旗引出引入 一如發放例 各船到中軍  
 船下查功罪 中軍 船上舉砲一聲 豎黃神旗 各船  
 應之 掌喇叭一遍呼囉[鑼]一通 各兵起立舉砲一聲  
 大吹打開船門舉砲一聲 鳴鑼各兵坐息舉起火一  
 枝 營中舉火傳羅炊飯食 中軍船上舉砲一聲 鳴  
 金邊 左右先鋒 及左右探船應出 大將船上 舉砲  
 三聲 鳴鑼雷鼓落旗 各船一体行之 舉開砲三聲 吹打  
 雷鼓舉定砲一聲 吹喇叭 叩更 各船刁斗一体爲之 發  
 雷鼓三通 舉砲一聲 舉起火三枝 懸燈各船 一体行之  
 舉砲一聲 起火一枝 各船下粧 舉炬火上下通明 舉砲  
 一聲 蓋藏焰(燈)火 各船應之 此時左右探船 放砲起火報  
 警 大將船上 舉砲一聲 明開燈火 吹天鵝聲 各船吶喊  
 共三次 左右先鋒船 放砲舉起火報警砲一聲 起火  
 三枝 各船向賊放起火 毋過三枝 舉砲一聲 鳴鑼雷  
 鼓 吹天鵝聲 各作戰良久 鳴金止戰 舉砲吶喊三次  
 舉砲一聲 鐸鉦鳴 各船收整隊伍 舉砲一聲 認燈指

船頭 得勝吹打回泊 放砲三聲 落燈大少節次 一如私  
 操日例行之 試閱所諸將官先到札駐三吹後 大將自衙  
 門到五里程放止 軍砲一聲 中軍放砲三聲 吶喊共三次後 送  
 令旗分付開門 大將到■ ■ ■入坐交倚上 鳴大吹打止  
 中軍稟升旗 諸將仕管■ ■後回信地 舉砲一聲 立  
 司命 各司哨應之 仍右一點 鳴金邊 立表 成方陣 試  
 射畢後 中軍稟落旗 舉砲一聲 立司命 各司哨應  
 砲應旗司命三揮 各司哨(應)旗散回 大將軍 三吹  
 還衙

## 『해양유산(Ocean heritage)』간행 규정

제정 2019.10.01 국립해양박물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 해양유산 분야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해양유산의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간행하는 학술지『해양유산(Ocean heritage)』(이하 “본 학술지”)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간행)** 학술지는 매년 1회, 12월 3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내용)** 본 학술지의 내용은 해양유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연구노트, 보고서, 서평, 단신, 논평 등을 포함한다.

###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① 본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3인~8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은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박물관학, 보존과학, 역사학, 인류학, 해양학, 해양인문(문화)학 분야 등의 관련 연구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구성하며 학예연구실의 추천을 거쳐 국립해양박물관장(이하 “관장”)이 위촉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위촉 및 임기)**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과 간행에 대한 아래 각호의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 결정
  2.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4. 박물관이 간행하는 학술지인 『해양유산(Ocean heritage)』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관장이 위촉하며, 본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 ③ 편집간사는 학술연구팀장이 수행하며, 학술지 편집 및 간행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편집회의)**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2인 이상, 편집간사가 참여했을 때 이루어지며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에게는 회의참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원고심사

**제7조(심사위원 선정)**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원고별 관련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한 특별원고 및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대회 발표 후 보완된 원고는 2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원고심사 원칙)**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원고를 아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평가지표	항 목	배점(100점)
	1. 논문제목의 적절성	5
	2. 형식 및 체제의 정연성	15
	3. 연구내용의 독창성	20
	4. 논증과정 및 논거·용어의 적절성	25
	5. 연구 결과의 효용성 및 시사점	25
	6. 참고문헌의 적절성	5
	7. 요약문의 적절성	5

② 심사위원은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의뢰된 원고를 심사한 후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 불가(69점 미만)’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다.

③ 심사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일 이내로 하며, 편집위원회에 투고원고 심사서(서식3)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에의 처리)** 게재 여부 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심사결과			종합판정	비고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D)	수정 후 재심사	• C판정 : 해당위원 재심 • D판정 : 제4차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D)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기타			게재불가(반려)	

### 제4장 심사판정 후 처리사항

**제10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원고투고자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원고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원고료)**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더라도 최대 100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하며, 연구노트, 보고서, 서평, 단신, 총설 등은 최대 50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한다.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논문게재의 취소)** 투고된 원고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원고의 본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제13조(저작권)**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게재 확정된 원고를 온라인상 복사, 배포, 전송 등에 이용하기 위해 집필자로부터 저작물 이양 동의서(서식4)를 받아야 하며 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집필자는 온라인상(인터넷 상)에서의 복사, 배포, 전송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박물관에 이양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 제5장 연구윤리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

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 제15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 비상설위원회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조사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을 위한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원장 1인 : 편집위원장이 겸임
2. 투고된 원고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3인 이상

③ 본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선정된 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최종 의결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편집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은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재심 혹은 게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17조(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가급적 부드러운 표현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③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내용이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범위)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자신의 저작물을 제출하는 모든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금해야 한다.

1. 타인의 생각, 연구내용, 연구체계, 연구결과, 기록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표절' 행위
2.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사용하는 '중복게재' 행위
3.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위조' 행위
4. 연구 대상·자료·과정·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5. 투고된 원고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 표시 또는 예우 등 불합리한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제19조(연구 진실성 검증)

① 본 학술지 게재 원고 및 투고된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된 경우,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판정 이전에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을 간주한다.

③ 최종판결이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2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부정행위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로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2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및 일정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23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 등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호 학술지의 원고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인터넷 공지 및 원고료 회수
2. 해당 연구자에게 경고문 발송
3. 해당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② 게재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해당 연구자에게 공지한다.

③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본 학회지의 투고원고를 향후 3년간 심사할 수 없다.

제24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10.01.)

## 『해양유산(Ocean heritage)』 원고 투고 규정

제정 2019.10.01 국립해양박물관

**제1조 (정의)**

원고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보고문, 서평, 연구노트, 단신, 논평 등으로 구분되며, 해양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해양유산(Ocean heritage)”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에 적용된다.

**제3조 (원고 투고)**

- ① 투고자는 첨부 “『해양유산(Ocean heritage)』 원고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동 집필일 경우, 주저자(연구책임자)와 공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공저자 순으로 표시한다.

**제4조 (원고 내용)**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은 국내외에서 미간행된 논문 등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5조 (원고 매수 및 원고료)**

원고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며, 첨부자료(사진, 도면 등)로 인해 원고의 분량이 150매를 넘더라도 최대 100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한다. 연구노트, 보고문, 서평, 단신, 총설 등은 최대 50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한다.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 (원고 제출)**

원고는 원고저장파일(hwp 또는 doc) 1부, 첨부자료(사진, 도면 등)의 디지털 파일, 초록 1부, 원고투고신청서 1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저작권 이양 동의서 1부를 E-mail로 원고마감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원고 심사)**

- ① 마감일 이내에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는 필자에게 재심사 수락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제8조 (투고자의 권리와 제한)**

- ① 투고된 모든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박물관에 이양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며,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 (기타)**

- ① 필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를 원고 말미에 명기하여야 한다.
- ② 필자의 원고 교정은 3회 이내로 한정한다.
-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2019.10.01.)

## 『해양유산(Ocean heritage)』 원고 작성 원칙

**1. 원고 작성**

- ① 원고는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②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한자나 외래어는 괄호 속에 병기한다. 영어로 논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모두 작성한다.
- ③ 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핵심어(Key words)는 5개 이상 기재한다.
- ④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시한다.

**2. 필자 표기**

- ① 필자명에 현 소속기관을 병기한다.
- ② 필자의 소속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 ③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기재한다.
- ④ 투고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 반드시 제1 저자를 명시하고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한다.
- 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제일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 저자로 간주한다.
- ⑥ 제1 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명시한다.

**3. 원고 체제**

- ① 용지설정 A4, 글자크기 10pt, 줄 간격 160%
- ② 여백주기: 위 15, 아래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4. 항목**

- ① 항목은 1 > 1> 1> (1)> ① 순서로 표기한다. 단, 목차는 장(1)과 항(1)까지만 기재한다.
- ②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번호를 매긴다.

**5. 표와 도**

- ① 표의 제목은 상단 좌측에 ‘표’로 표기한다.
- ② 표를 제외한 사진, 도면, 지도, 일러스트 등은 모두 ‘도’에 해당되며, 도의 제목은 하단 좌측에 ‘도’로 표기한다.
- ③ 표와 도의 번호는 각각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6. 인용문**

- ①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석문처럼 번역이 불가능하거나, 원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을 그대로 게재할 수 있다.
- ②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7. 주석과 참고문헌**

- ① 주석과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표기하며, 참고문헌의 경우 쪽수는 생략한다.
- ② 한글 문헌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 한글 논문 : 필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혹은 저서명)』, 권(호), 연도, 쪽수.
  - 한글 저서 :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연도, 쪽수.
- ③ 영문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영문 단행본은 책명의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학술지명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④ 번역서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 번역서 : 저자명, 『한글 저서명』, 역자명(원제, 원저 출판년도), 출판사명, 연도, 쪽수.
- ⑤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국문의 경우 ‘홍길동 등’, 영문의 경우는 ‘Kim et al.’ 양식으로 표기한다.

㉔ 국문 문헌과 외국 문헌이 함께 서술되었을 경우 국문, 동양, 서양문헌 순으로 표기한다. 문헌의 표시 순서는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수록한다.

#### 8. 원고 제출

원고에 수록하는 그림과 사진의 원본이 포함된 디지털파일, 원고 1부, 원고투고신청서 1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를 E-mail로 원고 마감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